





## 발간사

“국가의 복지는 국민소득이라는 단일 측정치로부터 제대로 추론될 수 없다”는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의 지적처럼, GDP 중심의 경제지표는 사회 발전의 복합적인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양적 성장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삶의 질 측정’에 대한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1년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발」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삶의 질 지표의 측정 결과와 관련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첫 보고서 발간 이후 여덟 번째를 맞이한 『국민 삶의 질 2025』는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의 3개 분야, 11개 영역, 총 71개 지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1개 영역 71개 지표의 최근 동향과 시계열 비교를 통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데이터 기반 혁신이 초래한 복합적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인 한국 사회의 삶의 질 현황과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2025년의 삶의 질 측정 결과에 따르면, 여가생활 만족도, 월평균 임금 등 여가,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영역 등에 포함된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반면, 가족·공동체, 건강, 안전 영역에서 악화된 지표가 다수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는 점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풍요로운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공동체와의 연대는 일부 악화되고 있어 사회적 위험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주관지표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과 유형화’와 ‘행복의 참값(true value) 찾기: 실험조사의 함의’ 2편의 이슈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유형별 삶의 질 특성과 정확한 삶의 질 지표 측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의미있는 원고를 작성해주신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권다운 박사님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수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삶의 질’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현장에서 증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널리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CONTENTS

## PART 1

### 개요

- 작성배경 • 8
- 목적 • 9
- 삶의 질이란 • 10
- 프레임워크 • 11
- 지표 선정 기준 • 12
- 최근 추세 판정 기준 • 12
- 지표 관리 절차 • 13
- 지표 체계 • 14
- 최근 추세 판정 결과 요약 • 15

## PART 3

### 이슈분석

- 01 주관지표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과 유형화 • 128
- 02 행복의 참값<sup>true value</sup> 찾기: 실험조사의 함의 • 137

## APPENDIX

### 부록

- 01 지표 정의서 • 150
- 02 지표 자료출처 • 176

## PART 2

### 영역별 측정결과

#### 01 가족·공동체

- 독거노인 비율 • 23
- 가족관계 만족도 • 24
- 지역사회 소속감 • 25
- 사회단체 참여율 • 26
- 사회적 고립도 • 27

#### 02 건강

- 기대수명 • 31
- 건강수명 • 32
- 스트레스 인지율 • 33
- 주관적 건강상태 • 34
- 비만율 • 35
- 자살율 • 36
- 신체활동 실천율 • 38

#### 03 교육

- 유아교육 취원율 • 41
- 교육비 부담도 • 42
- 학교교육의 효과 • 43
- 학교생활 만족도 • 44
- 대학졸업자 취업률 • 45
- 고등교육 이수율 • 46

#### 04 고용·임금

- 실업률 • 51
- 고용률 • 52
- 월평균 임금 • 54
- 저임금근로자 비율 • 55
- 근로시간 • 56
- 일자리 만족도 • 57

#### 05 소득·소비·자산

- 1인당 국민총소득 • 61
- 가구중위소득 • 62
- 소득 만족도 • 63
- 소비생활 만족도 • 64
- 가구순자산 • 65
- 가계부채비율 • 66
- 상대적 빈곤율 • 67

#### 06 여가

- 문화여가 지출률 • 71
- 여가시간 • 72
- 여가시간 충분도 • 73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 74
- 1인당 여행일수 • 75
- 여가생활 만족도 • 76

#### 07 주거

- 자가점유가구 비율 • 79
- 주택임대료 비율 • 80
- 1인당 주거면적 • 81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82
- 통근시간 • 83
- 주거환경 만족도 • 84

#### 08 환경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87
- 초미세먼지 농도(PM2.5) • 88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89
- 대기질 만족도 • 90
- 수질 만족도 • 91
- 토양환경 만족도 • 92
- 소음 만족도 • 93
- 녹지환경 만족도 • 94
- 기후변화 불안도 • 95

#### 09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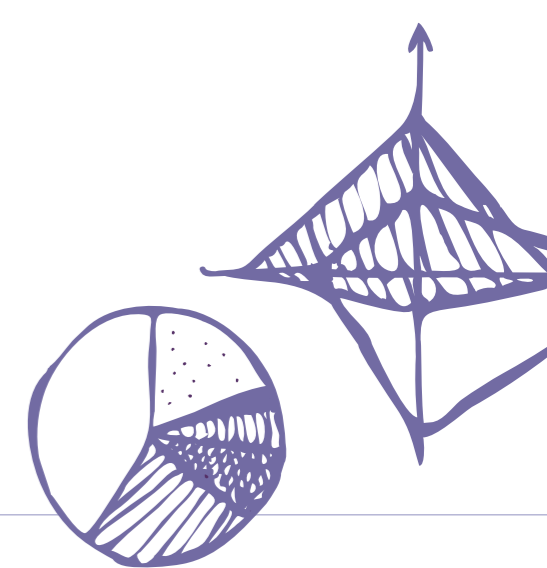
- 가해에 의한 사망률 • 99
- 범죄피해율 • 100
- 야간보행 안전도 • 101
- 산재사망률 • 102
- 화재 사망자 수 • 103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104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105
-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 106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108

#### 10 시민참여

- 선거투표율 • 111
- 정치적 역량감 • 112
- 기관 신뢰도 • 113
- 부패인식지수 • 114
- 시민의식 • 116
- 자원봉사 참여율 • 117
- 대인 신뢰도 • 118

#### 11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 121
- 긍정정서 • 123
- 부정정서 •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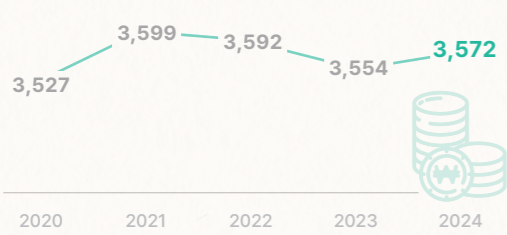


# 국민 삶의 질 주요 결과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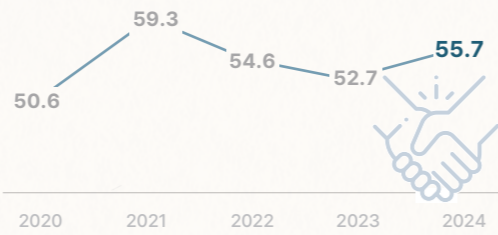


## 전기 대비 개선된 지표

월평균 임금은 2023년 3,554천 원에서  
2024년 **3,572**천 원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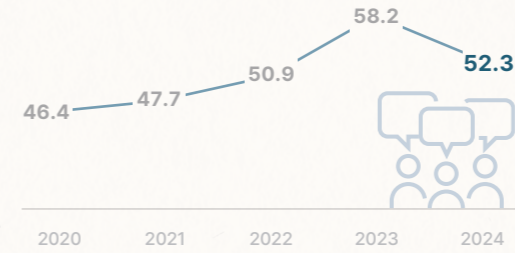


대인 신뢰도는 2023년 52.7%에서  
2024년 **55.7**%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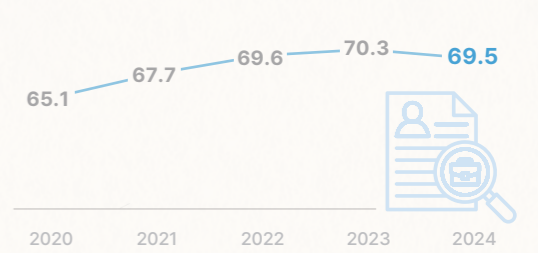


## 전기 대비 악화된 지표

사회단체 참여율은 2023년 58.2%에서  
2024년 **52.3**%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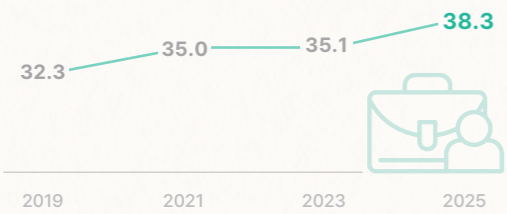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2023년 70.3%에서  
2024년 **69.5**%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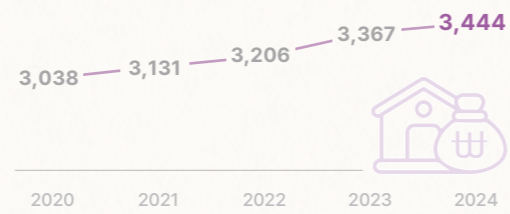


## 최근 개선 추세에 있는 지표

일자리 만족도는 2021년 35.0%에서  
2025년 **38.3**%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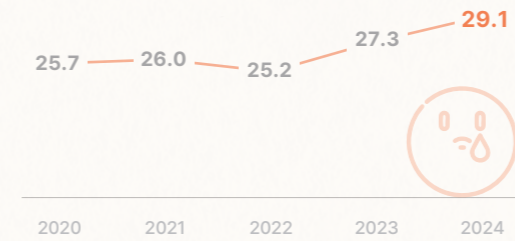


가구 중위소득은 2021년 3,131만 원에서  
2024년 **3,444**만 원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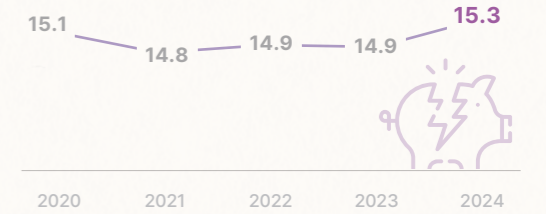


## 최근 악화 추세에 있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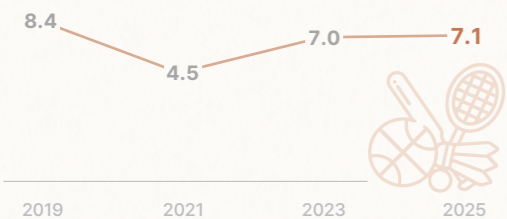
자살률은 2021년 26.0명(10만 명당)에서  
2024년 **29.1**명(10만 명당)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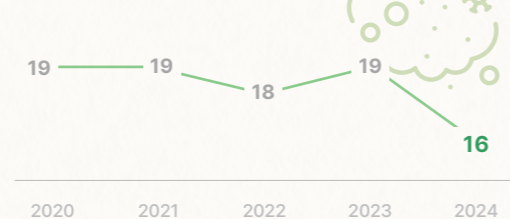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4.8%에서  
2024년 **15.3**%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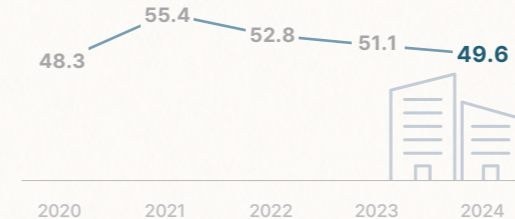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는  
2021년 4.5회에서 2025년 **7.1**회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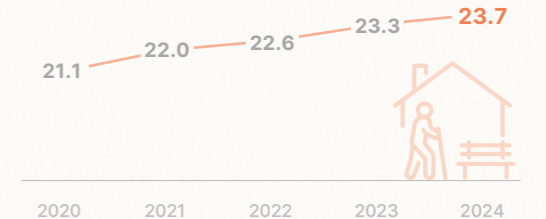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1년 24 $\mu\text{g}/\text{m}^3$ 에서  
2024년 **16** $\mu\text{g}/\text{m}^3$ 로 감소



기관 신뢰도는 2021년 55.4%에서  
2024년 **49.6**%로 감소



독거노인 비율은 2021년 22.0%에서  
2024년 **23.7**%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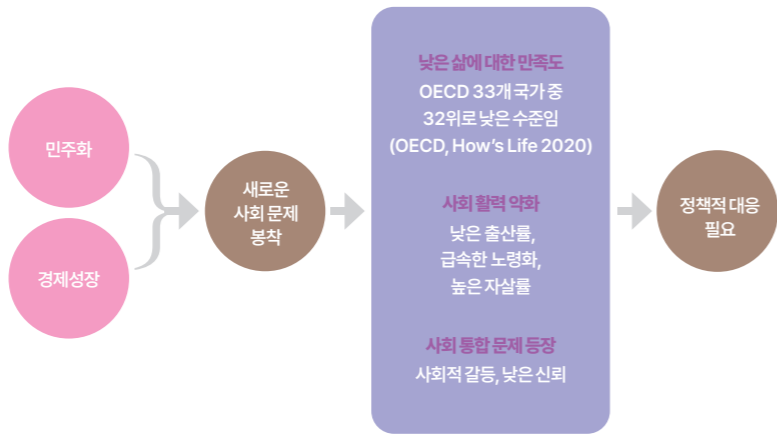
# PART 1

## 개요

- 01 작성배경
- 02 목적
- 03 '삶의 질'이란?
- 04 프레임워크
- 05 지표선정 기준
- 06 최근 추세 판정 기준
- 07 지표관리절차
- 08 지표체계
- 09 최근 추세 판정 결과 요약

## 01 작성 배경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인 웰빙 측정 동향을 고려하여 구축되었다. 먼저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전반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빈부격차, 이념적 갈등, 세대간 갈등, 노사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기존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적 대응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1960~70년대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1990년대 이후 경제 중심의 GDP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국제적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프랑스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는 「경제적 성취 및 사회발전 측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사회발전의 측정에 있어 경제적 측면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OECD는 2004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성과로 “How’s Life?”를 2011년에 발간하여 웰빙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비교 통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GDP and Beyond”에 대한 논의를 2009년에 출발하여 EU 2020년 정책전략에 포함시켰다. 또한 국가단위 차원에서도 다양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02 목적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국민 ‘삶의 질’ 개선 정책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우리 사회의 장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영역별 해결과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작성연혁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 공동연구를 통한 삶의 질 기본틀 및 지표체계 개발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연구 9개 영역, 84개 지표</li> </ul>
2012년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생산 신규지표 개발</li> <li>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지표체계 타당성 검토 및 지표변경 12개 영역, 83개 지표(삭제 9개, 신규 8개, 변경 6개) 기존의 물질적 조건 영역을 4개(소득소비자산, 고용노동, 사회복지, 주거)로 분류</li> </ul>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구축(qol.kostat.go.kr) 및 서비스 실시</li> <li>내외부 전문가의 지표체계 검토 12개 영역, 81개 지표(삭제 2개, 변경 13개)</li> <li>지표검토위원회 구성</li> </ul>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한 지표검토(환경영역 중분류 변경) 12개 영역, 81개 지표(삭제 1개, 신규 1개, 변경 7개)</li> </ul>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한 지표검토 12개 영역, 80개 지표(삭제 1개, 변경 3개)</li> </ul>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 삶의 질 2017」 보고서 작성</li> <li>국민의견 수렴: NAVER 지식iN과 국민생각함 활용</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체계 개편 11개 영역, 71개 지표(사회복지 영역 삭제, 삭제 17개, 신규 8개, 변경 8개)</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청소년 및 고령자 삶의 질 지표구축 기반 마련</li> <li>「국민 삶의 질 2019」 보고서 발간(매년 온라인 발간)</li> </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생각함을 활용한 국민의견 수렴(중요영역, 핵심지표) 11개 영역, 71개 지표(4개 지표의 출처 및 산식 변경)</li> </ul>
2021년	국민 삶의 질 지표 장기추세 분석
2022년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023년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영역
2024년	지표검토위원회 재구성 및 아동·청소년, 청년, 고령자 분과위원회 구성
2025년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 OECD의 How's Life는 2011년 보고서 발간 이후 2019년에 지표개편을 하였으며(24개→43개), 개편은 불평등 측면의 지표 보완, 헤드라인 지표 구성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짐.

### 03 ‘삶의 질’이란

‘삶의 질’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삶의 질’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측정내용에 따라 삶의 질, 복지, 웰빙, 행복, 주관적 웰빙, 주관적 만족감 등 다양한 유사 개념이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 다만 삶의 질, 복지, 웰빙 개념은 객관적 조건을 강조하는 반면, 주관적 웰빙, 만족도, 행복 개념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평가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삶의 질은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반영하고 있어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한 사회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과 구성원의 가치 및 규범에 의해 변화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또한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Societal Quality)’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 04 프레임워크

삶의 질을 측정하는 11개 영역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로 구성된다.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주관적 웰빙을 중심으로 동심원 안에는 ‘개인’, 중간에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맨 바깥쪽에는 ‘환경적 조건’이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차원별 목표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차원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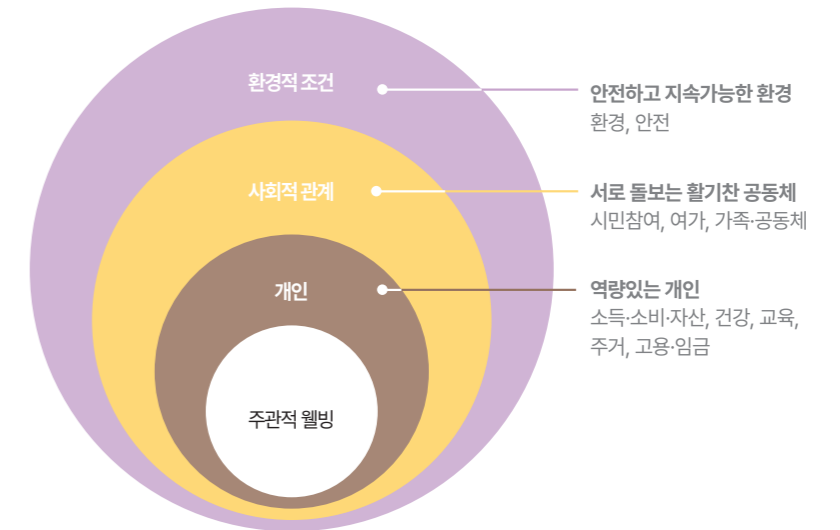
‘역량있는 개인’으로 교육을 통해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경제적 여유와 복지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

#### 사회적 관계차원의 목표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로 사회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시민참여가 활발하고 여가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동체

#### 환경적 조건차원의 목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



## 05 지표 선정 기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각 영역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구성된다. 지표는 크게 적절성, 자료의 질, 중립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 지표 선정 기준

- 적절성**
  - 액면타당도 본래 의도한 바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 산출에 초점 투입·과정보다는 산출에 초점이 맞춰진 지표
  - 이해용이성 모호함 없이 쉽게 이해가능한 지표
  - 정책반응성 정책개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지표
  - 국내 상황 적합성 우리 사회의 맥락에 부합되는 지표
- 자료의 질**
  - 공식통계 삶의 질 측정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공식통계
  - 포괄범위 가능한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지표
  - 시계열 확보 동일적으로 반복적인 측정자료가 누적
- 중립성**
  - 정치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는 지표

## 06 최근 추세 판정 기준




- 1년주기 자료의 경우는 전년도 자료와 비교, 2년 주기 이상인 경우는 최근 측정값 이전의 자료와 비교

### 지표의 작성주기

- 1년주기: 45개
- 2년주기: 23개
- 3~5년주기: 3개

71개 국민 삶의 질 지표가 삶의 질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최근 자료의 추세를 기준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지표별로 생산주기와 지표방향이 다르므로, 최근 측정값을 전기 대비 측정값과 비교하여 각 지표가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방향에 따라 '개선', '악화', '동일' 세 개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고용률' 지표의 경우 측정값이 증가하면 삶의 질이 개선됨으로 '개선'으로 판정된다. 반면, '실업률' 지표의 경우 측정값의 증가가 삶의 질 개선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악화'로 표시된다. 즉 지표 측정값의 전기 대비 변화가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로 판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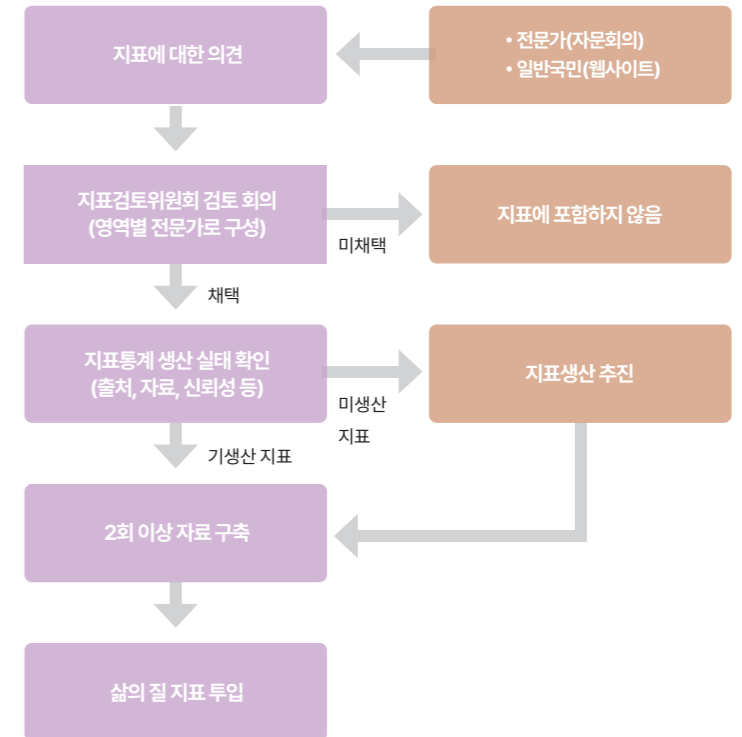
### 추세표시

	<b>개선</b>	전기 대비· 최근 측정값이 삶의 질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 $X_t - X_{t-1} > 0$
	<b>동일</b>	전기 대비· 최근 측정값 동일 $X_t - X_{t-1} = 0$
	<b>악화</b>	전기 대비· 최근 측정값이 삶의 질 개선과 반대 방향으로 변화 $X_t - X_{t-1}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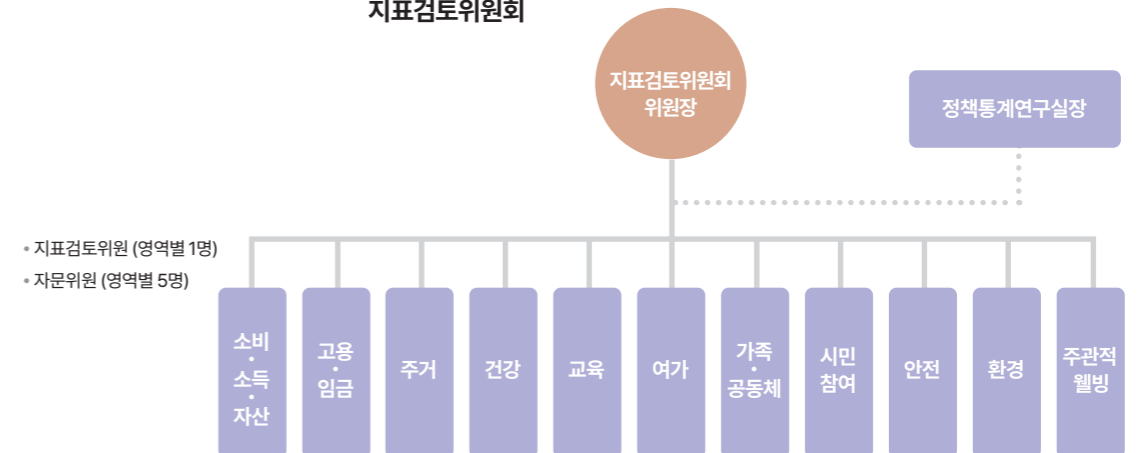
## 07 지표 관리 절차

개별 지표들은 최종 확정된 결과물이 아니며, 사회변화와 통계자료의 생산 현황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지표에 대한 검토 및 평가과정을 통해 지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11개 영역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지표 관리 절차



### 지표검토위원회



## 08 지표 체계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는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42개(59.2%), 주관적 지표는 29개(40.8%)이다. 각 지표는 지표값의 증가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긍정방향 지표(+)와 부정방향 지표(-)로 구분된다.

영역	객관적 지표(42)	주관적 지표(29)
가족·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거노인 비율</li> <li>⊖ 사회적 고립도*</li> <li>⊕ 사회단체 참여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 만족도</li> <li>⊕ 지역사회 소속감</li> </ul>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수명*</li> <li>⊕ 건강수명</li> <li>⊕ 신체활동 실천율</li> <li>⊖ 비만율</li> <li>⊖ 자살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 건강상태</li> <li>⊖ 스트레스 인지율</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 취원율</li> <li>⊕ 고등교육 이수율</li> <li>⊕ 대학졸업자 취업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육의 효과</li> <li>⊕ 학교생활 만족도*</li> <li>⊖ 교육비 부담도</li> </ul>
고용·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li> <li>⊖ 실업률*</li> <li>⊕ 월평균 임금</li> <li>⊖ 근로시간</li> <li>⊖ 저임금근로자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만족도</li> </ul>
소득·소비·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국민총소득*</li> <li>⊕ 가구중위소득</li> <li>⊕ 가구순자산</li> <li>⊖ 가계부채비율</li> <li>⊖ 상대적 빈곤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만족도</li> <li>⊕ 소비생활 만족도</li> </ul>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시간*</li> <li>⊕ 1인당 여행일수</li> <li>⊕ 문화여가 지출률</li> <li>⊕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생활 만족도*</li> <li>⊕ 여가시간 충분도</li> </ul>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주거면적</li> <li>⊖ 통근시간</li> <li>⊖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li> <li>⊖ 주택임대료 비율*</li> <li>⊕ 자가점유가구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환경 만족도</li> </ul>

영역	객관적 지표(42)	주관적 지표(29)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미세먼지 농도(PM<sub>2.5</sub>)*</li> <li>⊕ 1인당 도시공원 면적</li> <li>⊕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불안도</li> <li>⊕ 대기질 만족도</li> <li>⊕ 수질 만족도*</li> <li>⊕ 토양환경 만족도</li> <li>⊕ 소음 만족도</li> <li>⊕ 녹지환경 만족도</li> </ul>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에 의한 사망률</li> <li>⊖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li> <li>⊖ 범죄피해율</li> <li>⊖ 아동안전사고 사망률</li> <li>⊖ 산재사망률*</li> <li>⊖ 화재사망자 수</li> <li>⊖ 도로교통사고 사망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간보행 안전도*</li> <li>⊕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li> </ul>
시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투표율</li> <li>⊕ 자원봉사활동 참여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역량감</li> <li>⊕ 시민의식</li> <li>⊕ 부패인식지수*</li> <li>⊕ 대인 신뢰도</li> <li>⊕ 기관 신뢰도</li> </ul>
주관적 웰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만족도*</li> <li>⊕ 긍정정서</li> <li>⊖ 부정정서</li> </ul>

\* 표시된 지표는 영역별 핵심지표임

## 09 최근 추세 판정 결과 요약

- 지표의 작성연도(2025년 12월 말 기준)  
2025년 11개  
2024년 56개  
2020~2023년 4개  
(지표 시의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공표된 고용률, 실업률 지표는 2025년  
수치를 반영하였음)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중장기적인 삶의 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월간이나 분기별로 나타나는 최근 동향이 아닌 연간자료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다양한 출처에서 작성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지표별로 작성주기와 공표시점, 업데이트 시기가 서로 상이하다. 작성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바로 공표되는 지표가 있는 반면(예, 사회조사는 5월에 조사하여 그해 11월 공표), 2~3년 이후에 공표되는 지표도 있다(예, 범죄피해실태조사는 조사 후 2년 뒤 공표). 이에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시의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지표를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12월 말까지 업데이트된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 1년 동안 통계가 공표되어 업데이트된 지표는 71개 중 52개이다. 2년 이상 주기 지표를 포함하여 19개

작성연도별 지표 현황(2025년 기준)

	계	개선	악화	동일
2024	41	21	14	6
2025	11	8	1	2
전체	52	29	15	8

지표는 2025년에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작년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지표별로 공표시점이 달라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2025년 통계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71개 지표 중 11개(15.5%)이며, 2024년 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56개(78.9%)로 대부분이 2024년 자료이다.

2025년에 업데이트한 52개 지표만을 대상으로 하면 전기 대비 개선으로 나타난 지표는 29개이고, 악화로 나타난 지표는 15개, 동일한 지표는 8개이다. 지표별 작성연도의 차이로 인해 52개 지표 중 2025년 통계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11개, 2024년 통계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41개이다. 2025년 통계수치를 보여주는 11개 지표 중 8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24년 통계수치를 보여주는 41개 지표 중 21개 지표만 개선되어 2024년도에 개선된 지표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2024년 수치를 보여주는 많은 지표들이 코로나19 시기 악화되었다가 개선된 후 정체되어 있거나 소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기 시계열 추세와는 달리 소폭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도 악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사회단체 참여율, 유아교육 취업률, 대학졸업자 취업률, 소득 만족도 등이 그러한 경우로 최근 개선 추세이나 전년 대비 소폭으로 감소하여 악화로 나타났다.

개선으로 나타난 지표들 중에서 고용률, 일자리 만족도, 가구중위소득,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등의 지표는 최근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는 지표들이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코로나19 시기 개선된 이후 정체 양상을 보였으나, 2024년에 크게 개선되었다.

영역별로 보면 고용·임금 영역에서 악화된 지표가 없으며 동일지표 하나만 있고, 여가 영역 또한 악화 지표가 하나만 있어 개선된 지표의 비율이 높은 영역이다. 반면, 가족·공동체 영역은 개선 지표 없이 다섯 개 지표 중 3개가 악화, 두 개는 동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안전, 환경, 교육 영역에서 악화 지표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교육 영역의 경우 과거에 개선 지표의 비율이 높은 영역이었으나, 주관적 지표들이 악화로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였던 유아교육 취업률과 대학졸업자 취업률이 최근 소폭 감소하면서 악화 지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지표 최근 추세(2025년12월말 기준) ● 개선 37개, ● 악화 25개, ● 동일 9개



주 ① 2025년 12월 말 기준에서 작성된 자료이나,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공표된 고용률, 실업률은 2025년 값이 반영되어 있음.  
 ② \*표시된 지표는 2025년에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2024년 12월 기준과 동일  
 ③ 개별 지표별 지표값 및 관련자료는 지표누리 홈페이지(index.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PART 2

## 영역별 측정 결과

01 가족·공동체

02 건강

03 교육

04 고용·임금

05 소득·소비·자산

06 여가

07 주거

08 환경

09 안전

10 시민참여

11 주관적 웰빙

# 가족·공동체

Family·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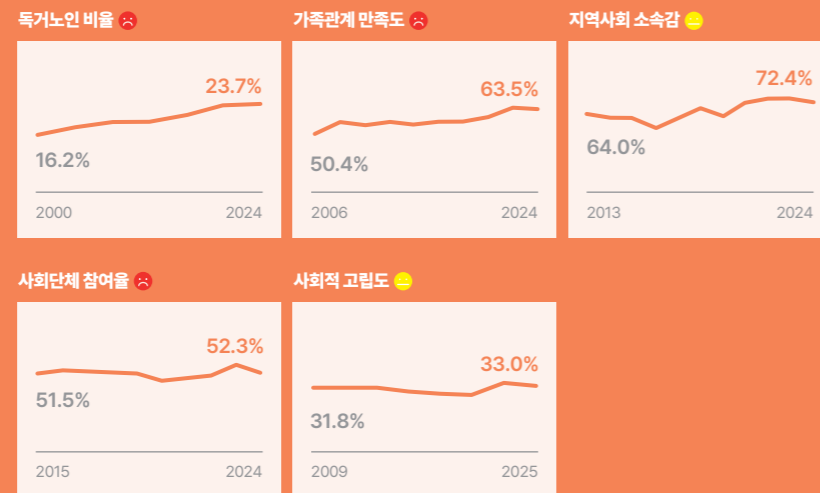


## 가족·공동체란?

가족과 공동체는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가족과 공동체는 공통적으로 구성원들 간 관계에 기초하여 돌봄 서비스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하나로 통합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통하여 보살핌, 지원, 안전을 제공받으며, 교육, 의료, 여가, 교제 등의 기회들을 누린다. 또한 정체감, 소속감, 사회적 가치 및 규범은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 재생산된다.

## 최근 추세

가족·공동체 영역의 5개 지표 중 전기 대비 악화 지표 3개, 동일지표 2개이다. 독거노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지표로 소폭이지만 악화되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상 독거노인 비율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기 대비 소폭 감소하여 악화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소속감은 2024년 72.4%로 전년과 동일하다. 반면 2023년 증가폭이 컸던 사회단체 참여율은 2024년 소폭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시기 악화되었던 사회적 고립도는 전년과 동일하여 소폭 감소 이후 정체된 것을 보여준다.



## 독거노인 비율

Live-alone elderly rate

**지표 정의** 65세 이상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노인 중 혼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

**측정 방법** 독거노인 비율 = (65세 이상 1인가구원 ÷ 65세 이상 일반가구원) × 100

### 2024년 23.7%, 전년보다 0.4%p 증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노인인구 중 특히 취약한 집단은 혼자 사는 노인이다. 한국은 일찍부터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에 비해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여 한국 노인에게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자 중 하나이다.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물질적, 정서적인 측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그럴 수 없다. 특히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독거노인은 사회복지의 주요 관심 대상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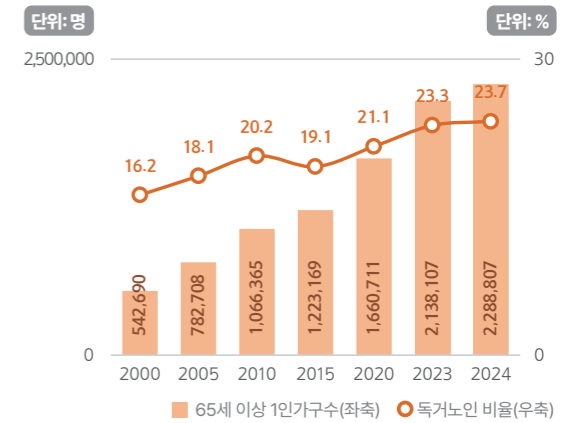
독거노인은 경제상황이나 신체건강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건강도 취약하다. 특히 외로움이나 우울감은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에게서 더 문제가 되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높다.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사는 노인은 2024년 228만 9천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일반가구원의 23.7%이다.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2%에서 2005년 18.1%, 2010년 20.2%로 계속 증가했으며 2015년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65세 이상 일반가구원이 2000년 334만 7천 명에서 2024년 966만 7천 명으로 2.9배 가량 증가한 데 비해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 3천 명에서 2024년 228만 9천 명으로 4.2배 가량 증가하였다.

17개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시도지역이 광역시에 비해 독거노인 비율이 높으며, 특히 전남 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은 28.7%로 가장 높다. 반면, 서울, 세종, 경기 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이 20% 전후로 낮은 편이다. 2015년과 비교

해보면 대구와 광주 지역은 6%p 증가해 다른 지역보다 증가폭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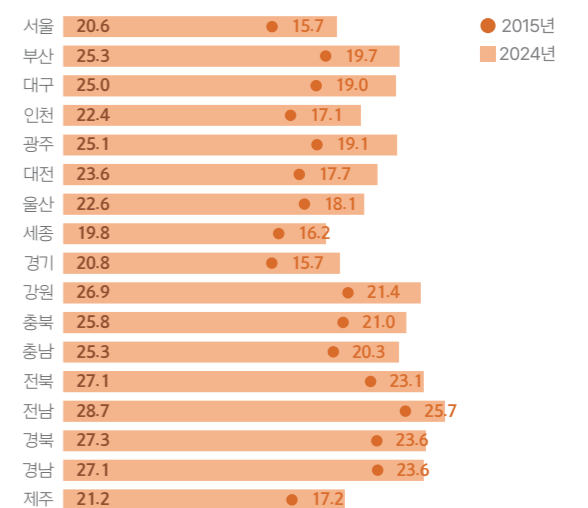
### 2000~2024년 독거노인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주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외국인가구는 제외됨.

### 2015년, 2024년 시도별 독거노인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주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 외국인가구는 제외됨.

# 가족관계 만족도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지표 정의** 자신의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 2024년 63.5%, 2022년보다 1.0%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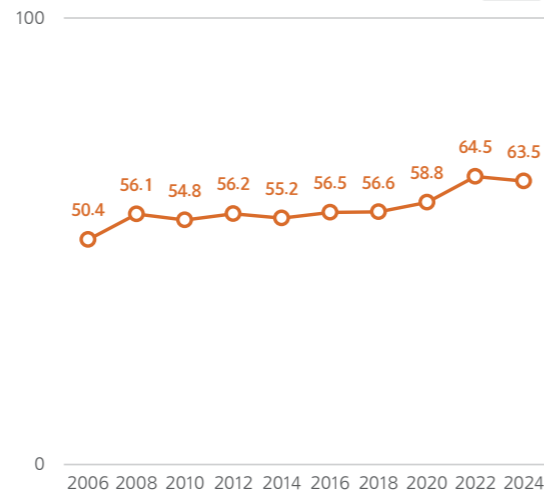
원만한 가족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개인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귀속감과 유대, 친밀감의 원천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소망한다.

가족은 성별 및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집단이라는 특성상 잠재적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최근 들어 한국의 가족은 규범에 의해 유지되는 제도에서 정서적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높아진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가족생활의 질적 수준을 나타낸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 50.4%에서 2008년 56.1%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56.6%로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58.8%, 2022년에는 64.5%로 증가하였다. 코로나 19 시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급격한 증가 이후 2024년 가족관계 만족도는 63.5%로 약간 감소했지만 기존 추세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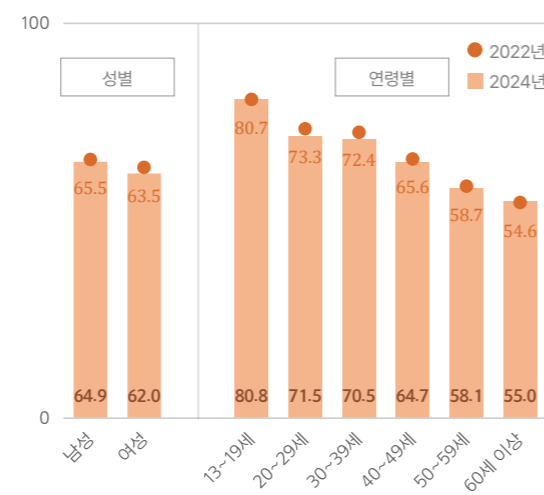
가족관계 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높다. 2024년 기준 남녀의 만족도는 각각 64.9%와 62.0%로 남자가 2.9%p 더 높으며, 2006년 이후 비슷한 추세이다. 연령별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13~19세의 80.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50~59세는 58.1%, 60세 이상에서는 55.0%만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연령별 차이를 보여준다. 2022년과 비교해보면 20대와 30대에서 2%p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60세 이상에서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2006~2024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2년, 2024년 성·연령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지역사회 소속감

Sense of belonging to a community

**지표 정의** 살고 있는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도)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4년 72.4%, 전년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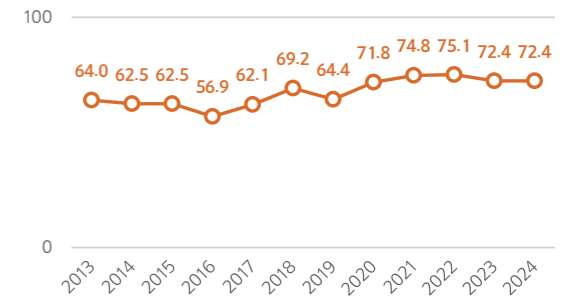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들 중 일부는 공동체나 지역사회로 대체되고 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소속감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통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결속과 연대가 유지되면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을 것이고, 반대로 결속과 유대가 약하면 소속감도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의 결속과 유대는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1인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최근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

현재 거주하는 시도 지역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의 비율은 2024년 72.4%로 2023년과 동일하다. 지역사회 소속감은 2013년 64.0%에서 2014년 62.5%, 2016년 56.9%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이하의 경우 70% 내외로 지역사회 소속감이 낮은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60세 이상에서는 76.1%로 높다. 하지만 2023년과 비교하면 30~39세는 5.9%p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은 -1.8%p 감소폭이 가장 크다.

지역사회의 범위에 따라 소속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시도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72.4%인 반면, 시군구 지역에 대한 소속감 70.4%, 읍면동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68.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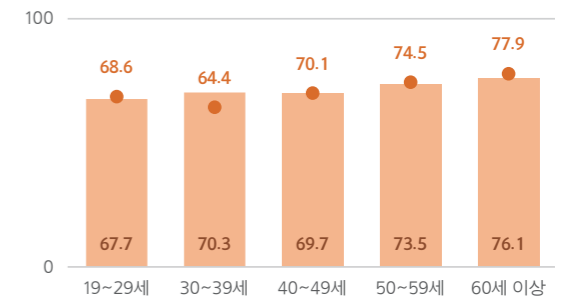
이러한 특징은 거주하는 지역(도시, 농어촌)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여, 농어촌(읍면) 지역 거주자의 지역사회 소속감이 도시(동부) 지역 거주자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읍면동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도시 지역에서는 67.9%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70.5%로 차이를 보인다.

2013~2024년 지역사회(시도) 소속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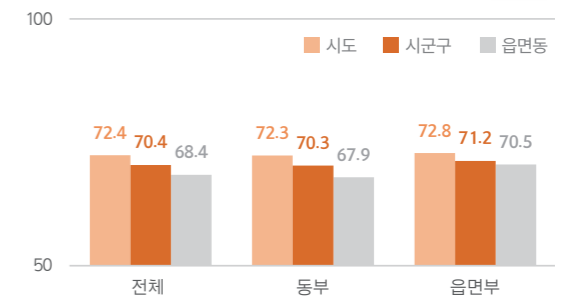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3년, 2024년 연령별 지역사회 소속감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4년 지역별 지역사회 소속감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각각에 대한 소속감임.

# 사회단체 참여율

Social group participation rate

**지표 정의**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 사람의 비율

**측정 방법** 9개 사회단체\* 중 하나라도 '소속되어 가끔 활동(소속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음)' 또는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이라고 응답한 비율  
\*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모임, 자원봉사·기부단체, 동창회·향우회, 사회적 경제조직

## 2024년 52.3%, 전년 대비 5.9%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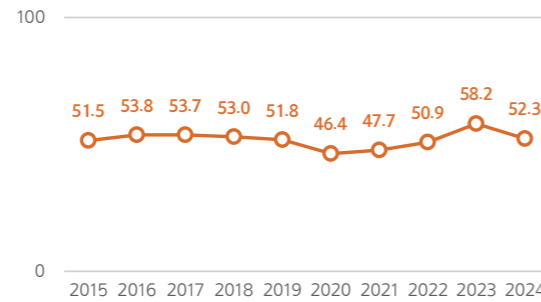
사회단체 참여는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정도로,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참여가 공동체적 삶의 기초로 여겨지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해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다양한 관심과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에 참여하는 정도와 참여하는 단체의 유형은 전반적인 참여의 수준과 특성을 보여준다.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모임, 자원봉사·기부단체, 동창회·향우회, 사회적 경제조직의 9개 단체를 포함하는 사회단체 참여율은 9개 중 하나의 단체라도 소속되어서 가끔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된다. 사회단체 참여율은 2015년 51.5%에서 2016년 53.8%로 증가한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46.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2023년 58.2%로 전년 대비 7.3%p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2024년 52.3%로 전년 대비 5.9%p 감소하였다.

2024년 사회단체 참여율은 남자가 53.9%로 여자(50.7%)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59.0%로 가장 높으며, 19~29세는 49.0%, 60세 이상에서는 49.5%로 낮은 편이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남자가 6.3%p 감소하였고, 40~49세에서 8.9%p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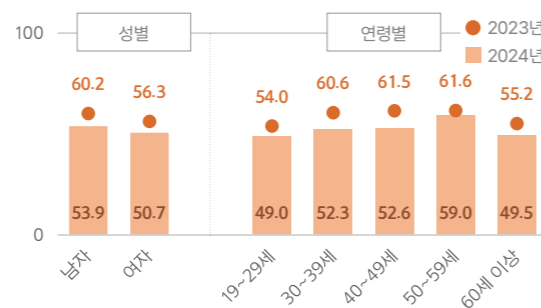
사회단체 참여율의 증가는 사회적 자본의 확대를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는 동창회(30.2%), 동호회(21.0%), 종교단체(17.0%) 등 개인들이 친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인 단체에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사적인 영역에 사람들의 활동이 집중되는 현상은 한국인의 사회활동이 사회적 자본으로 연결되기 힘든 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2024년에는 동창회 및 동호회 참여율이 전년 대비 각각 11.8%p, 2.5%p 줄어든 반면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 등의 참여율이 전년 대비 3~4%p 상승하였다.

2015~2024년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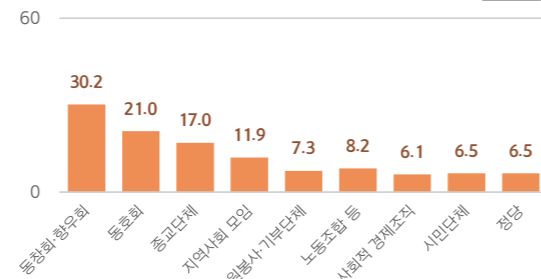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3년, 2024년 성·연령별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24년 사회단체별 참여율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① 각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가끔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의 비율임.  
②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 사회적 고립도

Social isolation

**지표 정의** 신체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

**측정 방법**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 2025년 33.0%로 2023년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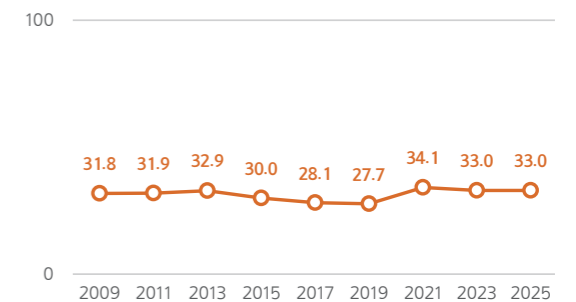
사회적 고립도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인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개인으로는 삶의 질과 관련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질과도 관련된다.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또는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비율인 사회적 고립도는 2025년 33.0%로 2023년과 동일하다. 사회적 고립도는 2013년 32.9%에서 소폭이지만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로 사람들의 관계가 축소되고 제한됨에 따라 2021년에 34.1%로 증가하였다. 2023년 33.0%로 소폭 감소한 이후 정체되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의 사회적 고립도는 35.7%로 여자(30.5%)보다 높은 편으로, 2023년과 비교해서 여자의 사회적 고립도는 감소한 반면 남자의 사회적 고립도는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 19~29세의 사회적 고립도는 24.4%, 30~39세는 26.5%인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39.4%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50대에서 2.2%p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사회적 고립도는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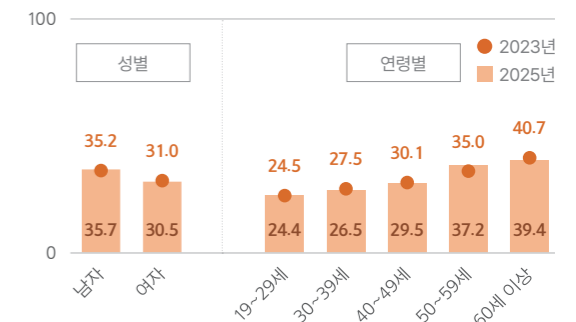
세부항목별로 보면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은 24.9%,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은 21.3%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은 27.7%로, 다른 연령(15~22%)보다 높은 편으로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 데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을 보여준다.

2009~2025년 사회적 고립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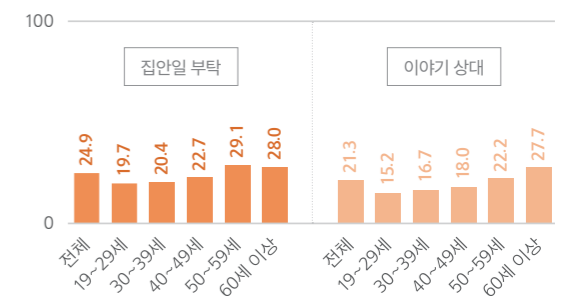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3년, 2025년 성·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5년 세부항목·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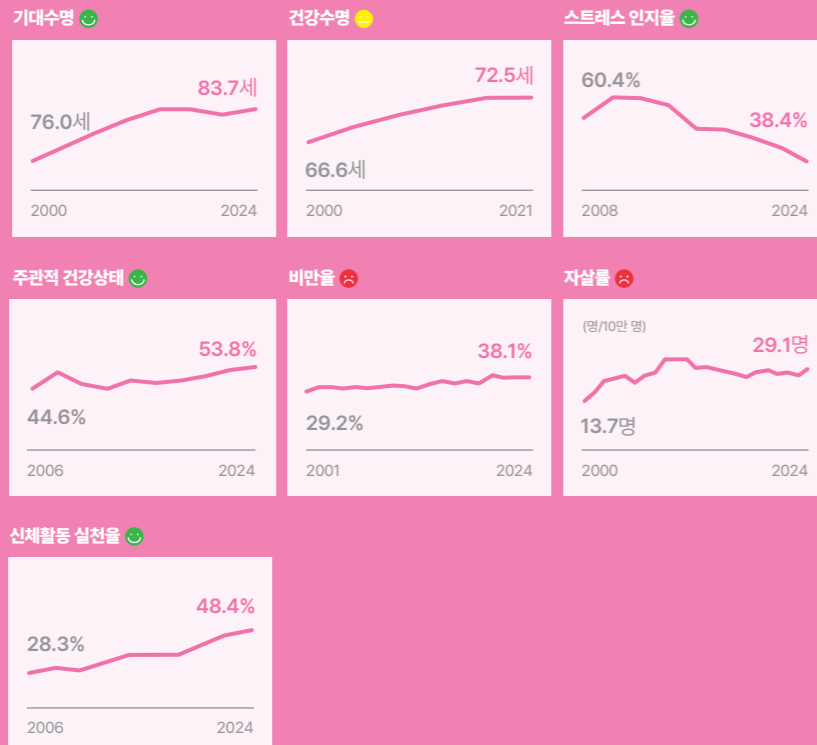


## 건강이란?

건강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삶의 양 혹은 길이)와 더불어 얼마나 잘 사는가(삶의 질)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좋은 건강 상태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높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삶의 기반이 된다. 사회적 수준에서도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의 건강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건강 영역은 개인들의 건강행동과 건강상태로 구성된다.

## 최근 추세

건강 영역에 포함되는 7개 지표 중 개선 지표는 4개, 악화 지표는 2개, 동일지표는 1개이다. 기대수명은 2022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건강수명은 2019년 이후 정체된 것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는 지표로 2024년에도 2022년보다 감소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신체활동 실천율도 2022년보다 개선되었다. 비만율은 코로나19 시기 증가한 이후 37~38%대에서 정체되어 있고, 자살률은 꾸준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지표 정의**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측정 방법**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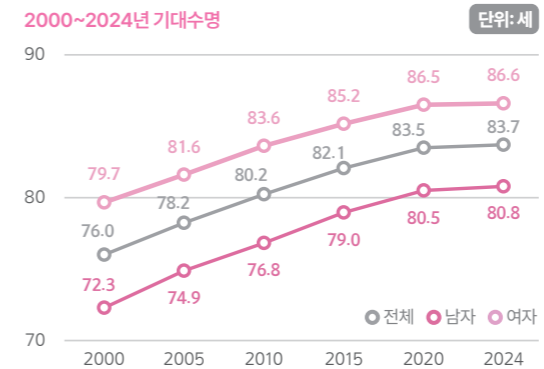
### 2024년 83.7세, 전년 대비 0.2세 증가

건강상태는 기본적으로 사망과 질병 수준으로 측정될 수 있고, 사망수준은 인구의 수명에 영향을 준다. 사망수준이 낮아지면 인구의 수명이 늘어난다. 기대수명이나 영아사망률은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한다. 정확하게는 '0세의 기대여명'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4년 83.7세로 20년 이상 늘어났다. 2000년 76.0세에서 2005년 78.2세, 2010년 80.2세로 증가하여 2000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0.2~0.6세 정도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영향으로 2021년 83.6세에서 2022년 82.7세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증가 추세이다.

기대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길어서 2024년 여자의 기대수명은 86.6세로 남자(80.8세)에 비해 5.8년 길다. 이러한 남녀 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2000년 7.4년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정체되어 있다.

기대수명은 국가 간 건강 수준을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0년을 전후로 80세까지 높아지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



출처 국가데이터처, 「생명표」

라는 기대수명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2023년 OECD 국가 중 6위로 나타났으며, 스위스가 84.3세로 가장 높고, 일본, 스페인이 84세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00년 76세에서 2023년 83.5세로 지난 23년간 7.5세 증가하여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증가폭이 크다.

### 2000년, 2023년 OECD 국가의 기대수명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2025년 12월 기준)

주 ① 2000년 값 중 라트비아는 2002년 자료임.

② 2023년 값 중 튀르키예는 2022년 자료임.

# 건강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

**지표 정의**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  
**측정 방법** 기대수명에서 전체 인구의 평균 질병 및 장애 기간을 제외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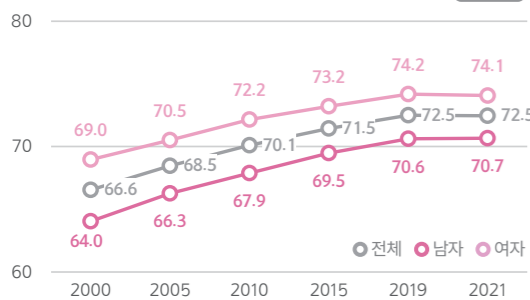
## 2021년 72.5세, 2020년과 동일

기대수명이 양적인 측면에서 건강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라면, 건강수명은 건강의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오래 살고 있지만, 고령기에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다. 단순히 기대수명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사회의 건강수준이 좋아졌다고 말할 순 없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나머지 수명을 말하는 것으로 건강한 상태로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보여준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건강수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에서 2021년 72.5세로 5.9년 늘어났다. 건강수명의 연장은 한국인의 건강수준이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기대수명이 같은 기간 7.6년 늘어난 것과 비교해보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정도는 낮은 편이며, 2019년 이후로는 정체되어 있다.

기대수명과 마찬가지로 건강수명도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 2021년 남자는 70.7세, 여자는 74.1세로 여자가 3.4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나 2000년(5.0년) 이후 성별 격차는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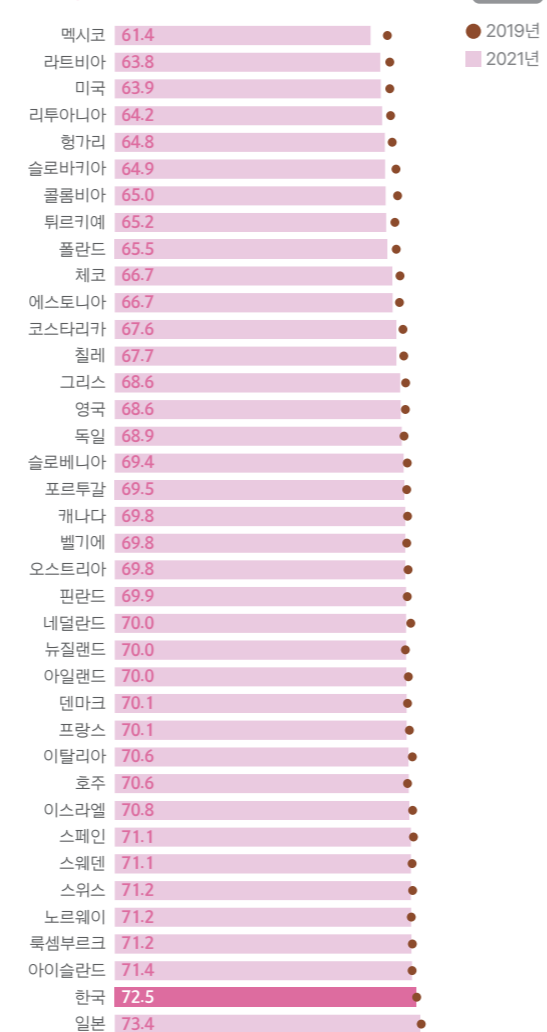
### 2000~2021년 건강수명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s(2025년 1월 기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2021년 OECD 38개국 중 한국의 건강수명은 2위로 일본(73.4세) 다음으로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2019년보다 건강수명이 감소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과 동일하다.

### 2019년, 2021년 OECD 국가의 건강수명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s(2025년 1월 기준)

# 스트레스 인지율

Stress self-recognition



**지표 정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느낀 스트레스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많이 느꼈다' 또는 '느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

## 2024년 38.4%, 2022년보다 6.5%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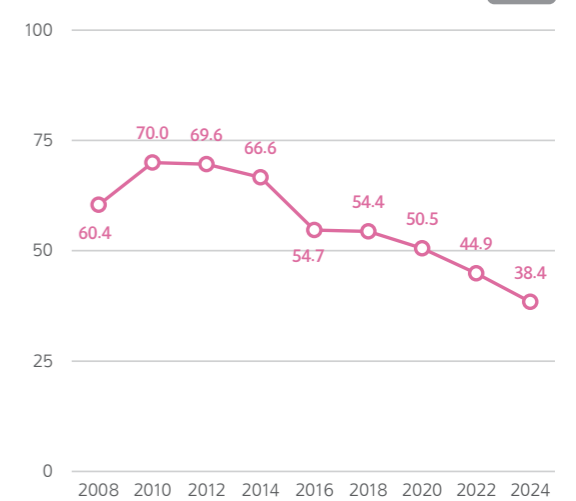
개인들의 건강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으로 측정되며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스트레스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잦은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뿐 아니라 신체건강과도 연관될 수 있어 개인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지난 2주 동안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는 비율로 측정되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4년 38.4%로 2022년 44.9%보다 6.5%p 감소하였다. 2008년 60.4%에서 2010년 70.0%로 증가한 이후 2010년부터 감소 추세이다. 특히 2014년 66.6%에서 2016년 54.7%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기 대비 5.6%p 감소하는 등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 36.7%, 여자 40.1%로 여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 2010년에는 남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더 높았으나 이후로는 여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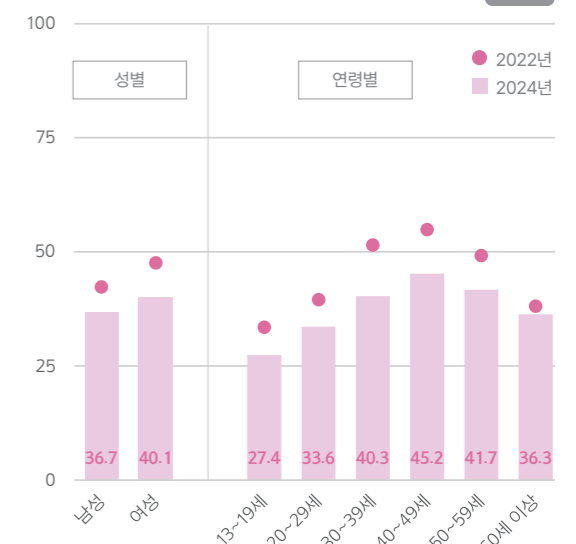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40대의 스트레스가 45.2%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낮아지거나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슷한 추세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스트레스 인지율은 60세 이상(-1.8%p)을 제외하면 5%p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30대에서는 2022년에 비해 -11.2%p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 2008~2024년 스트레스 인지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2022년, 2024년 성·연령별 스트레스 인지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주관적 건강상태

Self-reported health

**지표 정의**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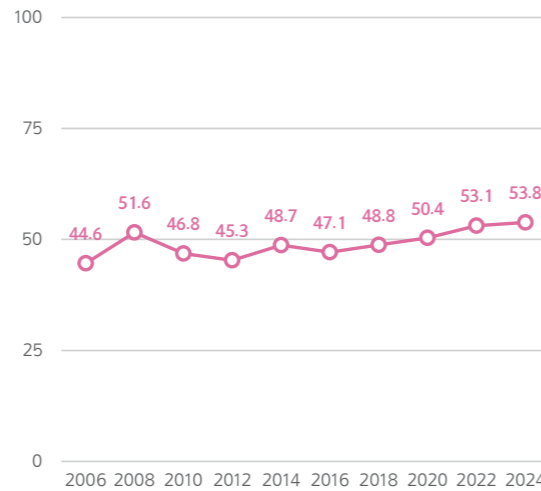
## 2024년 53.8%, 2022년보다 0.7%p 증가

건강상태는 전통적으로 기대수명이나 유병률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 측정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의학적 진단 여부와는 별개로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도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수준을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인이 고혈압으로 투약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면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더라도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더 높을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로 파악한 주관적 건강상태, 즉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4년 53.8%로 2022년 53.1%에 비해 0.7%p 증가하였다. 2006년 44.6%에서 2008년 51.6%로 증가한 이후 2012년 45.3%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코로나19 시기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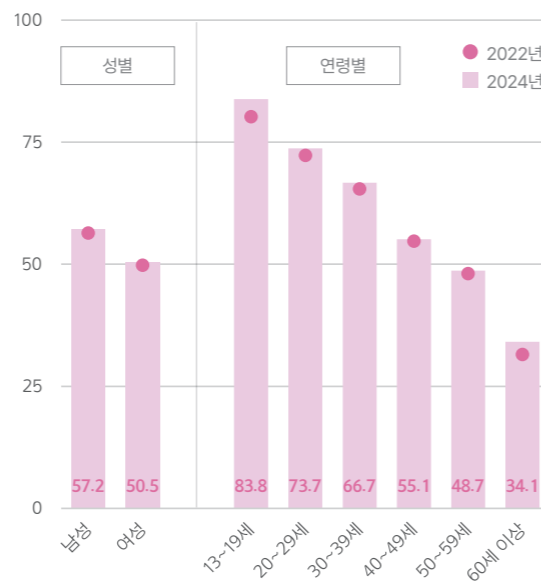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자는 57.2%, 여자는 50.5%로 남자가 여자보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경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 13~19세의 경우 83.8%가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34.1%만이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2022년과 비교해보면 40대와 50대에서는 1%p 미만으로 증가한 반면, 13~19세는 3.6%p, 60세 이상에서는 2.6%p 증가하였다.

2006~2024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2년, 2024년 성·연령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비만율

Obesity rate

**지표 정의**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측정 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sup>2</sup>' 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 2024년 38.1%, 2023년보다 0.9%p 증가

비만은 비교적 새롭게 부각된 건강 위협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발생의 중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비만은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와 영양의 과잉 섭취, 신체활동의 부족 등으로 발생하며, 생활습관인 흡연이나 음주와 달리 경제발전과 생활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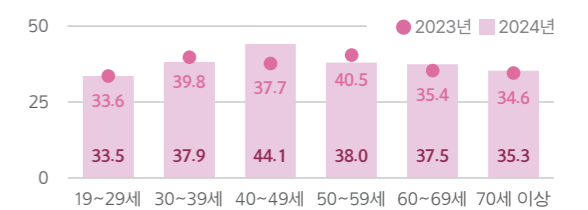
비만율은 2001년 29.2%에서 2005년 31.3%로 증가한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2015년 이후 33~34% 수준에서 2020년 38.3%로 2019년보다 4.5%p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나 운동시설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재택근무나 원격학습 등으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37.1%로 소폭 감소한 이후 정체되었으나 2024년 38.1%로 증가하여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비만율은 2001년 31.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여자의 비만율은 24~28%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이다. 2024년 남자의 비만율은 48.8%, 여자는 26.2%로 남자는 전년 대비 3.2%p 증가한 반면, 여자는 1.6%p 감소하였다. 성별 격차도 2023년 17.8%p에서 2024년 22.6%p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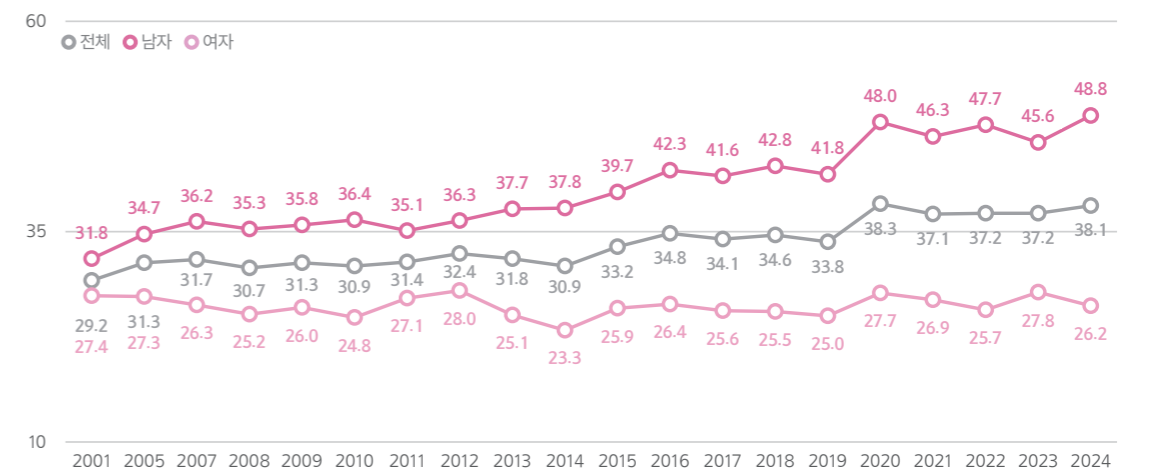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비만율은 2024년 19~29세가 33.5%, 70세 이상이 35.3%로 낮은 편이며, 40대는 44.1%로 다른 연령대가 4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40대의 경우 전년 대비 6.4%p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폭이 크다.

2023년, 2024년 연령별 비만율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2024년 비만율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2005년 추계인구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 자살률

Suicide rate

**지표 정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측정 방법**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2024년 10만 명당 29.1명, 전년 대비 1.8명 증가

모든 자살이 삶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은 서로 관계가 있다. 자살은 우울증과 연관되어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이 높다. 또한 자살률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며,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동이나 불안정성이 증가했을 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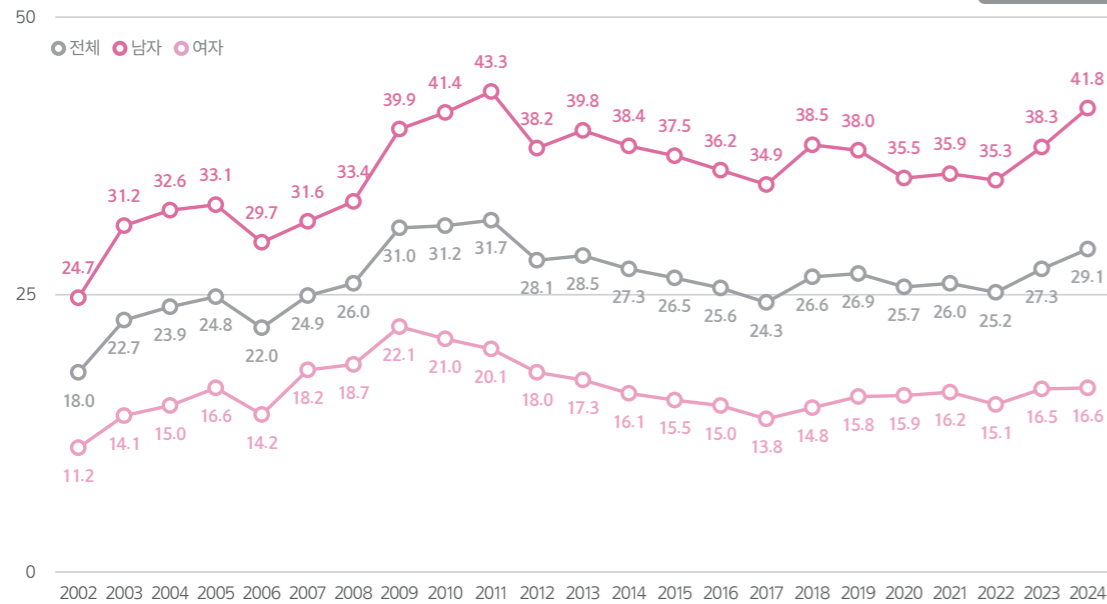
2024년 전체 자살자 수는 14,87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당 1.8명 증가하였다. 자살률은 2002년 인구 10만 명당 18.0명에서 증가하여 2005년 24.8명, 2011년에는 31.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녀 모두 2024년에 전년 대비 증가

하였으며, 남자 자살률은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41.8명으로 여자(16.6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자살률은 40대 이상에서 높은 편이나 특히 80세 이상에서 월등히 높아, 40~70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37명 이내인 반면, 80세 이상에서는 53.3명이다. 성 및 연령별 자살률을 비교해보면, 2024년 남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며, 월등히 높은 80세 이상을 제외하면 40~70대는 49~57명 정도이다. 반면, 여자의 경우 80세 이상을 제외하면 30~40대에서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남자와 차이를 보인다. 10~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자살률이 낮은 반면, 10~19세는 남자 7.4명, 여자 8.7명으로 여자가 더 높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남자는 30~50대에서, 여자는 30~40대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2002~2024년 자살률

단위: 명/1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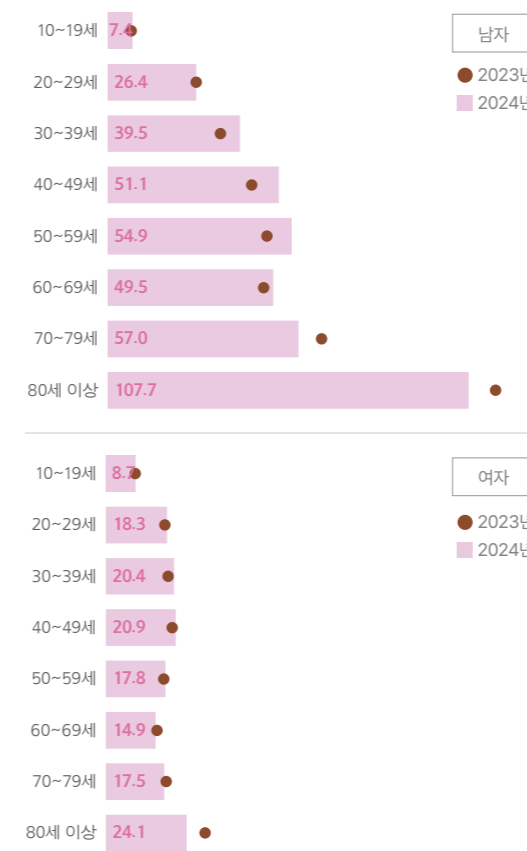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비교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22.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슬로베니아가 17.5명으로 높다. 일본의 자살률은 15.6명으로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크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10명 전후로 나타난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감소 추세이며, 2000년에 자살률이 높았던 국가인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국가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15명 내외의 자살률을 보인다.

2023년, 2024년 성-연령별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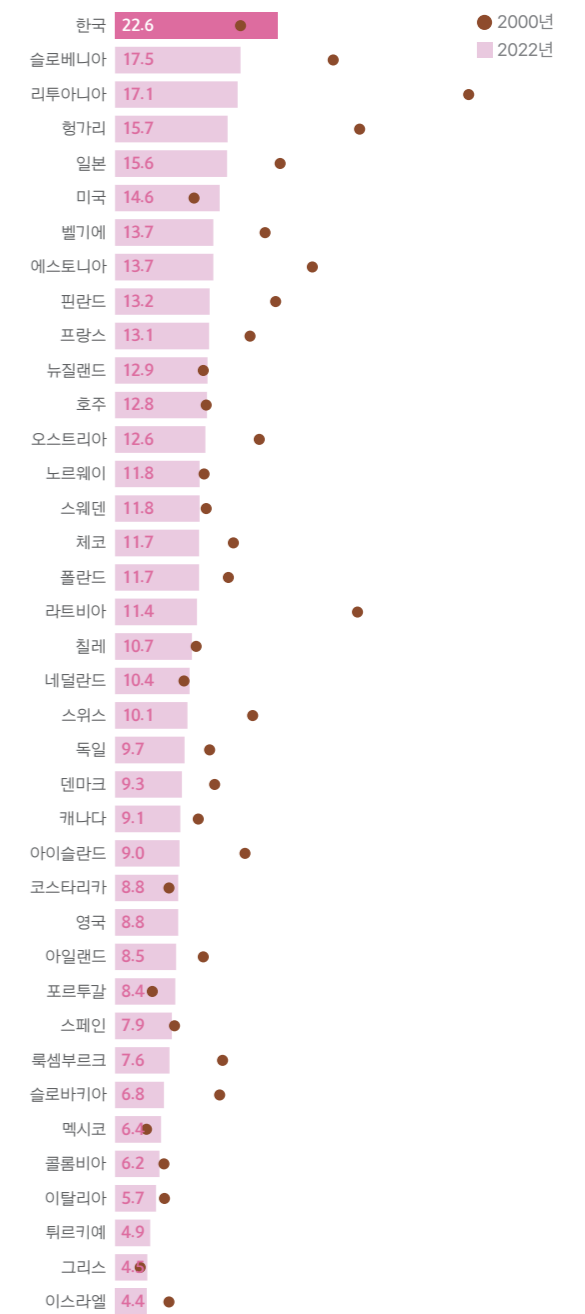
단위: 명/10만 명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2000년, 2022년 OECD 국가의 자살률

단위: 명/10만 명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2025년 9월 기준)

주 ① 연령표준화 자살률임.  
 ② 노르웨이는 2016년, 뉴질랜드는 2018년, 독일은 2020년, 벨기에, 영국, 일본, 콜롬비아는 2021년 자료임.  
 ③ 영국과 튀르키예는 2000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기준연도(2000년) 값은 제시하지 않음.

# 신체활동 실천율

Physical activity rate

**지표 정의**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평소 규칙적 운동(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타기 등)을 '실천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4년 48.4%, 2022년보다 2.9%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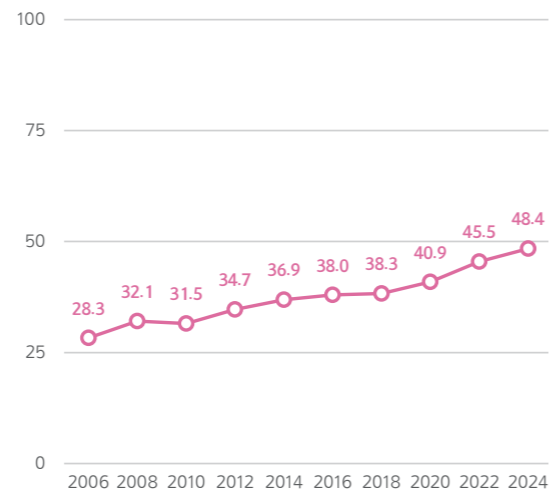
신체활동은 건강증진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신체활동은 대중적이란 측면에서 전문적인 운동(스포츠)과 차이가 있고, 신체 전반의 근육을 단련하고 심폐기능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동작만 반복하는 노동과도 다르다. 걷기, 달리기, 줄넘기, 스트레칭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건강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체활동은 비만의 예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면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는 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이 조사로 파악한 한국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6년 28.3%에서 2024년 48.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 50.7%, 여자 46.0%로 남자가 더 높고, 지역별로는 도시(동부)지역에서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49.3%로 농어촌(읍면)지역(43.9%)보다 높다. 이러한 성별, 지역별 차이는 2006년 이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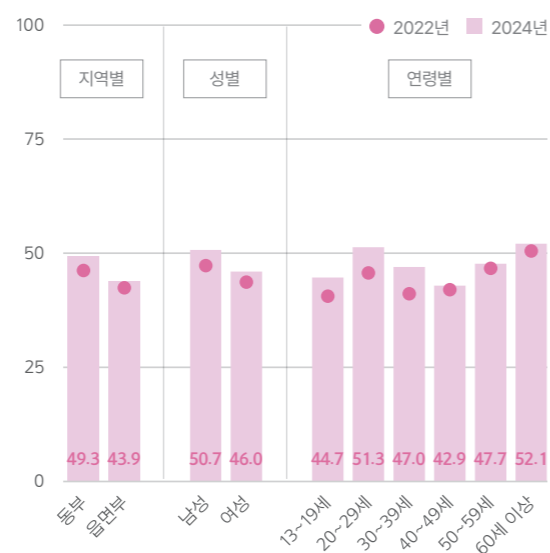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2.1%로 가장 높으며 20대도 51.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대는 42.9%로 가장 낮은 편이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신체활동 실천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지만 40~49세는 2022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반면, 13~19세의 경우 2022년보다 4.1%p 증가하였고, 20대는 5.6%p, 30대는 5.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30세 이하 연령층에서의 증가폭이 크다.

2006~2024년 신체활동 실천율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2년, 2024년 지역·성·연령별 신체활동 실천율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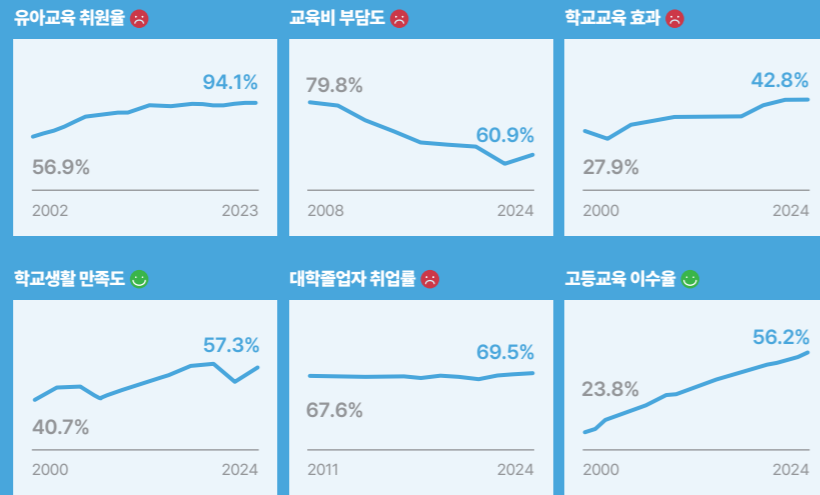


## 교육이란?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물질적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발전을 통한 사회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다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구성원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수단으로 평가되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게 해준다. 교육 영역은 삶의 질과 연관되어 교육기회가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되고 있는가(교육기회), 교육의 삶의 질 제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가(교육자원) 그리고 기회와 재원투입의 확충을 통해 실시된 교육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는가(교육성과)로 분류된다.

## 최근 추세

교육 영역에 포함되는 6개 지표 중 개선 지표는 2개, 악화 지표는 4개이다. 유아교육 취원율은 지속적인 개선 추세에서 최근 정체를 보이다가 2024년에 감소했으며, 고등교육 이수율은 지속적인 개선 추세이다.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4년 감소하였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2022년 감소한 이후 2024년 다시 증가하였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와 학교교육 효과는 2022년 대비 2024년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교육 취원율

Preschool enrollment rate

**지표 정의** 3~5세 인구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의 비율

**측정 방법**  $\{(3\sim 5\text{세 어린이집 보육아수} + 3\sim 5\text{세 유치원 재적원생수}) \div \text{취학적령}(3\sim 5\text{세})\text{인구}\}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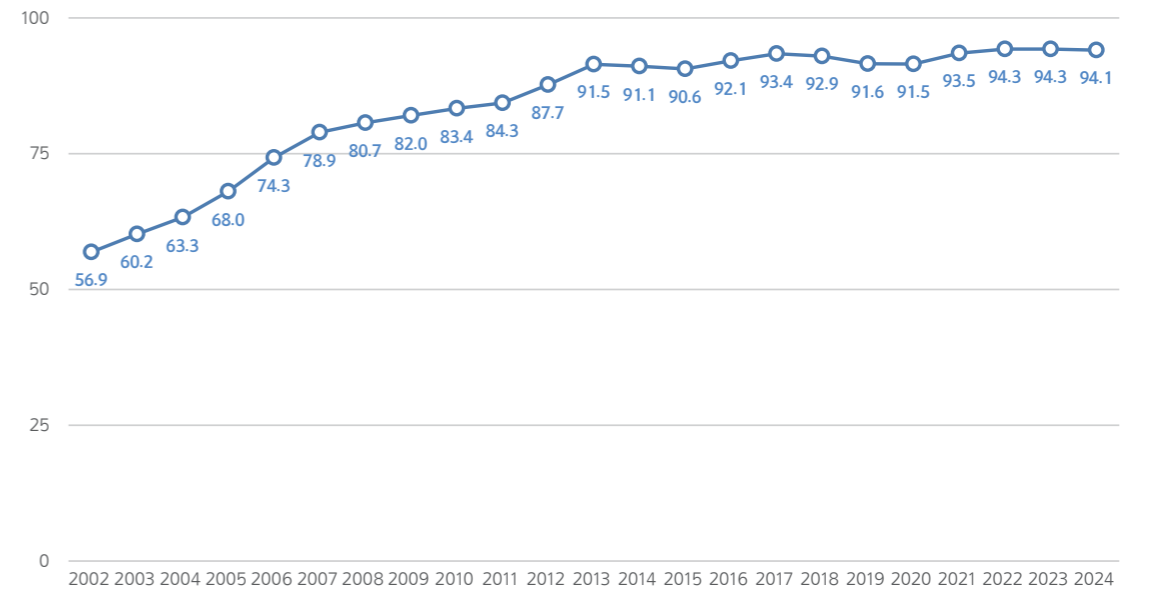
### 2024년 94.1%, 전년 대비 0.2%p 감소

유아교육 취원율은 교육기회가 해당 구성원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제공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초등교육 이전의 교육기회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한국 사회에서 초중등단계의 교육기회는 거의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유아교육 취원율 지표는 초등교육 이전의 교육기회를 측정하는 지표로 의미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시설과 보육시설로 분류되어 현재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지는 않지만, 두 기관 모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기존의 유치원 취원율 대신 두 기관 중 하나라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비율로 지표를 작성하였다. 유치원의 경우 대상 연령의 제한이 있어 유치원을 기준으로 하여 3~5세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2024년 유아교육 취원율은 94.1%로 3~5세 아동의 열명 중 아홉 명 이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유아교육 취원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지표로 2002년 56.9%에서 2008년에 80.7%로 80%를 넘었고, 2013년에는 91.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5~2007년까지 매년 4~6%p 가량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 이후 2008년부터 2%p 미만으로 증가폭이 낮아졌다. 90%를 넘어선 2013년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19~2020년에 91%대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93.5%, 2022년 94.3%로 증가한 이후 정체되어 있다.

2002~2024년 유아교육 취원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주 취학적령인구(3~5세)는 추계인구를 사용함(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다음 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비 부담도

Degree of education cost burden

**지표 정의** 학부모 중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학생 자녀를 둔 가구주 중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얼마나 부담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부담스럽다' 또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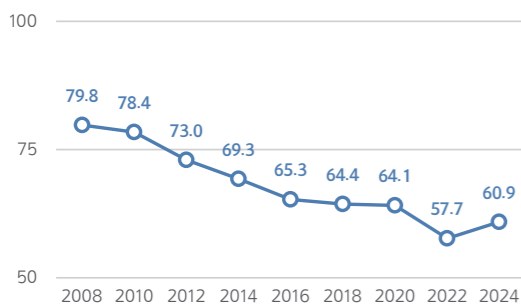
## 2024년 60.9%, 2022년보다 3.2%p 증가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 가구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교육비 부담도는 가구소득 대비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정도를 보여준다.

가구의 교육비 부담도는 자녀의 교육비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2024년에 60.9%로 2022년보다 3.2%p 증가하였다. 2008년 79.8%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2022년에 60% 미만으로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였지만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교육비 부담도는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구주의 연령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시기인 30대가 상대적으로 낮고, 40대 이상이 되면 높아진다. 2024년 30대 가구주의 경우 46.1%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40대는 62.3%, 50대는 62.9%로 증가하여 40대와 50대의 경우 30대보다 약 16%p 정도 더 높다. 2022년과 비교해보면 30대는 동일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2022년보다 7.2%p 증가하였다.

2008~2024년 교육비 부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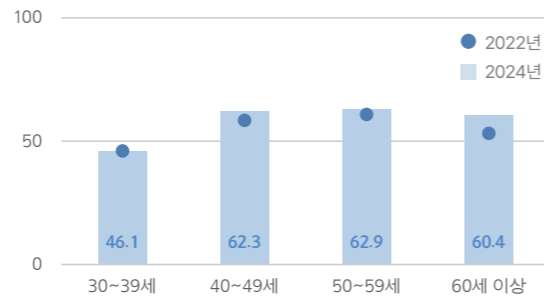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자녀의 교육비 지출 중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학교납입금의 교육비(71.9%)이다. 2014년 이후 학교 이외 교육비에 대한 부담 비율은 증가하고 학교납입금에 대한 부담 비율이 감소한 반면, 하숙 및 기숙사비는 2010년 2.3%에서 2018년 7.0%로 증가한 이후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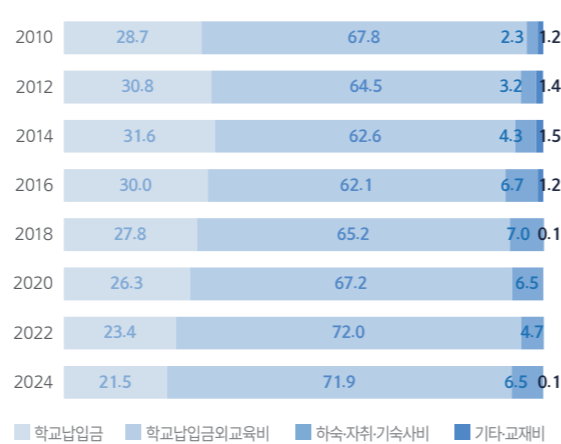
2022년, 2024년 가구주 연령별 교육비 부담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2010~2024년 교육비 중 부담스러운 항목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①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②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부담되는 교육비 항목임.

③ 교재비는 2018년 조사부터 제외, 2020년부터 '보충교육비'는 '학교납입금 외 교육비'로 변경함.

# 학교교육의 효과

Perception toward effects of school education

**지표 정의**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학교교육의 '생활, 취업 및 직업 활용' 효과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효과 있다' 또는 '약간 효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4년 42.8%, 2022년보다 0.4%p 감소

객관적인 수준의 학업성취도가 아닌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개인들이 학교교육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포착하는 지표이다.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관적인 지표로 학교교육이 생활, 취업, 직업 등 실생활 영역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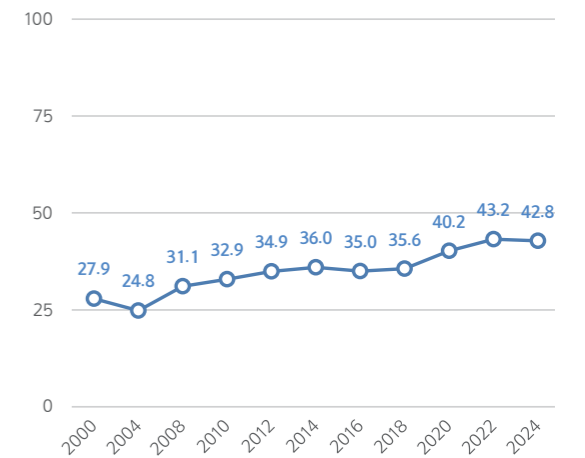
학교교육이 생활과 취업, 직업 면에서 활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4년 42.8%로 2022년 43.2%에 비해 0.4%p 감소하였다. 2000년 27.9%에서 2014년 36.0%까지 증가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0년 40.2%, 2022년 43.2%로 다시 증가한 뒤 2024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비교적 높고, 30~50대가 상대적으로 낮다. 30~50대는 39% 이하로 낮은 반면, 13~19세는 50.4%, 20대는 45.1%, 60세 이상은 48.7%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30대 이하에서는 증가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감소하였다.

교육정도별로 비교해보면 고령층과 중학생이 포함된 초등학교 이하에서 학교교육의 효과는 51.6%로 높은 반면,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는 각각 39.7%, 42.4%으로 고졸에서 가장 낮다. 재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최종학력이 아닌 학년이지만, 교육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학교교육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생활, 취업 및 직업 활용' 이외에도 '지식, 기술 습득', '도덕성 및 인성 함양',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의 학교교육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지식, 기술 습득'이 54.6%로 가장 높고, '도덕성'과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은 각각 38.7%, 34.2%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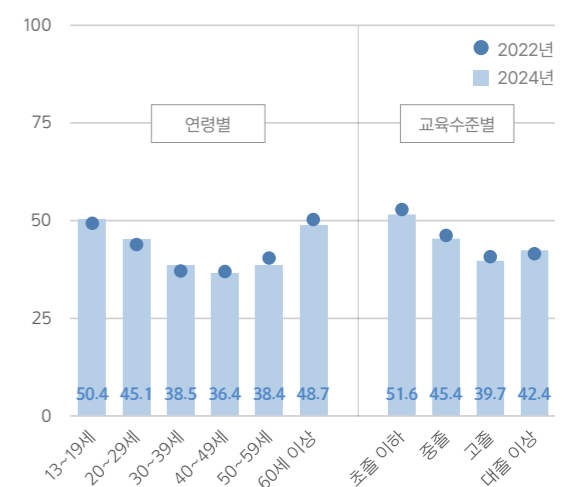
2000~2024년 학교교육의 효과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2년, 2024년 연령·교육수준별 학교교육의 효과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학교생활 만족도

School life satisfaction

**지표 정의**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

**측정 방법** 중·고등학생 중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 2024년 57.3%, 2022년보다 6.2%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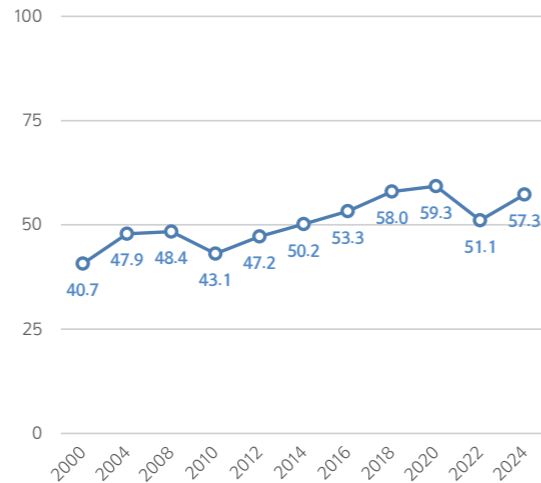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 및 시설 수준만으로는 교육의 질적 조건과 과정을 측정하기 어렵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생활 만족도와 같은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가늠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습자들의 학교생활 참여와 활동을 살펴보는 지표로 학습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학습자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그 자체로도 학생들의 삶의 질이나 웰빙을 진단하는데 의미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024년 57.3%로 2022년 51.1%에서 6.2%p 증가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0년 43.1%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20년 코로나19 시기 59.3%까지 증가하였고, 2022년 51.1%로 급감한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수가 줄었고,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등 기존과는 다른 학교생활이 이루어졌음에도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에는 큰 변화 없이 증가 추세였으나 2022년 전면등교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변화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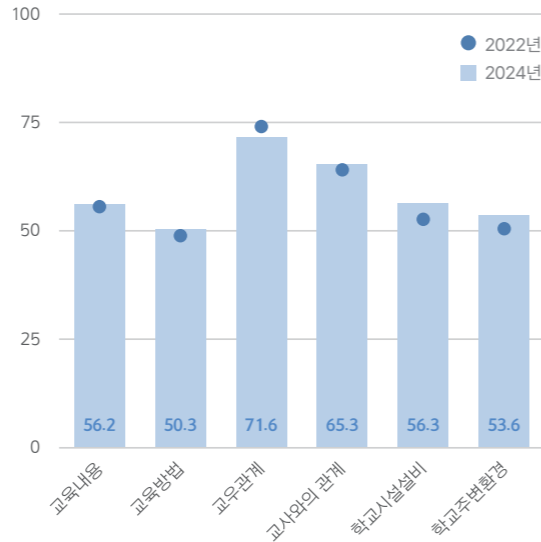
전반적인 학교생활이 아닌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1.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가 65.3%로 높다. 반면,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50.3%로 가장 낮다. 2022년과 비교해보면 교우관계 만족도는 2.5%p 감소한 반면, 다른 항목들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시설비와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p 이상 증가하였다.

2000~2024년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함.

2022년, 2024년 세부항목별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3세 이상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함.

# 대학졸업자 취업률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지표 정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대상자 중 취업자의 비율

**측정 방법** (취업자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취업대상자) × 100



## 2024년 69.5%, 전년 대비 0.8%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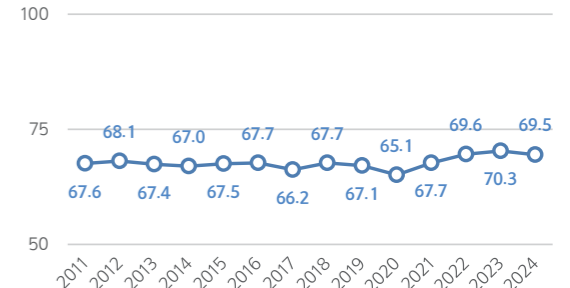
앞서 학교교육의 효과 지표가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관적인 측면의 지표라면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학교교육의 효과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이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대학졸업자의 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고등교육체제의 인적자원개발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조응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정규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청년들이 자아실현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2024년 69.5%로 2023년보다 0.8%p 감소하였다.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2011~2021년) 66~68%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65.1%로 감소했던 취업률은 2021년부터 회복 추세를 보여 2023년에 70.3%까지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다시 감소했다. 2024년 남자의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71.2%, 여자는 67.9%로 남자가 여자보다 3.3%p 더 높다. 여자의 취업률은 2011년 64.5% 이후 증가 추세로 남녀 간 대학졸업자 취업률의 차이는 2011년 6.2%p에서 3%p 전후로 감소한 이후 정체되어 있다.

2024년 대학계열별 취업률을 보면 의약계열이 79.4%로 가장 높고, 인문계열이 61.1%로 가장 낮다.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교육계열만 1.6%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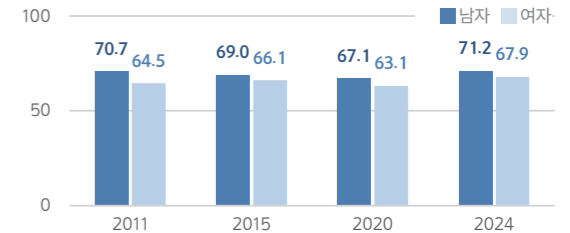
취업대상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 조사기준일(12월31일) 당시 직장건강보험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2011~2024년 대학졸업자 취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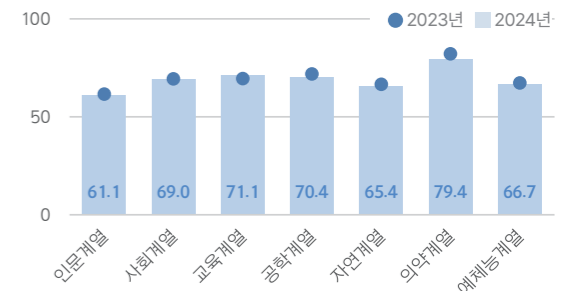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주 ① 고등교육기관에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이 포함됨.  
② 취업률은 건강보험 및 국세 DB를 연계하여 산출함.

2011~2024년 성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주 ① 고등교육기관에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이 포함됨.  
② 취업률은 건강보험 및 국세 DB를 연계하여 산출함.

2023년, 2024년 계열별 대학졸업자 취업률 [단위: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주 ① 고등교육기관에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이 포함됨.  
② 취업률은 건강보험 및 국세 DB를 연계하여 산출함.

# 고등교육 이수율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지표 정의**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고등교육기관 이수자 ÷ 25~64세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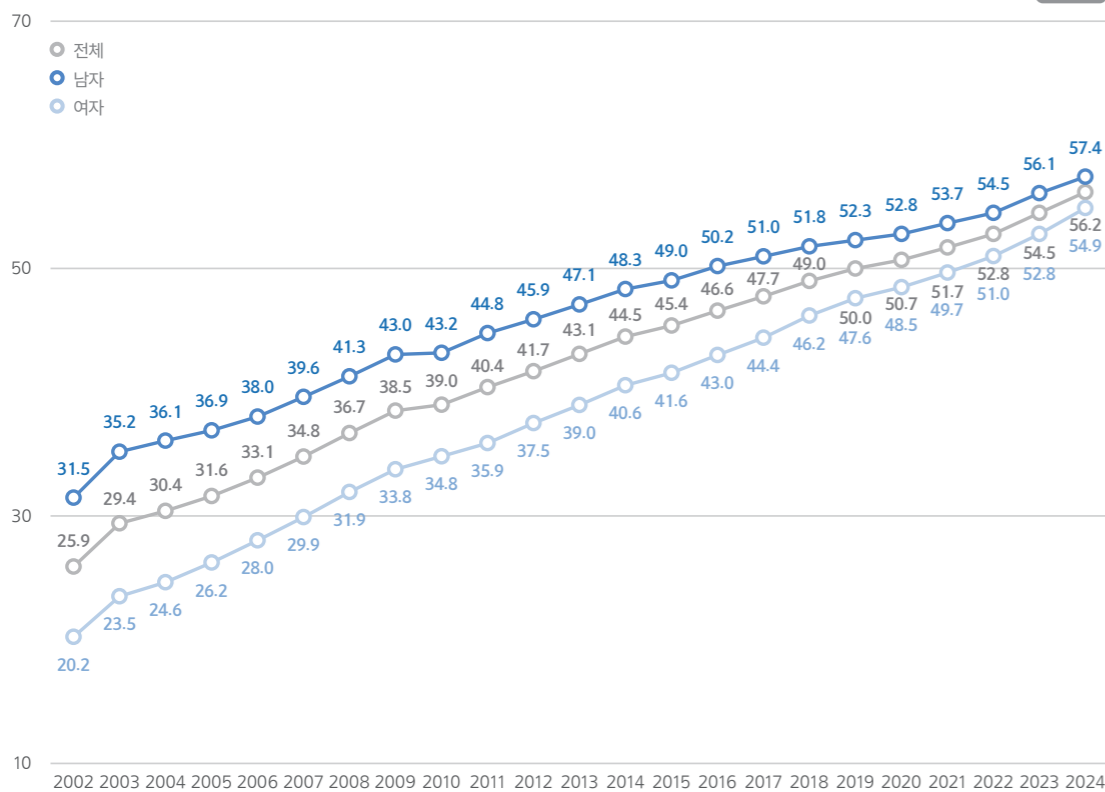
## 2024년 56.2%, 전년 대비 1.7%p 증가

고등교육 이수율은 사회의 교육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을수록 사회의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기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교육기회가 충족되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가 많다는 것은 국가발전의 기반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열도 높아, 국민의 교육기회를 보여주는 취학을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한국인은 이미 세계에서 학교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1981년 졸업정원제를 도입하여 대학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조치를 취하였고,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의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정원을 자율화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대학교육을 받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성인(25~64세) 인구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

2002~2024년 고등교육 이수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2025년 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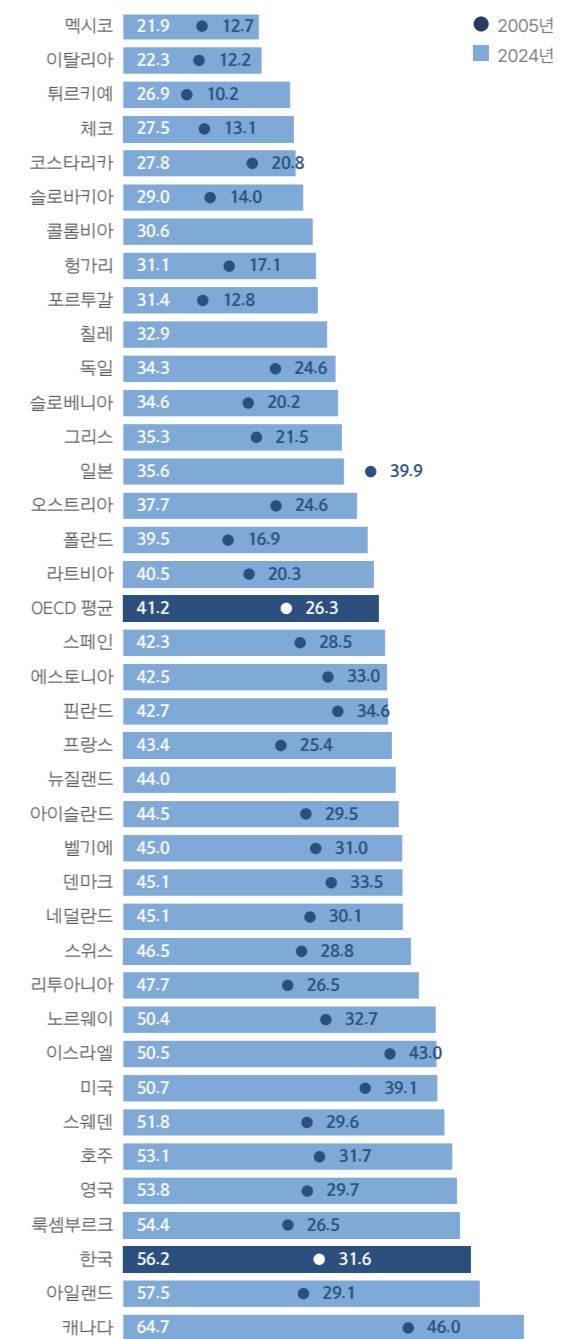
주 고등교육이수율은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tertiary) 이수자의 비율임.

즉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1년에 24.8%였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만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이다. 이후 2011년에는 40.4%에 도달하였고, 2019년에는 50.0%에 도달하여 국민의 절반이 대학교육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56.2%에 달하게 되었다.

성별로 보면, 2024년 남자는 57.4%, 여자는 54.9%로 남자가 2.5%p 더 높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2년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면 남자 31.5%, 여자 20.2%로 11.2%p의 차이를 보였으나 2007년 이러한 성별 격차는 10%p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2019년부터 5%p 미만으로 줄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로, 2024년 OECD 평균(41.2%)에 비해 15.0%p 높다. 한국보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나라는 캐나다(64.7%)와 아일랜드(57.5%)가 있다. 2005년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2005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31.6%로 OECD 평균(26.3%)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18년 동안 OECD 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은 14.9%p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24.6%p 증가하여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고등교육 이수율이 2005년 대비 20%p 이상 증가하였다.

2005년, 2024년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2025년 9월 기준)

주 ① 고등교육이수율은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tertiary) 이수자의 비율임.

② 2005년 자료가 없는 경우 포함하지 않음(칠레는 2022년, 아이슬란드 및 미국은 2023년 수치임).

# 고용·임금

Employment·W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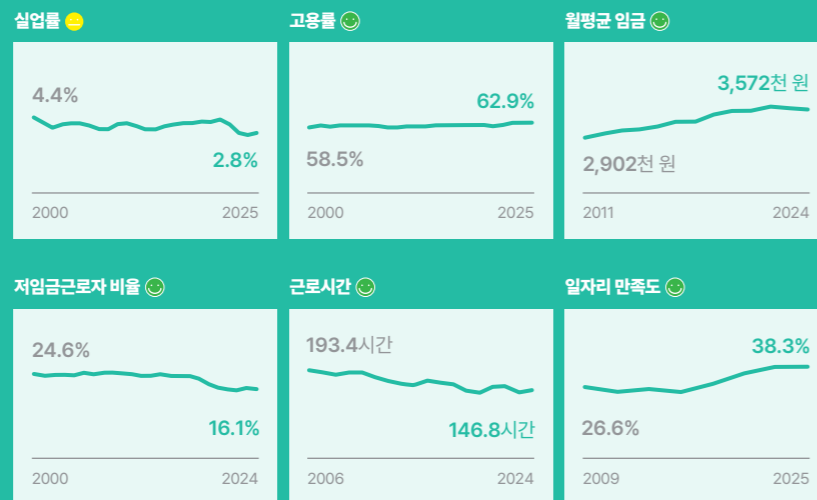
## 고용·임금이란?

경제활동의 기회유무, 경제활동에서의 정당한 보수 수급여부 그리고 경제활동의 질 등이 궁극적으로 소득이라는 최종 산출물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활동이라는 과정 자체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제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고, 또한 고용의 질이 높은 경우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최근 추세

고용·임금 영역에 포함되는 6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 지표는 5개, 동일지표는 1개로 나타났다. 2025년 현황을 보여주는 고용률, 실업률 지표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개선 추세였으나, 고용률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소폭 개선되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 소폭 증가했다. 근로시간은 2020년대에 들어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4년에 근로 시간이 10시간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22년에 악화된 이후 2년 연속 소폭 개선되었다. 일자리 만족도 지표는 2023년 대비 2025년 개선되었다.

\* 모든 지표들은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연초에 공표된(2026. 1. 14.) 고용률과 실업률은 2025년 통계수치를 반영하였다.



##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지표 정의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측정 방법 (15세 이상 실업자 수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 2025년 2.8%, 전년과 동일

실업자는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2025년 실업률은 2.8%로 2024년과 동일하다. 2002년 3.6%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3년 3.1%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률이 4.0%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년 2.7%로 3% 미만으로 감소하여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

성별 실업률을 보면 2025년 남자 2.8%, 여자 2.8%로 남녀가 동일하며, 여자의 경우 2024년에 비해 실업률이 소폭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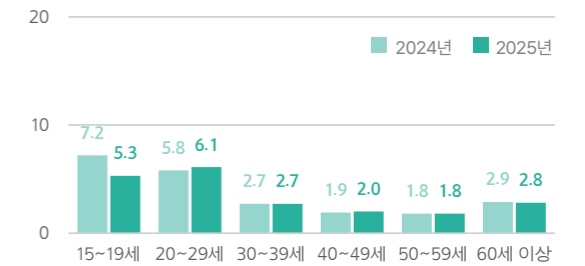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20~29세의 실업률이 6.1%로 가장 높고, 15~19세의 실업률은 5.3%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50대의 실업률이 1.8%로 가장 낮고 40대가 2.0%로 그 다음으로 낮다. 15~19세의 실업률은 2024년 대비 2025년 1.9%p 감소하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업률 조사대상주간(지난 4주 기준)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계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하고 있거나, 실업자로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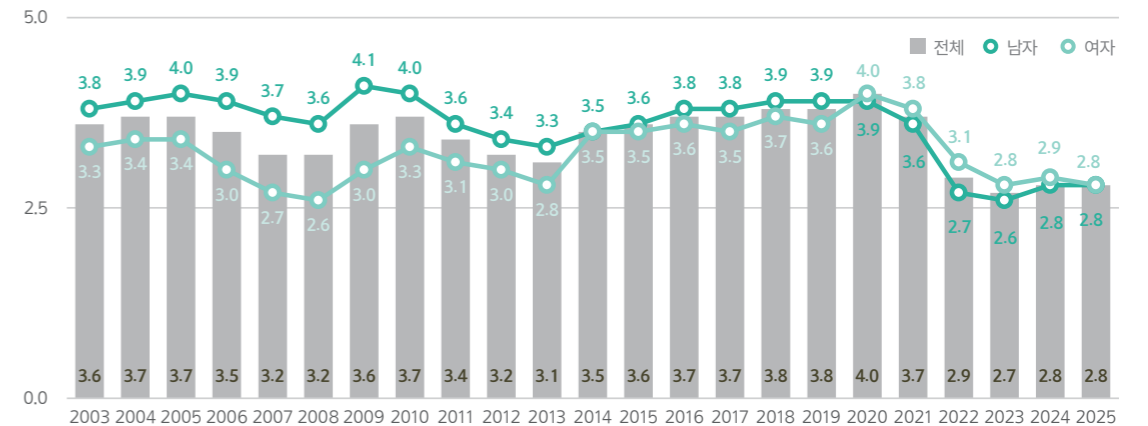
비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로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

### 2024년, 2025년 연령별 실업률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실업자 수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 2003~2025년 실업률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실업자 수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 고용률

Employment rate

**지표 정의**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측정 방법** (15세 이상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 2025년 62.9%, 전년 대비 0.2%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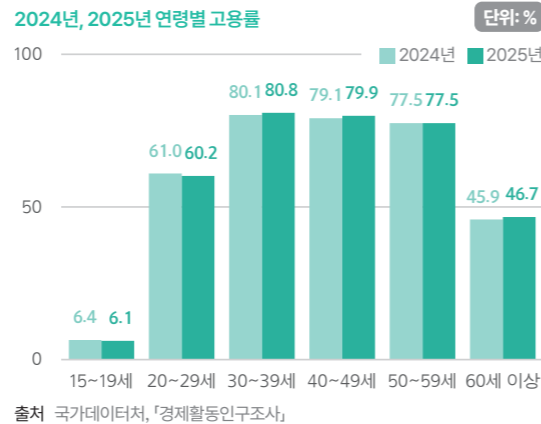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로서 노동시장의 현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이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 지표로 주목하였으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최근에는 고용률을 노동시장의 현황을 드러내는 핵심지표로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2025년 고용률은 62.9%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2002년 이후 대부분 59~60%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14년 이후 60%에서 소폭 증가 추세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률이 60.1%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소폭으로 회복하였고, 2023년 62.6%, 2025년 62.9%로 기존 추세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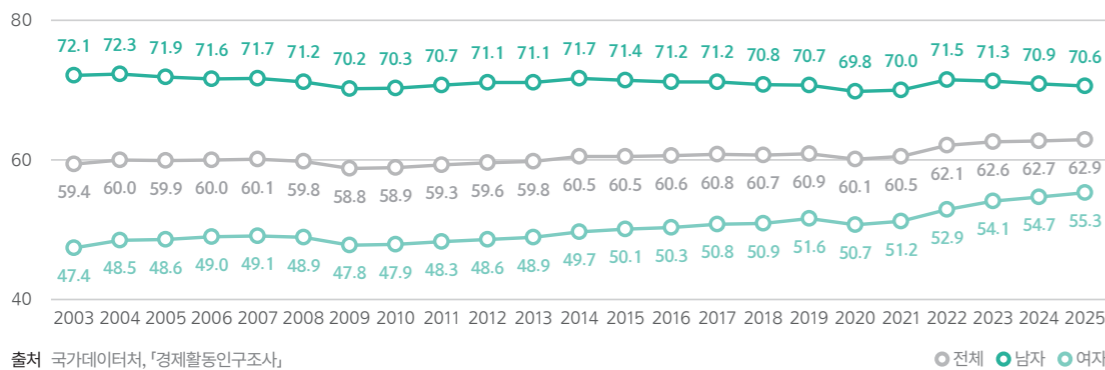
고용률은 남자가 70.6%로 여자(55.3%)보다 15.3%p 높으나, 남자는 2025년에 전년 대비 0.3%p 감소한 반면 여자 고용률은 0.6%p 증가하였다. 여자 고용률은 2002년 48.5%에서 2020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별 차이는 2003년 24.7%p에서 감소 추세이다.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7%p로 크게 증가하였다.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30대가 80.8%, 40대 79.9%로 30~40대에서 가장 높고, 50대는 77.5%이다. 그 다음으로 20대(60.2%), 60세 이상(46.7%) 순으로 나타난다. 2024년과 비교할 때 20대 이하에서 감소하였으며, 30대 이상에서는 50대를 제외하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용률(15세 이상)은 2024년 62.7%로 OECD 국가 평균(58.0%)보다 높은 수준이다. 나라별로 보면 아이슬란드가 73.5%로 고용률이 가장 높고, 그리스, 이탈리아, 튀르키예는 50% 미만으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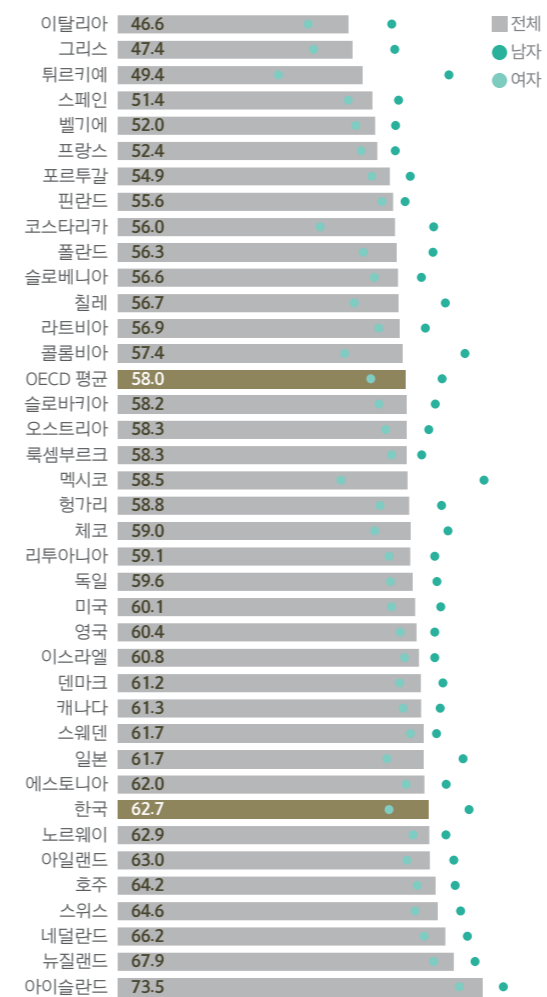
## 2003~2025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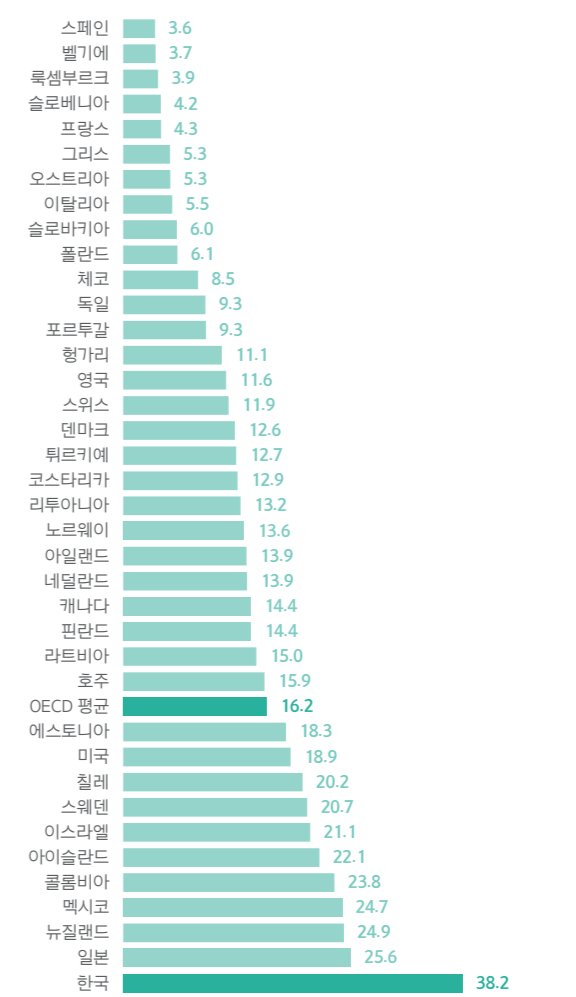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남자는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수준인 반면, 여자는 OECD 주요 국가들보다 낮은 편으로 OECD 여자 고용률 평균(51.0%)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성별 고용률 차이가 16.2%p로 OECD 평균(14.4%p)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성별 차이가 큰 편이다. 일본도 성별 고용률 차이가 15.4%p로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보다는 낮고, 고용률이 상위권인 국가들 뿐 아니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의 많

은 OECD 국가들은 성별 고용률 차이가 10%p 미만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4년 38.2%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아 OECD 평균(16.2%)의 두 배 이상이다.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고용률이 30%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평균수명이 긴 일본도 65세 이상 고용률은 25.6%로 우리나라보다 낮고, 15세 이상 고용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은 15% 미만이다.

## 2024년 OECD 국가의 고용률



## 2024년 OECD 국가의 65세 이상 고용률



출처 OECD, Labour Force Statistics(2026년 1월 기준)

주 15세 이상이며, 코스타리카의 전체 고용률은 15~74세 기준임.

출처 OECD, Labour Force Statistics(2026년 1월 기준)

# 월평균 임금

Average monthly wage

**지표 정의** 임금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을 실질 금액으로 환산한 값  
**측정 방법** 상용 및 임시·일용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세금공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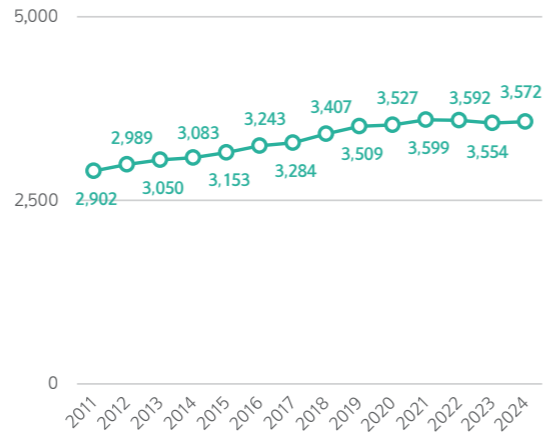
## 2024년 357만 2천 원, 전년 대비 1만 8천 원 증가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월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임금의 총액으로 임금총액은 근로시간이 많고 적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월평균 임금은 근로시간을 고려한 임금수준의 정확한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실질 금액)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였으나 최근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월평균 임금(실질 금액)은 2022년 359만 2천 원에서 2023년 355만 4천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35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8천 원 증가하였다. 물가상승이 반영되어 실질 금액이 2022~2023년에 소폭 감소했던 것과 다르게 명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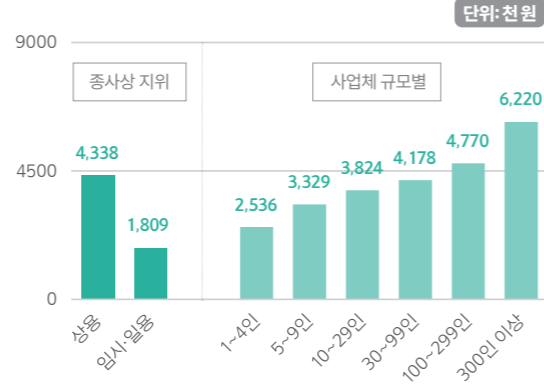
상용 근로자와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명목 금액)을 비교해보면 2024년 상용 근로자는 433만 8천 원이고, 임시·일용 근로자는 180만 9천 원으로 상용 근로자 대비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1.7% 정도이다. 상용과 임시·일용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2011년 이후로 40% 전후였으나, 2020년 44.0%로 격차가 감소하였다가 최근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1인당 월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나 1~4인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53만 6천 원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22만 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00~299인 사업체(477만 원)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2011~2024년 월평균임금(실질 금액) 단위: 천원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주 ①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를 적용하여 실질화한 금액임.  
 ②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월평균 금액임.

2024년 종사상지위 및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임금(명목 금액) 단위: 천원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월평균 금액임.

# 저임금근로자 비율

Proportion of low-paid workers

**지표 정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측정 방법**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 2024년 16.1%, 전년 대비 0.1%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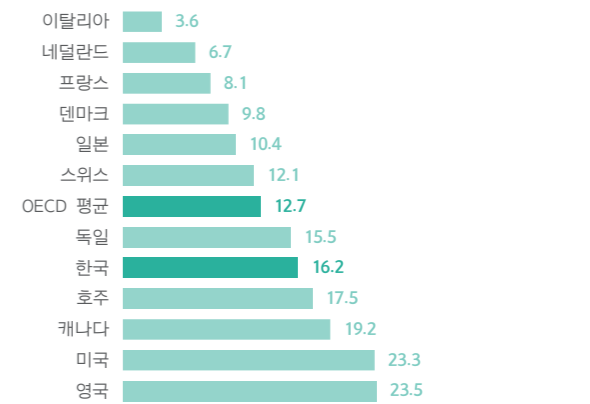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저임금으로 본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면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커진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01년 24.2%에서 2015년 23.5%로 지난 15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8년에는 19.0%, 2021년에는 15.6%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2년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6.9%로 전년 대비 1.3%p 증가하여 2013년 이후의 감소 추세가 정체되었다. 2024년에는 16.1%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으나 2021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아 2024년 남자는 11.1%인 반면, 여자는 23.8%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여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2002년 45.1%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남녀 간 차이는 2002년 29.7%p에서 2024년 12.7%p로 감소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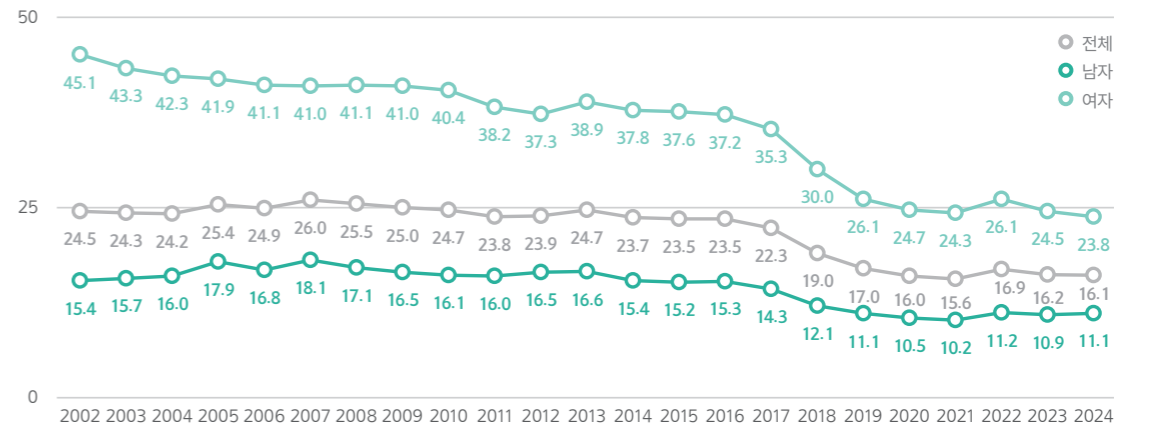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한국은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일본(10.4%) 및 OECD 평균(12.7%)보다 높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다.

2023년 OECD 주요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



출처 OECD, Earnings(2025년 12월 기준)  
 주 덴마크와 스위스는 2022년 자료임.

2002~2024년 저임금 근로자 비율 단위: %



출처 OECD, Earnings(2025년 12월 기준)

# 근로시간

Working hours

**지표 정의**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  
**측정 방법** 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 2024년 146.8시간, 전년 대비 10.8시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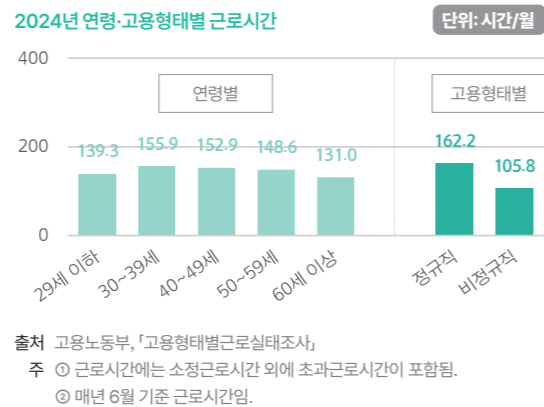
일과 삶의 균형 **work life balance**의 강조와 함께 최근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어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더 짧은 노동시간으로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여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임금근로자의 2024년 월간 총근로시간은 146.8시간으로 2023년 157.6시간에 비해 10.8시간 감소하였다. 근로시간은 2006년 193.4시간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173.5시간)에는 일시적으로 전년 대비 8.0시간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19년 152.4시간까지 감소하였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163~164시간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146.8시간으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근로시간을 기록하였다. 근로시간은 보통 조사 대상 기간의 근로일수에 영향을 받는다. 2020~2021년의 월력상 근로일수(6월)는 22일이었으며, 2022년 이후 20일 내외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19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근로일수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근로시간은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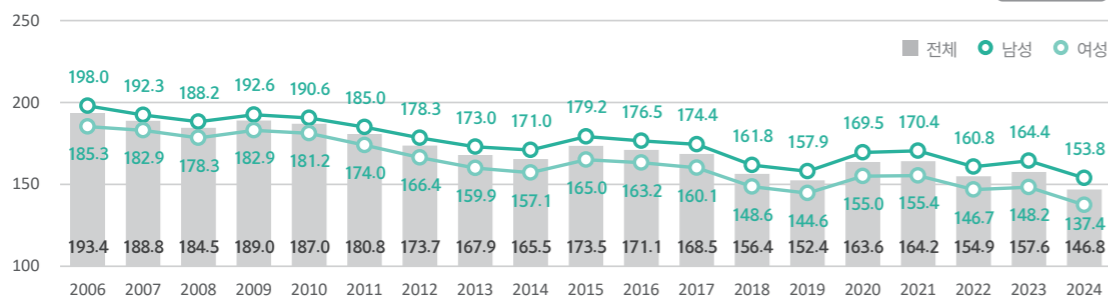
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성별로 남자는 153.8시간, 여자는 137.4시간으로 남자의 근로시간이 16.4시간 길다. 연령별로는 3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2024년 3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55.9시간인 반면,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모든 연령에서 2023년에 비해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2024년 162.2시간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5.8시간으로 차이가 크다.



## 2006~2024년 근로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① 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시간이 포함됨.  
 ② 매년 6월 기준 근로시간임.

# 일자리 만족도

Job satisfaction

**지표 정의** 임금근로자 중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일자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 2025년 38.3%, 2023년보다 3.2%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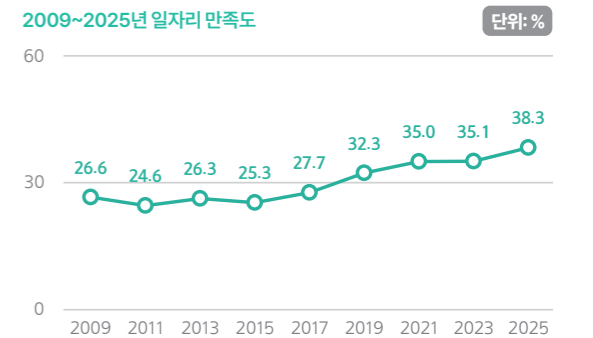
월평균임금, 근로시간 등이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보여준다면, 일자리 만족도는 일자리에 대한 개인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이다.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먼저 측정된 뒤에 전반적인 만족도를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근로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는 핵심지표이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로 파악한 일자리 만족도는 2025년 38.3%로 2023년보다 3.2%p 증가하여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09년 26.6%에서 2017년 27.7%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해오다 최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2025년에는 남자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38.1%, 여자 근로자는 38.5%로 여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해서 남자와 여자 둘 다 만족도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만족도가 32.8%로 가장 낮다. 20대 이하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41.0%로 가장 높으나, 전체적으로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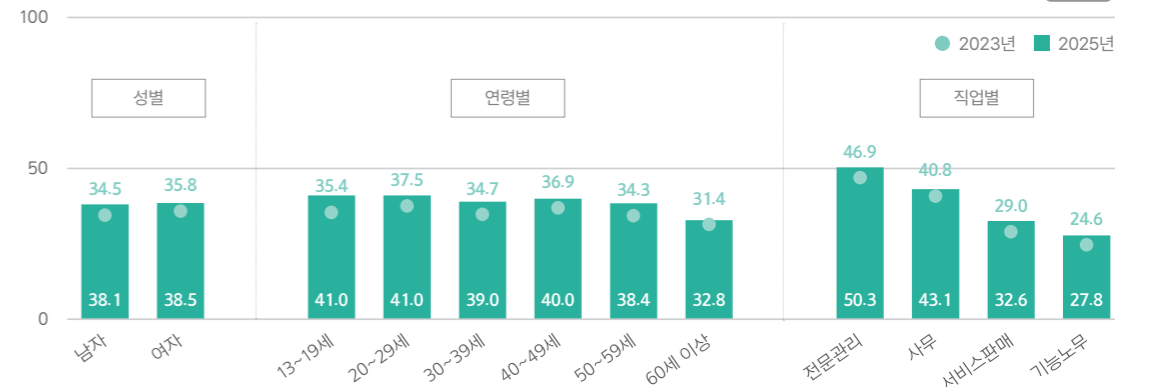
비슷한 수준이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관리직에서는 50.3%로 가장 높고, 사무직도 43.1%로 높은 편이다. 반면, 서비스 판매직과 기능노무직의 만족도는 각각 32.6%, 27.8%로 낮게 나타나 직종별로 차이가 크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①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②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함.

## 2023년, 2025년 성·연령·직업별 일자리 만족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함.

# 소득·소비·자산

Income·Consumption·W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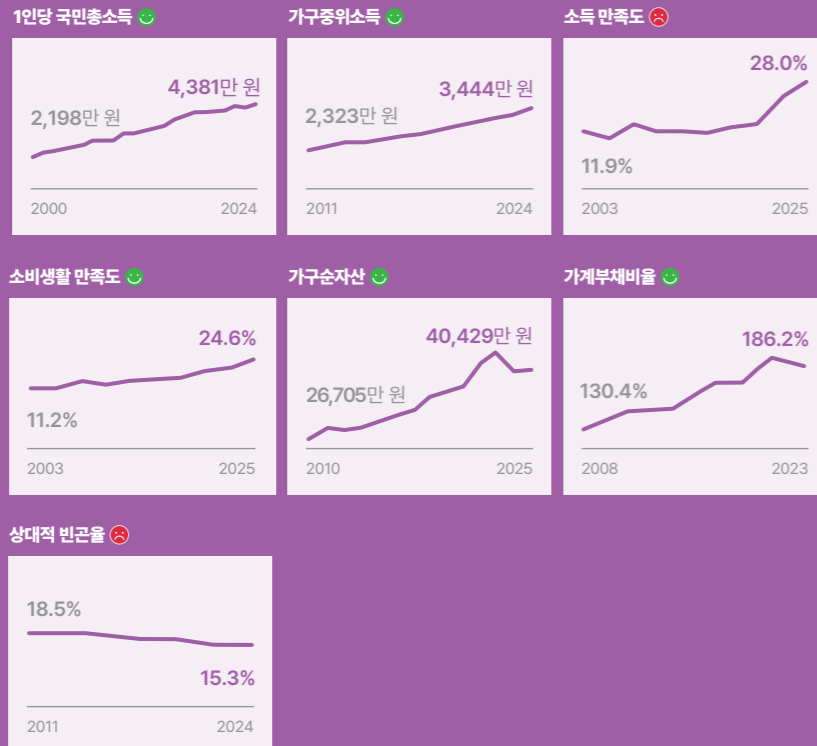


## 소득·소비·자산이란?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량은 물질적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기 보다는 소비라는 과정을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은 물질적 자원의 보유량에 대한 핵심지표로서 소비행위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자산축적의 원천이 된다. 소득분배는 소득이 어떻게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전체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 최근 추세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 지표는 5개, 악화 지표는 2개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말 기준으로 개선 지표가 6개였고 악화된 지표가 없었던 것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다소 악화되었다. 기존에 악화 추세를 보였던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순자산은 2023년부터 계속 개선되는 추세이다. 가구중위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는 계속 개선되었으나, 소득 만족도는 전기 대비 악화되었다. 가계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악화추세를 보이는 지표였으나 최근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최근 정체가 있다가 2024년에 전년 대비 악화되었다.



# 1인당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지표 정의**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인구수로 나눈 것

**측정 방법** 국민총소득(소비자물가지수 적용) ÷ 총인구

## 2024년 4,381만 원, 전년 대비 3.5% 증가

국민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반면, 국민총소득GNI은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으로서 한 국가 국민의 소비와 후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웰빙의 경제적 기초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되는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국민의 소득수준을 시계열로 비교하는 데 활용되는 주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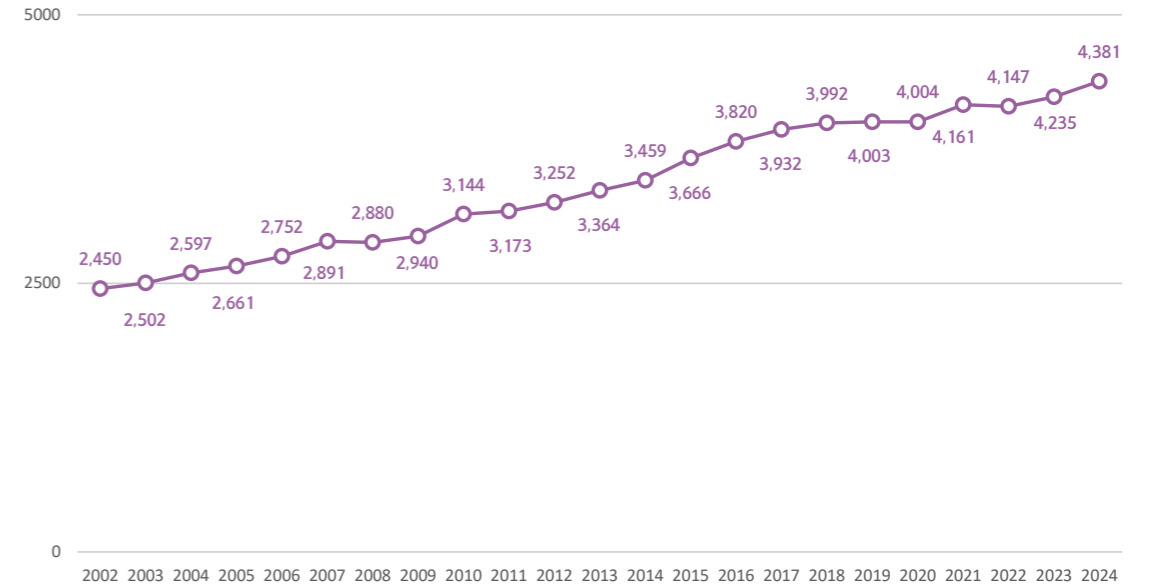
물가 상승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실질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4,381만 원으로 2023년

4,235만 원에 비해 약 146만 원 정도 증가한 3.5%의 증가율을 보였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2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증가율은 매년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고, 2011년 이후 2~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7년 이후 증가율이 낮아져서 2020년에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2022년에는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다. 2019~2020년에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이 정체되었고, 2022년에는 실질 금액이 감소하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증가 추세이다.

2002~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 금액)

단위: 만 원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가데이터처, 「장래추계인구(2022년 기준)」

주 ① 실질 국민총소득은 연평균 물가지수(2020=100) 기준임.

② 명목 국민총소득은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함.

③ 2020년 기준년 개편 국민계정 자료임.

④ 2023년, 2024년은 잠정치임.

# 가구중위소득

Equivalised median income

**지표 정의**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라 배분한 금액의 중위소득

**측정 방법** 표본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하여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실질 금액(소비자물가지수 적용)



## 2024년 3,444만 원, 전년 대비 77만 원 증가

가구중위소득은 가구 단위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위가구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의 증감폭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니계수, 빈곤층 비율, 중위소득계층 비율 등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이다. 가구마다 가구원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 간 소득수준을 적절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값을 가구 균등화 소득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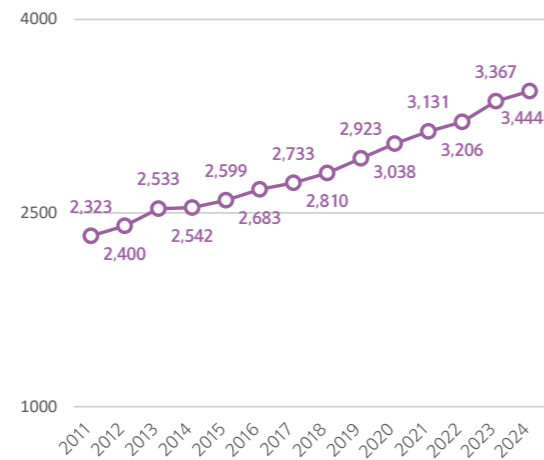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기준)를 적용하여 실질화한 전국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은 2024년 3,444만 원으로 2023년의 3,367만 원보다 77만 원 증가했다. 2011년 2,323만 원에서 2024년 3,444만 원으로 48.3% 증가하였다. 실질 가구중위소득은 매년 증가율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1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이다.

가구중위소득을 근로연령(18~65세)과 은퇴연령(66세 이상)으로 구분해 보면, 근로연령의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은 3,762만 원이고, 은퇴연령의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은 2,190만 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근로연령의 가구중위소득은 2011년 2,530만 원에서 2024년 3,762만 원으로 48.7% 증가하였으나, 은퇴연령의 가구중위소득은 같은 기간 1,216만 원에서 2,190만 원으로 80.0% 증가하였다. 2011년 근로연령가구와 은퇴연령가구의 가구중위소득은 두 배 가량 차이를 보였지만, 최근 그 차이가 소폭으로 감소하여 2024년 근로연령과 은퇴연령의 가구중위소득 차이는 1.7배 정도이다.

### 중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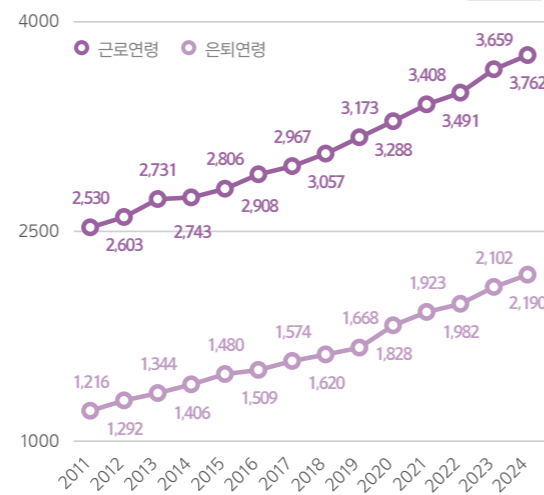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제일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

2011~2024년 가구중위소득(실질 금액) 단위: 만 원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주 ① 균등화 연소득(처분가능소득)임.  
②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 금액임(2020년=100).

2011~2024년 연령계층별 가구중위소득(실질 금액) 단위: 만 원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주 ① 균등화 연소득(처분가능소득)임.  
②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 금액임(2020년=100).  
③ 근로연령은 18~65세, 은퇴연령은 66세 이상임.

# 소득 만족도

Income satisfaction

**지표 정의**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본인의 소득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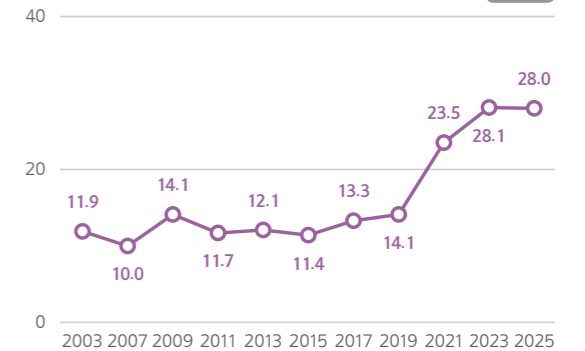
## 2025년 28.0%, 2023년보다 0.1%p 감소

소득 만족도는 객관적인 소득수준과 별도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개인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소득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만족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소득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로 측정된 소득 만족도, 즉 자신의 소득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25년 기준 28.0%로 국민 10명 중 3명 가량이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고 있다. 소득 만족도는 2003년 11.9%에서 2019년까지 10~14%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21년 23.5%로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2023년 대비 0.1%p 감소하면서 정체되어 있다. 하지만 소득에 불만족하는 비율은 2023년 39.8%에서 2025년 37.6%로 2.2%p 감소하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32.0%에서 2025년 34.4%로 2.4%p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소득 만족도는 남자는 29.1%, 여자는 26.6%로 남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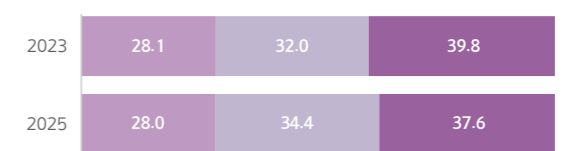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2025년 40대의 소득 만족도가 31.2%로 높고, 60세 이상이 23.1%로 가장 낮다. 소득 만족도가 가장 높은 40대와 가장 낮은 연령인 60세 이상의 차이는 8.1%p 정도이다. 2023년 60세 이상의 소득 만족도는 25.6%로 다른 연령대와의 차이가 최대 5%p인 것과 비교하면 연령 간 차이가 더 벌어졌다. 2023년 대비 30~50대의 소득 만족도는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의 소득 만족도는 2.5%p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3~2025년 소득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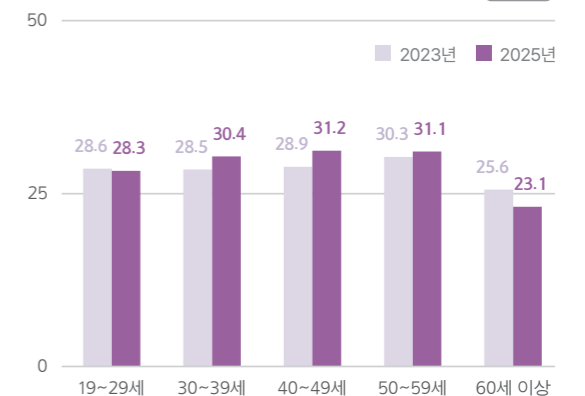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3년, 2025년 소득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3년, 2025년 연령별 소득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소비생활 만족도

Consumption satisfaction

**지표 정의**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 만족 정도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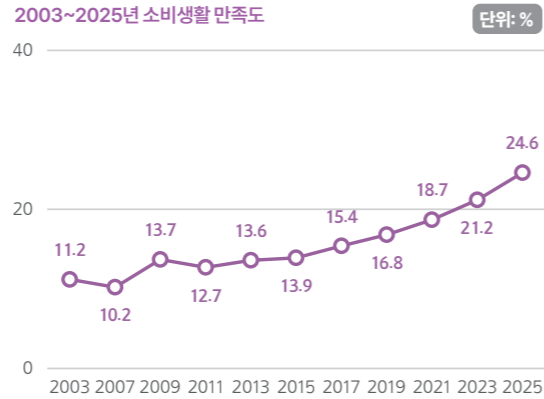
## 2025년 24.6%, 2023년보다 3.4%p 증가

소비생활 만족도는 소비지출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태도를 보여준다. 객관적인 소비수준과는 별도로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인지된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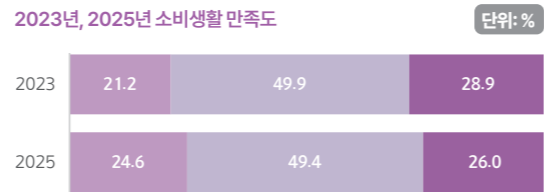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로 측정한 소비생활 만족도, 즉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25년 24.6%로 높은 편은 아니나 2023년 21.2%보다 3.4%p 증가하였다. 소비생활 만족도는 2003년 11.2%에서 2015년 13.9%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2019년까지는 소득 만족도보다 소비생활 만족도가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 소득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생활 만족도가 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소비생활 만족도의 경우 중립적인 응답인 '보통'의 비율이 2025년 49.4%로 높은 편이다(소득 만족도의 경우 34.4%). 따라서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은 26.0%로 소득에 대한 불만족 비율(37.6%)보다 11.6%p 낮다. 소비생활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2023년 28.9%에서 2.9%p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25.1%로 여자(24.0%)보다 약간 높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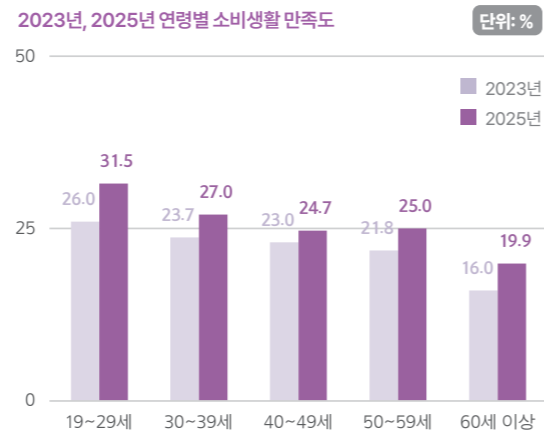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소비생활 만족도는 19~29세의 만족도가 31.5%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소득 만족도와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40~50대의 경우 약 25% 수준이고, 30~39세가 27.0%로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60세 이상에서는 19.9%로 낮아진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에서 증가했지만 19~29세에서 5.5%p 증가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증가폭이 크다. 한편, 40~49세는 1.7%p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은 편이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가구순자산

Household net wealth

**지표 정의**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에서 평균 부채를 차감한 금액

**측정 방법** 전체 가구평균 순자산(소비자물가지수 적용한 실질 금액) =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



## 2025년 4억 429만 원, 전년 대비 1,110만 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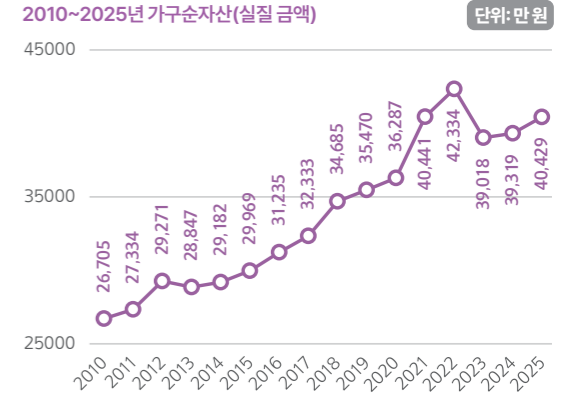
가구순자산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것으로 웰빙의 지속에 직접적인 기반이 되는 축적된 재산의 규모를 보여준다. 가구 재산의 증감과 그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국민의 재정상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가구의 재정상태는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도 파악할 수 있다.

2025년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가구순자산(실질 금액)은 4억 429만 원으로 2024년 3억 9,319만 원에 비해 1,110만 원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의 실질 순자산은 2010년 2억 6,705만 원에서 2013~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에 전년 대비 3,316만 원 감소하였다. 2024년과 2025년에 연달아 증가하였지만, 실질 금액으로는 2022년의 4억 2,334만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소득 5분위별로 순자산액(명목 금액)을 2024년과 비교해보면, 1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분위에서 순자산이 증가했다. 5분위에서 전년 대비 8,113만 원이 증가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크게 증가한 한편, 1분위에서는 전년 대비 -730만 원으로 4.9% 감소하여 소득분위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2025년 순자산액(명목 금액)은 50대가 5억 5,161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60세 이상이 5억 3,591만 원 정도로 50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산액은 50대가 6억 6,205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부채는 60세 이상에서 6,504만 원으로 가장 적고 40대에서 1억 4,325만 원으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025년 가구 순자산액이 5억 8,832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3억 5,720만 원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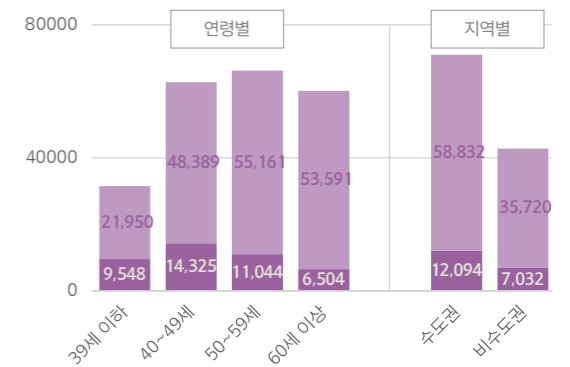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주 ① 실질 가구순자산은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함.  
② 2017년부터 개인 및 직장에서 받은 모든 대출은 신용대출에 포함됨.

## 2024년, 2025년 소득분위별 순자산액(명목 금액) (단위: 만 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24	14,974	23,742	33,722	48,767	103,252
2025	14,244	24,529	34,456	51,066	111,365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 2025년 가구주 연령·지역별 가구순자산(명목 금액) (단위: 만 원)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자산, 부채, 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 말 기준 자료임.

# 가계부채비율

Household debt ratio

**지표 정의**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총액의 비율  
**측정 방법** (가구부채총액 ÷ 가구순가처분소득)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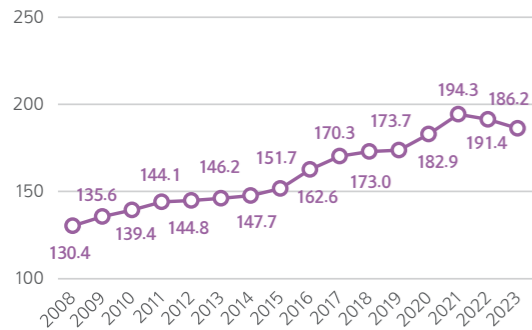
## 2023년 186.2%, 전년 대비 5.2%p 감소

가계부채는 주택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해당 가구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게 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높이고 이로 인해 가구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소비지출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0.4%에서 2023년 186.2%로 증가하였다. 이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부채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지출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년 3~4%p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전년 대비 10.8%p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1%p, 2021년에는 11.5%p 증가하여 증가폭이 컸으나, 최근 감소세를 보여 2022년에는 191.4%로 3.0%p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도 5.2%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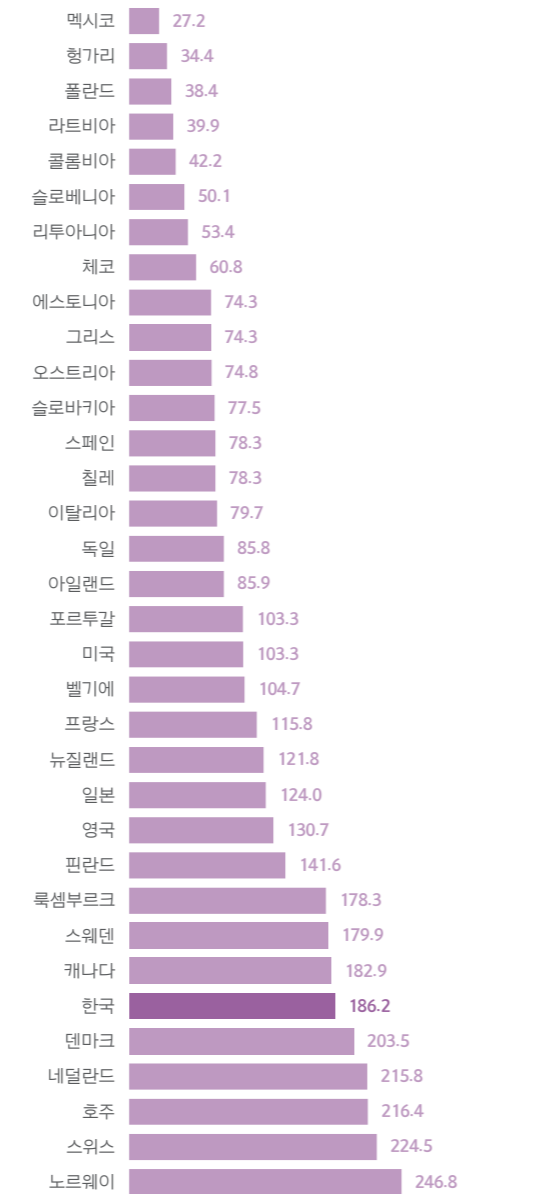
2024년 기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103.3%), 일본(124.0%), 프랑스(115.8%), 영국(130.7%) 등은 150%를 넘지 않는다. 반면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국가의 가계부채 비율은 20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2008~2023년 가계부채 비율 단위: %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2026년 1월 기준)

2024년 OECD 국가의 가계부채 비율 단위: %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2026년 1월 기준)  
 주 노르웨이는 2022년,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스위스, 일본, 칠레, 콜롬비아, 한국, 호주는 2023년 자료임.

#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지표 정의**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가처분 중위소득의 50% 이하 인구 ÷ 전체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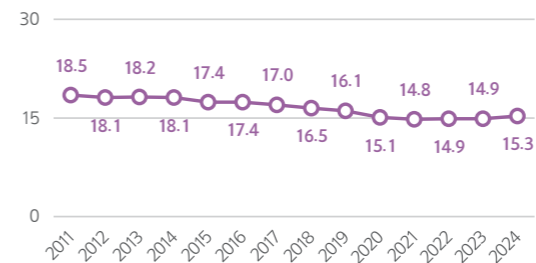
## 2024년 15.3%, 전년 대비 0.4%p 증가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소득5분위 배율이나 상대적 빈곤율도 자주 사용된다. 지니계수가 전체 가구의 소득계층 간 격차를 보여준다면, 상대적 빈곤율은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하며, 이는 곧 우리 사회의 빈곤가구 규모를 보여준다.

상대적 빈곤율은 2024년 15.3%로 2023년 14.9%에서 0.4%p 증가하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의 18.5%에서 감소 추세에서 2021~2023년 사이 15% 미만으로 정체되어 있었으나 최근 소폭 증가하였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전체 인구 상대적 빈곤율(14.9%)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수준으로 일본(15.4%)에 비해서는 낮지만 호주(12.6%), 영국(12.6%), 독일(11.6%), 프랑스(8.7%) 등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월등히 높은 편이다. 30%를 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라트비아(34.3%), 뉴질랜드(33.7%)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인구와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격차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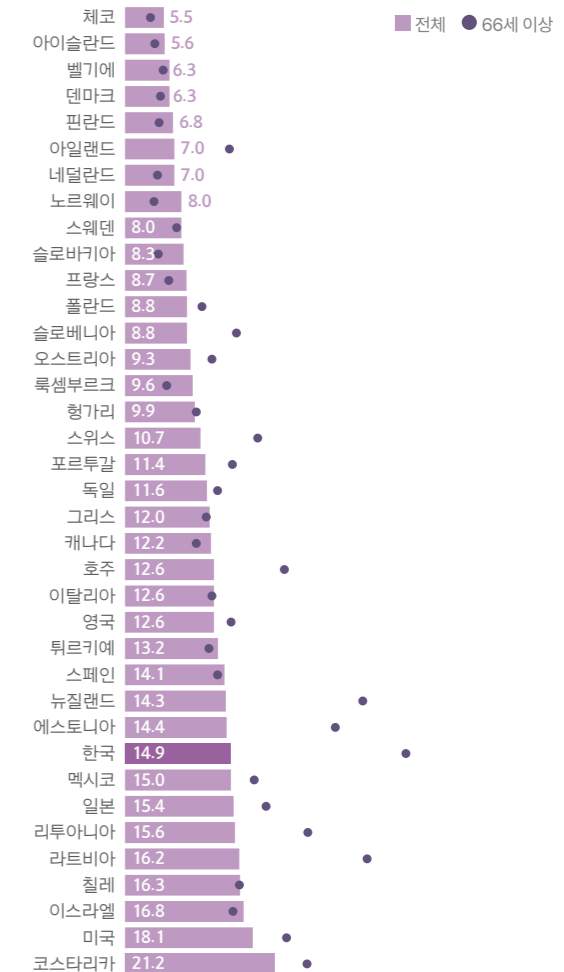
2011~2024년 상대적 빈곤율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①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② 2021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 활용하여 작성하므로 소득 관련 항목은 2021년 이전과 시계열 비교시 유의가 필요함.

비아(34.3%), 뉴질랜드(33.7%)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인구와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격차가 크다.

2023년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단위: %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2026년 1월 기준)  
 주 ①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② 아이슬란드는 2019년, 호주는 2020년, 일본은 2021년, 칠레, 덴마크,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는 2022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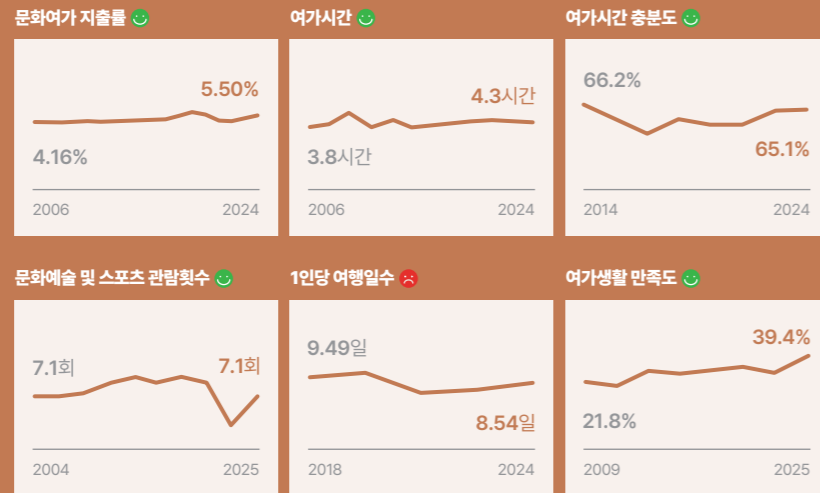


## 여가란?

노동시간과 대비해서 여가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스포츠와 같은 신체적 활동이나 문화예술과 같은 정신적 활동으로 잘 활용하면 일이나 그 밖의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스포츠나 문화예술 활동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과의 결속을 다지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예술은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는 작용을 하며, 또한 문화예술 활동은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 최근 추세

여가 영역의 6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 지표는 5개, 악화 지표는 1개로 나타났다. 여가 영역 지표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영역으로 2020년에 급격한 악화를 보인 이후 대부분 회복하는 추세이다. 다만 여가시간은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코로나19에도 지속적인 증가 이후 2022년과 2023년에 감소했었지만 2024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여가시간 충분도는 2020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 1인당 여행일수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는 코로나19 시기 급격한 악화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여가 지출률과 여가생활 만족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 문화여가 지출률

Ratio of expenditure on leisure

지표 정의: 가계 지출 중 문화여가 지출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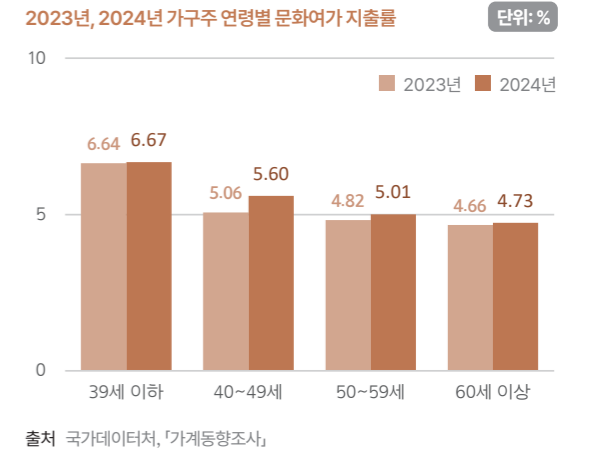
측정 방법: (가구 월평균 오락문화비 및 정보 관련 지출 ÷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 × 100

### 2024년 5.50%, 전년 대비 0.23%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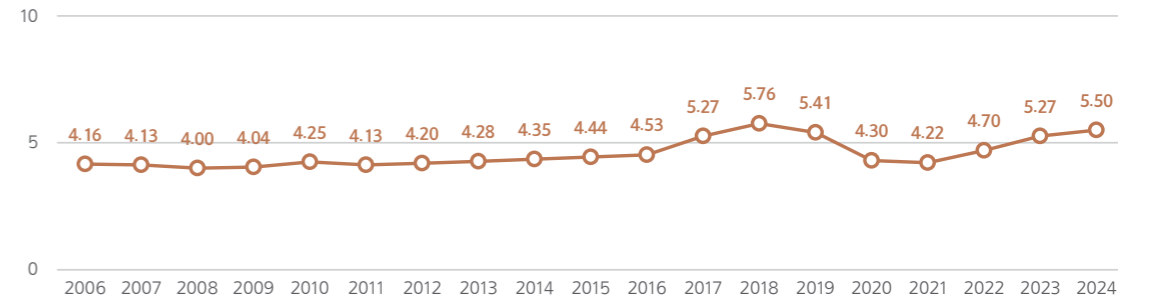
가구의 문화여가 지출은 여가자원의 투입 수준을 보여주며, 그 총량은 문화여가시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가구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지출을 가계지출에 대비하여 파악함으로써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자원의 수준을 제시한다. 또한 문화여가비는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사용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표이다.

2024년 가구의 문화여가 지출률은 5.50%로 전체 가계 지출 중 문화여가 지출에 해당되는 오락문화비(177,660원)와 정보통신 중 방송 및 시청각 콘텐츠 이용 등 정보 관련 지출(38,510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문화여가 지출률은 2006년 4.16%에서 2018년 5.76%까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시기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출 금액 역시 2019년 18만 원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3만 9천 원으로 감소했으나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오락문화비는 2019년 14만 5천 원에서 2020년 9만 6천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정보 관련 지출은 같은 시기 3만 6천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문화여가 지출률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여가 지출률이 높다.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구에서는 문화여가 지출률이 6.67%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인 가구에서는 4.73%로 낮게 나타나 젊은 연령층에서 가계지출 대비 문화여가 지출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문화여가 지출률이 증가하였다.



### 2006~2024년 문화여가 지출률



주 ① 1인 이상 전국가구 기준으로 2016년까지는 농림어가 제외, 2017년부터 농림어가 포함함.

② 명목 금액 기준임.

③ 2017년, 2019년 두 차례 조사 개편으로 조사방법, 표본설계 등이 달라져 시계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여가시간

Leisure time

**지표 정의** 평일과 휴일을 합한 일평균 여가시간

**측정 방법** {(평일 여가시간 × 5일) + (휴일 여가시간 × 2일)} ÷ 7일



## 2024년 4.3시간, 2023년보다 0.2시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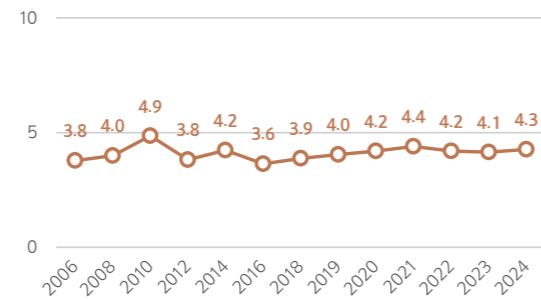
여가시간이란 일, 가사, 수업 등 의무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가시간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하는 기초 지표이자 여가활동의 기반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적절한 수준의 여가시간은 일 중심의 사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며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여가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여가시간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생활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을 집계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2024년 평일 여가시간은 3.7시간이고 휴일 여가시간은 5.7시간이다. 이 둘을 합한 요일평균 여가시간은 4.3시간이다. 여가시간은 2006년 3.8시간에서 2010년 4.9시간으로 증가하며 2018년까지 4시간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꾸준히 4시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가시간은 2024년 남자와 여자 모두 4.3시간으로 동일하다. 요일별로 보면 평일에는 여자가 3.8시간으로 남자(3.6시간)보다 0.2시간 더 길고 휴일에는 남자가 5.9시간으로 여자(5.5시간)보다 0.4시간 더 길어 요일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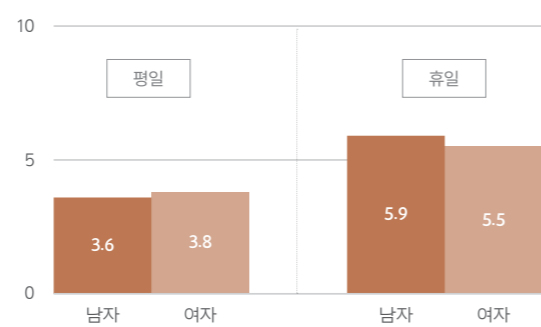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60대는 4.4시간, 70세 이상은 5.5시간이다. 50대 이하에서는 20대가 4.3시간으로 여가시간이 긴 편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모든 연령에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전년과 동일하거나 0.1~0.2시간 증감하였다.

2006~2024년 여가시간 단위: 시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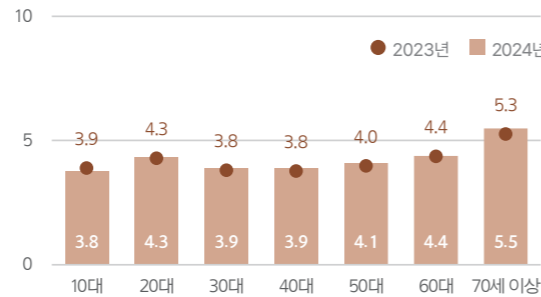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2008년까지는 10세 이상, 2010년부터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4년 성별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단위: 시간/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3년, 2024년 연령별 여가시간 단위: 시간/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여가시간 충분도

Sufficiency of leisure time

**지표 정의**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지난 1년 동안 평일과 휴일(휴가, 연휴 포함)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해 '매우 부족했다'의 1점으로부터 '매우 충분했다'의 7점까지 중 5~7점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 휴일 여가시간 충분도)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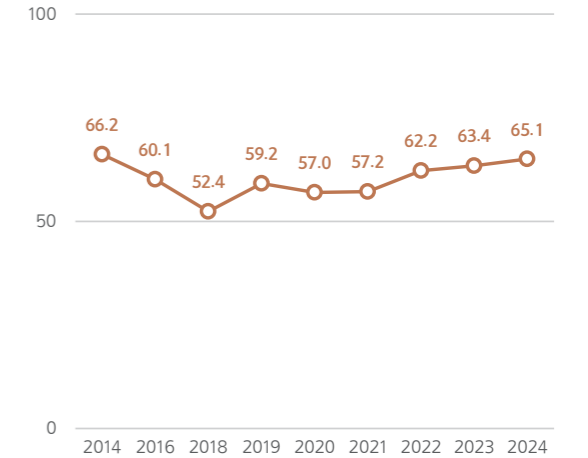
## 2024년 65.1%, 2023년보다 1.7%p 증가

여가시간은 사람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 여가시간이 많아지면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객관적인 여가시간의 양과는 별개로 각자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이 충분한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여가시간이 충분한 정도는 개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시간적 자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일상에서 생활시간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24년 65.1%로 2023년 63.4%에 비해 1.7%p 증가하였다. 2014년 66.2%, 2016년 60.1%에 이어 감소 추세로 60% 미만이었으나 2022년부터 계속 60% 이상으로 증가 추세이다. 객관적인 여가시간은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여가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는 간극이 존재한다. 다만 평일과 휴일을 비교하면 여가시간과 동일하게 평일(58.3%)보다는 휴일(71.8%)에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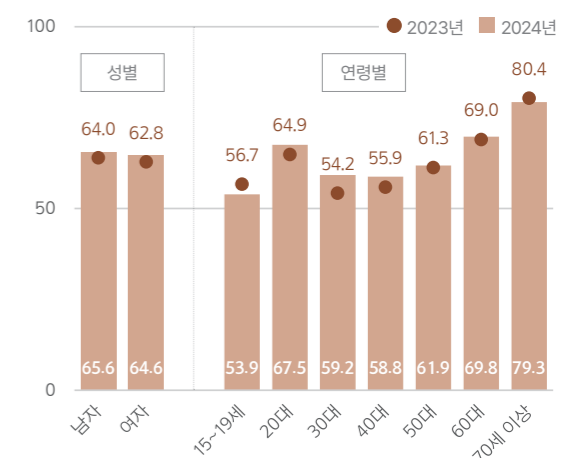
성별로는 남자가 65.6%, 여자 64.6%로 남자가 여자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여가시간의 충분 정도가 다른데 15~19세와 30~40대에서 낮은 편이고, 2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인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24년에는 15~19세의 여가시간 충분 정도가 가장 낮아 53.9%이며 그 다음은 40대로 58.8%이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79.3%, 60대는 69.8%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가 크다. 이러한 여가시간 충족 정도에 따른 연령별 차이는 객관적인 여가시간에서의 연령별 차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준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5~19세의 감소가 2.8%p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2014~2024년 여가시간 충분도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① 여가시간 충분도는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충분도의 평균임.  
②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3년, 2024년 성·연령별 여가시간 충분도 단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주 여가시간 충분도는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충분도의 평균임.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Participation in culture, art and sport event

**지표 정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자의 1인 평균 관람횟수

**측정 방법** 지난 1년 동안 음악회·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문학행사 등을 관람한 사람들의 평균 관람횟수



## 2025년 7.1회, 2023년보다 0.1회 증가

여가활동 중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의 참여는 다양한 경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웰빙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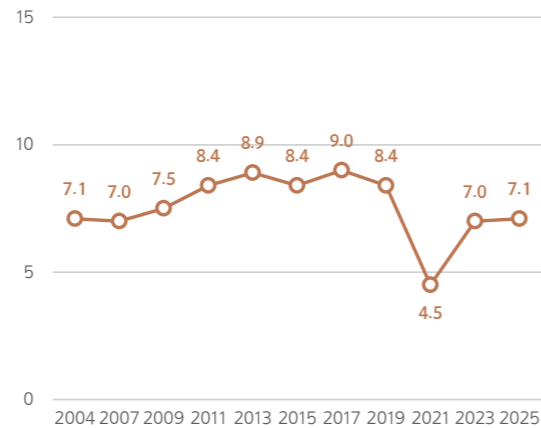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는 2004년(관람률 51.0%, 평균 관람횟수 7.1회) 이후 2013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관람률과 관람횟수 모두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의 지난 1년간 예술공연, 영화, 박물관 및 미술관, 스포츠 등을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4.1%이고, 이들의 관람횟수는 1인 평균 4.5회로 2019년과 비교해보면(2019년 66.2%, 8.4회) 관람률은 절반 이상, 관람횟수는 절반가량 감소하였다. 2025년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57.7%, 1인 평균 관람횟수는 7.1회로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람률과 관람횟수 모두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남자는 7.0회, 여자는 7.2회로 여자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 관람횟수가 약간 높았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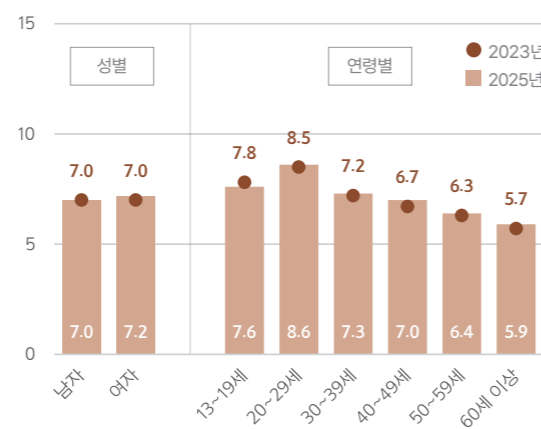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20대의 관람횟수가 8.6회로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60세 이상에서는 5.9회이다. 2023년 대비 전반적으로 관람횟수가 증가하였지만 13~19세는 2023년 7.8회에서 2025년 7.6회로 감소하였다.

2004~2025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단위: 회]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① 관람횟수는 지난 1년간 관람자의 1인 평균 관람횟수임.  
 ②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③ 2023년부터 「문학행사」가 추가됨.

2023년, 2025년 성·연령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단위: 회]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관람횟수는 지난 1년간 관람자의 1인 평균 관람횟수임.

# 1인당 여행일수

Travel days per person

**지표 정의** 1인당 연간 국내 관광여행일수

**측정 방법**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국내 관광여행(당일여행 포함) 일수



## 2024년 8.54일, 전년 대비 0.41일 감소

여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행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이며,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이기도 하다. 여행은 다른 여가활동들과 비교했을 때 비용과 시간이 모두 수반되는 적극적인 여가활동 중 하나이다. 1인당 여행일수를 통해 국민의 여가향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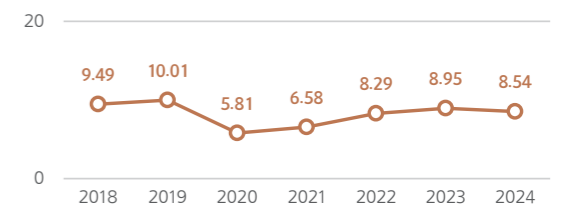
2024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국내 관광여행일수는 8.54일로 2023년 8.95일에서 0.41일 감소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및 이동에 크게 제한이 걸려 여행일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4년에 감소하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01일보다는 짧은 수준이다. 국내관광 여행 경험률은 2020년 75.5%에서 2024년 91.3%로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85.0%)보다 더 높고, 해외여행 경험률은 2024년 22.1%로 전년 대비 6.2%p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23.2%)만큼 회복했다. 국내 관광여행일수는 아직 코로나19 이전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경험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국내 관광여행일수는 30대에서 10.92일, 그 다음으로

40대가 10일 이상으로 많으며, 70세 이상에서 4.09일로 가장 적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6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여행일수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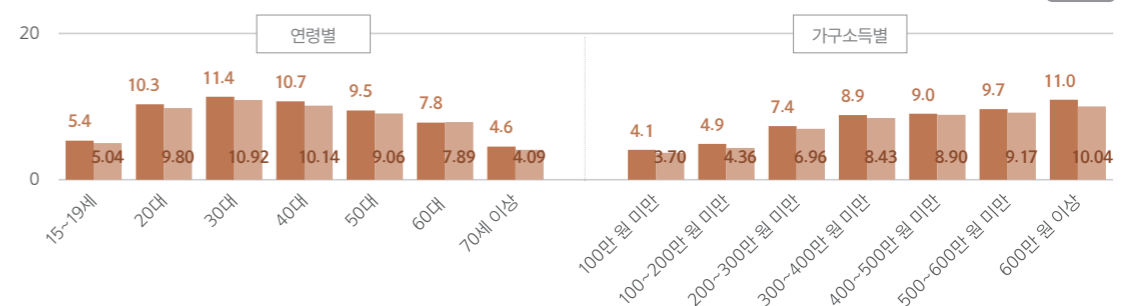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내 관광여행일수도 증가하여,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국내 관광여행일수는 10.04일이다. 특히 100만 원 미만에서는 3.70일, 100~200만 원 미만에서는 4.36일로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낮다. 2023년과 비교하면 모든 집단에서 여행일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6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2018~2024년 1인당 국내 관광여행일수 [단위: 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주 ① 국내관광여행은 행정구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 중 관광·자연감상 등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여행을 의미함.  
 ② 각 연도 12월 현재 15세 이상 인구수(장래인구추계, 2020년기준)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임.

2023년, 2024년 연령·가구소득별 국내 관광여행일수 [단위: 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주 ① 국내관광여행은 행정구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 중 관광·자연감상 등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여행을 의미함.  
 ② 각 연도 12월 현재 15세 이상 인구수(장래인구추계, 2020년기준)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임.

# 여가생활 만족도

Leisure satisfaction

**지표 정의** 현재의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 2025년 39.4%, 2023년보다 5.1%p 증가

여가생활 만족도는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 수준을 보여준다. 여가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연구 결과는 여가생활이 삶의 질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시사한다. 여가생활은 건강상태나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다양한 영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종합 지표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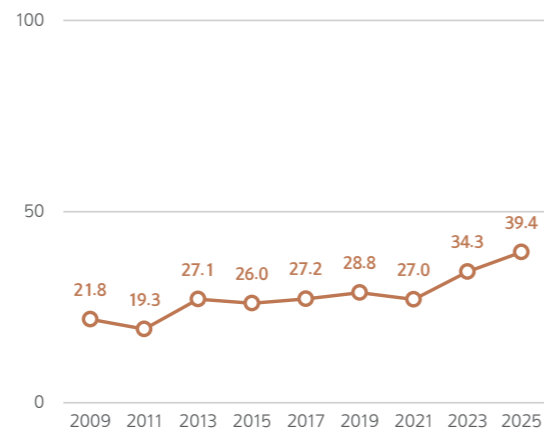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9년 21.8%에서 2013년 27.1%로 증가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가 영역의 다른 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2021년에도 여가생활 만족도는 27.0%로 2019년 대비 1.8%p 감소에 그쳤다. 2025년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39.4%로 2023년보다 5.1%p 증가하여,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남자(40.2%)가 여자(38.5%)보다 조금 더 높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 13~19세는 53.0%가 여가생활에 만족하는데 비해 60세 이상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30.1%에 불과하다.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령별 차이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의 지표 추세와도 거의 유사하다. 고령층이 여가시간은 다른 연령보다 매우 긴 편이지만, 실제로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관람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는 매우 적고, 여가활동 만족도 또한 매우 낮은 편이다.

2023년과 비교할 때 20세 이상의 연령에서 5%p 이상 여가생활 만족도가 증가한 반면, 여가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13~19세의 경우 2023년에 비해 2.7%p 증가하여 다른 연령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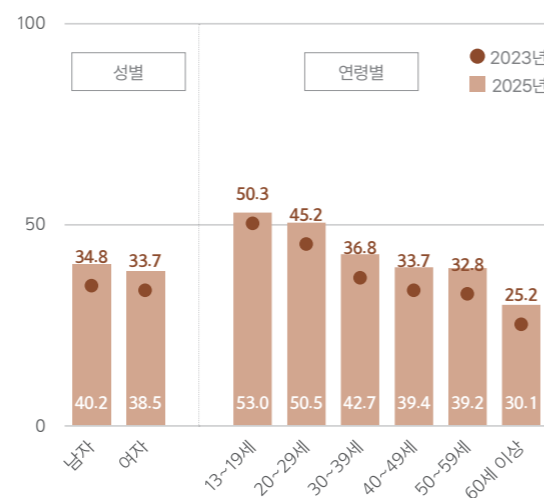
2009~2025년 여가생활 만족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3년, 2025년 성·연령별 여가생활 만족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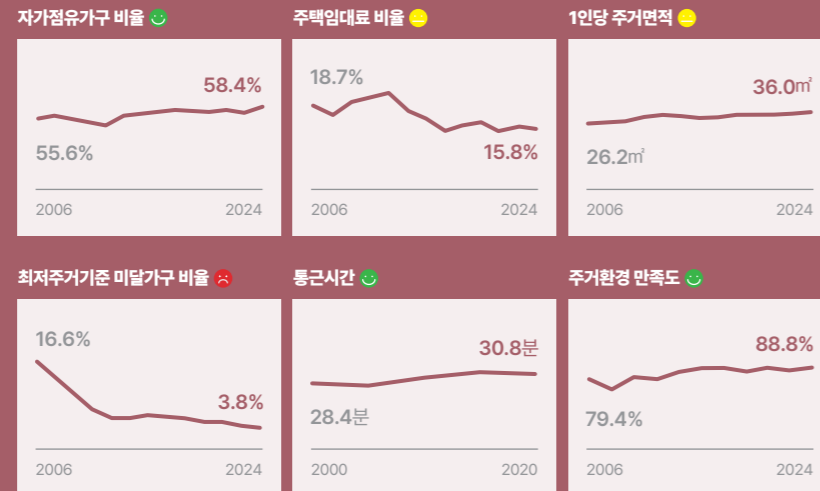


## 주거란?

거주하는 공간에서 향유하는 주거서비스를 의미하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득·소비·자산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주거서비스의 확보여부와 안정성 그리고 크기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 최근 추세

주거 영역에 포함되는 6개 지표 중 개선 지표는 3개, 악화 지표는 1개, 동일지표는 2개이다. 자가점유가구 비율은 2017년부터 58.0% 전후로 정체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소폭 개선되었다. 주택임대료 비율과 1인당 주거면적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23년까지 지속적인 개선 추세였으나 2024년에 소폭으로 악화되었다. 주거환경 만족도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최근 지속적인 개선 추세이다.



# 자가점유가구 비율

Home-ownership rate

**지표 정의** 전체 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조사대상가구 중 자가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

## 2024년 58.4%, 전년 대비 1.0%p 증가

주택공급의 꾸준한 확대로 주택보급률은 크게 늘어났지만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사는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주택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주택마련이 거주 의 개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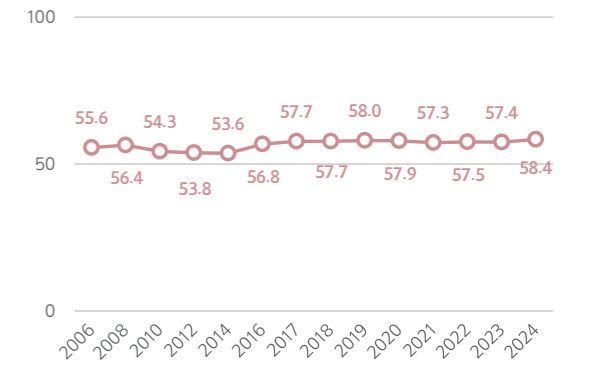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즉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2006년 55.6%에서 2014년 53.6%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2019년 58.0%까지 증가했다. 이후 정체된 흐름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58.4%로 전년보다 1.0%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2024년 서울 지역이 44.1%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대전 지역이 53.1%로 낮으며, 이외에도 경기, 제주, 세종 지역이 6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서울 지역은 낮은 편에 속하는 대전 지역보다도 9%p 가량의 차이를 보여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반면 전남 지역이 72.1%로 가장 높고, 경북 지역이 69.5%로 그 뒤를 이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자가점유가구 비율이 증가했으나, 서울 지역은 0.1%p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부분 1.0%p 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전남 지역은 2023년보다 1.6%p 증가하여 증가폭이 다른 지역보다 큰 편이다.

2006~2024년 자가점유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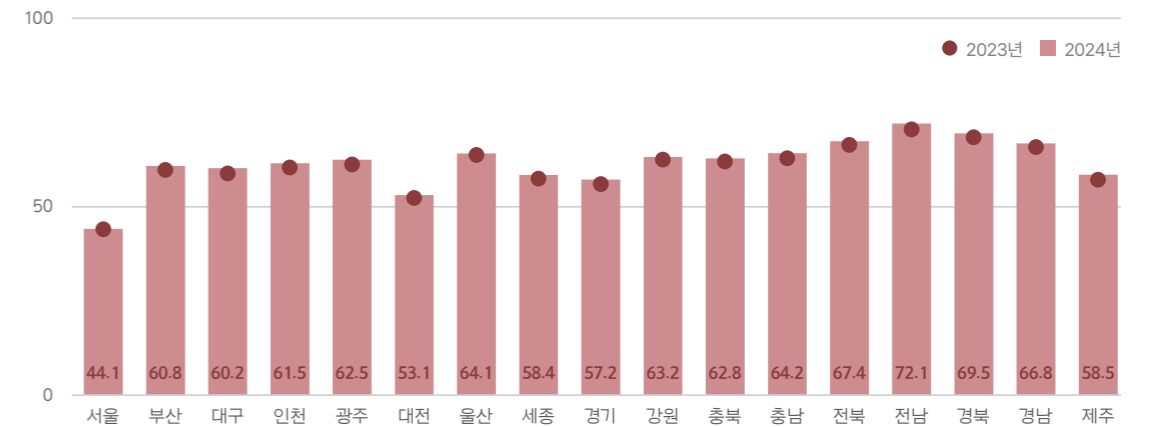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3년, 2024년 시도별 자가점유가구 비율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주택임대료 비율

Rent to income ratio

**지표 정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의 비율

**측정 방법** (중위 월 임대료 ÷ 중위 월 가구소득) × 100

## 2024년 15.8%, 전년과 동일

주택임대료는 가구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가 거주가 아닌 가구에서 부담이 큰 가구소비 지출 항목 중 하나이다.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며, 일반적으로 주택임대료 비율이 25%를 넘으면 주거비 부담이 있고, 30%를 넘으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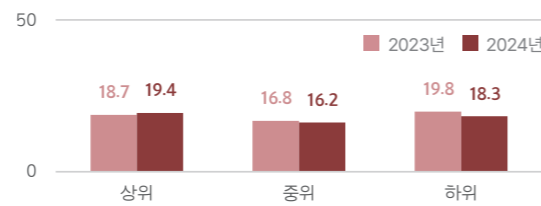
주택임대료 비율은 2024년 15.8%로 전년과 동일하다. 2006년 18.7%에서 2014년 20.3%까지 증가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8년 이후 15~16%에서 정체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8.4%, 광역시는 15.2%, 도지역은 12.7%로 주택임대료 비율은 수도권이 높다. 2023년과 비교 시 광역시와 도지역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각각 0.1%p, 0.3%p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에서는 1.9%p 감소하여 수도권에서의 감소폭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2023년에 20.3%로 2.0%p 증가하

였으나 2024년에는 2022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2010년에 하락한 후 최근까지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좁혀지고 있던 지역 간 격차가 2023년에 일시적으로 벌어졌으나 2024년에 2022년 수준으로 다시 회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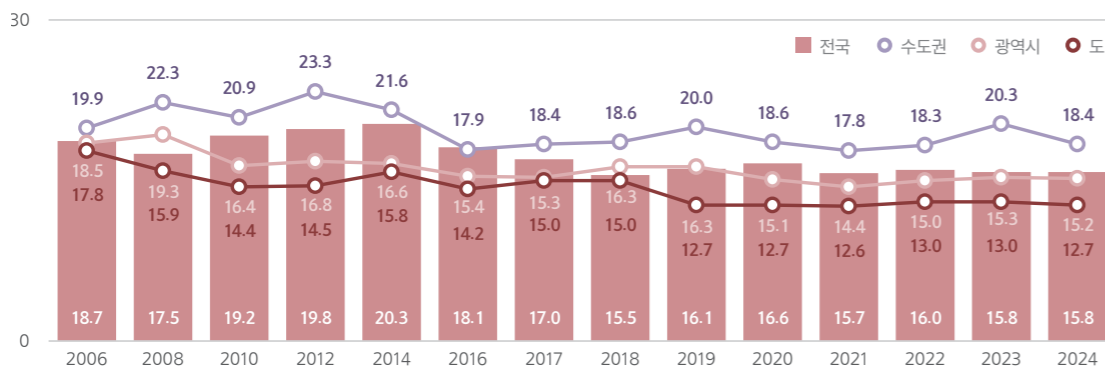
가구소득별로 보면 하위소득과 상위소득 집단의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고, 중위소득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하위와 중위소득 집단의 경우 2024년에 전년 대비 각각 1.5%p, 0.6%p 감소하였으나, 상위소득 집단은 2023년 18.7%에서 2024년 19.4%로 증가했다.

2023년, 2024년 소득수준별 주택임대료 비율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소득수준은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1~4분위), 중위(5~8분위), 상위(9~10분위)로 구분됨.

2006~2024년 주택임대료 비율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 1인당 주거면적

Residential area per capita

**지표 정의**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

**측정 방법** (개별 가구의 주택사용면적 ÷ 개별 가구원 수)의 평균

## 2024년 36.0㎡, 전년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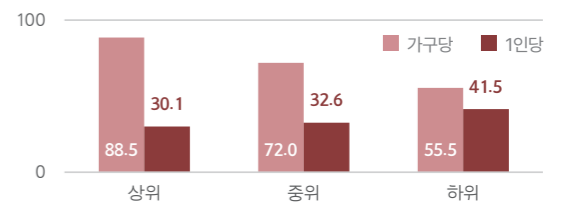
1인당 주거면적은 적절한 크기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거의 질 측정의 핵심 지표이다. 주거면적은 가구당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최근 가구원 수 감소로 인한 가구 구성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가구원 수가 감소하여 1인당 주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주거면적보다는 1인당 주거면적이 주거상태와 주거의 질을 더 적절하게 나타낸다. 국제적으로 1인당 주거면적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 국제비교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14년 33.5㎡로 늘어난 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추세이다. 2024년 1인당 주거면적은 36.0㎡로 2023년과 동일하며, 2006년 대비 9.8㎡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3.0㎡), 광역시(36.7㎡), 도지역(40.2㎡) 순으로 1인당 주거면적이 높게 나타나, 도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더 넓다. 2023년과 비교하면 광역시와 도지역은 증가한 반면 수도권은 감소하여, 최근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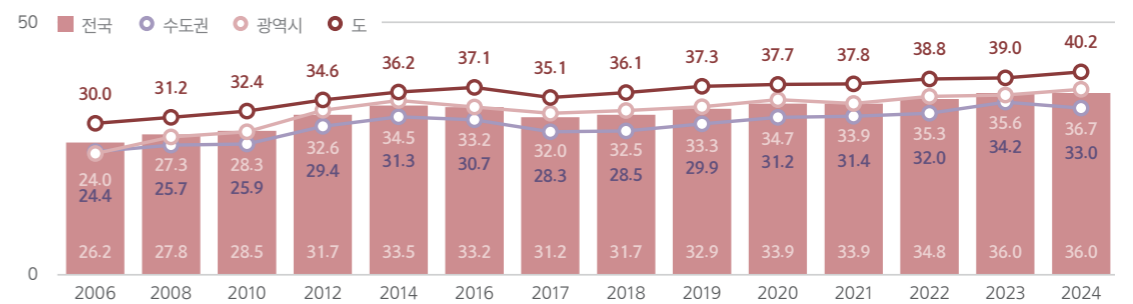
소득수준별로 주거면적을 비교해보면 1인당 주거면적은 하위소득 집단에서 41.5㎡로 가장 넓고, 중위소득 집단과 상위소득 집단은 각각 32.6㎡, 30.1㎡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하위소득층 내 소규모 가구 비중이 높은 가운데, 비수도권 거주 및 장기 자가주택 거주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구당 주거면적으로 보면 상위소득 집단에서 88.5㎡로, 소득에 따른 주거면적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2024년 소득수준별 주거면적 단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소득수준은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1~4분위), 중위(5~8분위), 상위(9~10분위)로 구분됨.

2006~2024년 1인당 주거면적 단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①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② 2017년부터는 공동주택의 면적을 행정자료와 연계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Dwelling without basic facilities

**지표 정의** 총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 총가구 수) × 100



## 2024년 3.8%, 전년 대비 0.2%p 증가

주거는 개인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1인당 주거면적이 양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양적인 크기뿐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주거 취약계층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2024년 3.8%로 2023년 3.6%에서 0.2%p 증가하였다. 2006년 16.6%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14년 이후 5%대에서 정체해오다 2020년 4.6%로 감소하였고, 2022년부터 4%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수도권에서 4.4%로 상대적으로 높고, 광역시가 2.8%로 가장 낮다. 수도권 지역은 2006년 12.8%에서 2024년 4.4%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광역시는 17.7%에서 2.8%, 도지역은 21.6%에서 3.4%로 감소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거시설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2014년 4.7%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정체된 반면, 광역시와 도지역은 꾸준히 개선 추세이다. 2024년에는 전년과 비교할 때 모든 지역에서 악화되었다.

최저주거기준의 세부기준별로 보면 수도권은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3.8%로 다른 지역보다 높고, 도지역은 면적기준으로는 수도권보다 양호하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비율이 2.8%로 다른 지역보다 높아, 지역별 주거상황의 특성을 보여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2011.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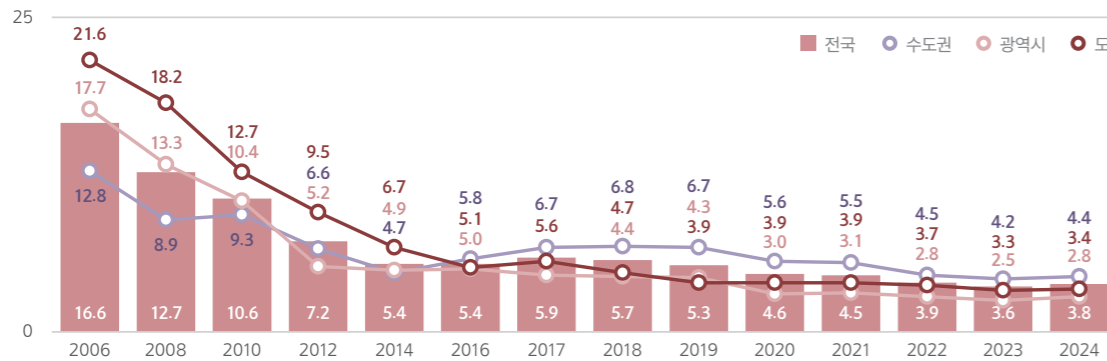
- **시설기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침실 및 면적기준** 1인 가구(방1개와 14㎡), 2인 가구(방1개, 26㎡), 3인가구(방2개, 36㎡), 4인가구(방3개, 43㎡), 5인가구(방3개, 46㎡), 6인가구(방4개, 55㎡)

2024년 기준별 미달가구 비율 단위: %

	면적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침실기준 미달
수도권	3.8	2.4	0.1
광역시	1.9	1.8	0.1
도지역	2.2	2.8	0.2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2006~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 통근시간

Commuting time to office

**지표 정의** 통근인구가 평소 집에서 직장까지 소요되는 평균시간  
**측정 방법** 12세 이상 통근인구 중 평소 집에서 직장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



## 2020년 30.8분, 2015년보다 0.4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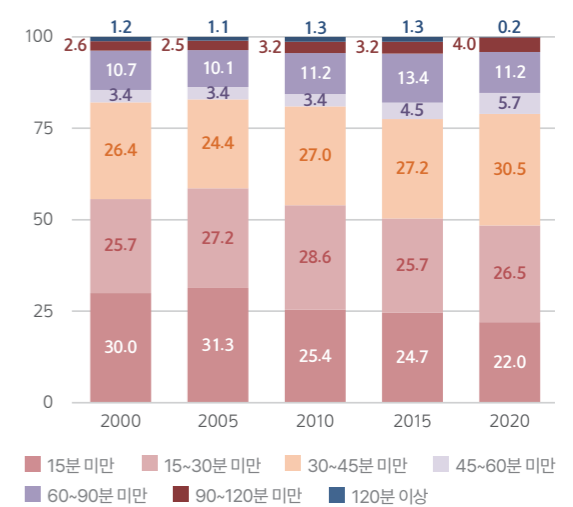
통근시간은 근로자의 직장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거지와 직장 간의 공간적 관계를 반영한다. 통근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근시간은 주거의 질과 대체관계에 있는 지표로서 주거지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통근시간의 추이를 통해 직장과의 거리의 변화와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통근시간은 도시의 성장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 입지 선택에 제한이 생겨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평균 통근시간은 2000년 28.4분에서 2020년 30.8분으로 지난 20년간 2.4분가량 증가하였다.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 14.5%에서 2015년 18.0%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 15.3%로 다시 감소하였다. 통근시간이 90분 이상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 3.8%에서 2020년 4.2%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통근시간을 비교해보면 동지역의 통근시간이 길고 면지역이 가장 짧다. 동지역의 경우 2020년 통근시간이 60분 이상인 비율이 17.2%인 반면, 읍지역은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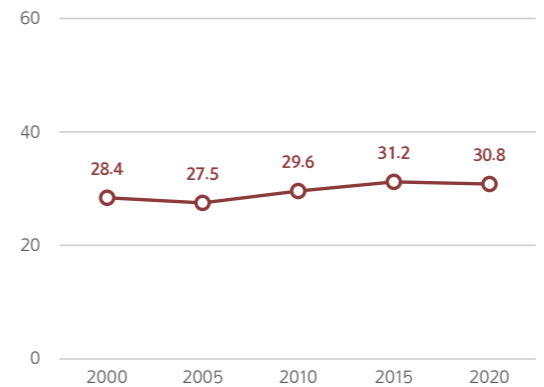
면지역은 4.7%로 큰 차이를 보인다. 15분 미만인 비율 또한 동지역이 17.9%에 불과한 반면 읍지역은 35.1%, 면지역은 47.3%이다.

2000~2020년 통근시간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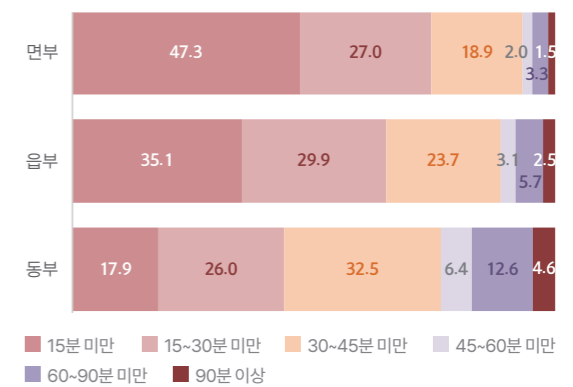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터치, 「인구주택총조사」

2000~2020년 평균 통근시간 단위: 분/일



출처 국가데이터터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지역별 통근시간 비율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터치, 「인구주택총조사」

# 주거환경 만족도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지표 정의** 거주지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거주지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

## 2024년 88.8%, 전년 대비 0.9%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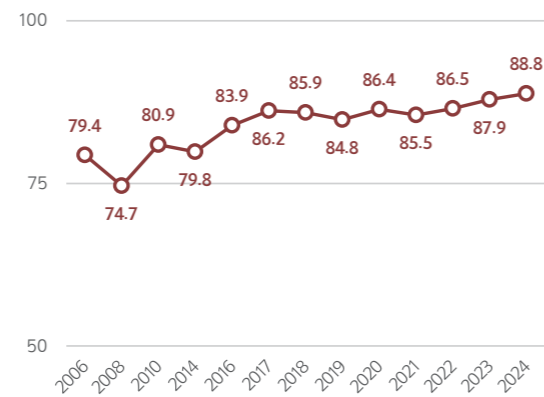
거주지 선택에 있어 주택 이외에도 거주지 환경은 중요한 요인이며, 주거의 질은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자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되는 주거의 질 지표로 주거환경의 적절성을 나타낸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 주변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하며, 거주 계층과 연령 등의 세부 특성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은 2024년 88.8%로 2023년 87.9%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2008년 74.7%에서 2017년 86.2%로 증가한 이후 85~86%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88.8%로 소폭 증가하였다.

17개 시도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대전 지역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과 광주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95% 정도로 높다. 인천 지역이 81.4%로 가장 낮으며, 부산과 경북 지역이 85% 미만으로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2023년과 비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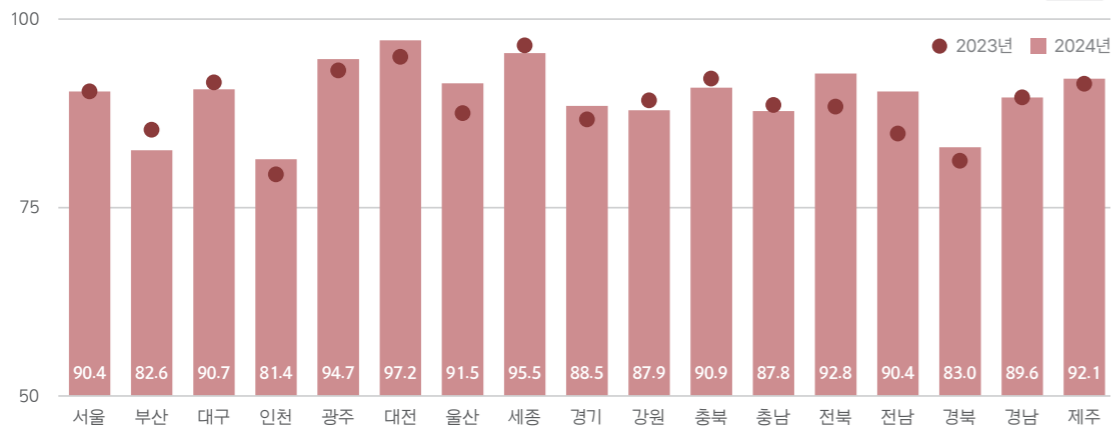
보면 전남과 전북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각각 5.6%p, 4.4%p), 반면, 부산(-2.7%p), 강원(-1.3%p), 충북(-1.2%p) 지역에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2006~2024년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2012년은 5점 척도로 조사되어 제외함.

2023년, 2024년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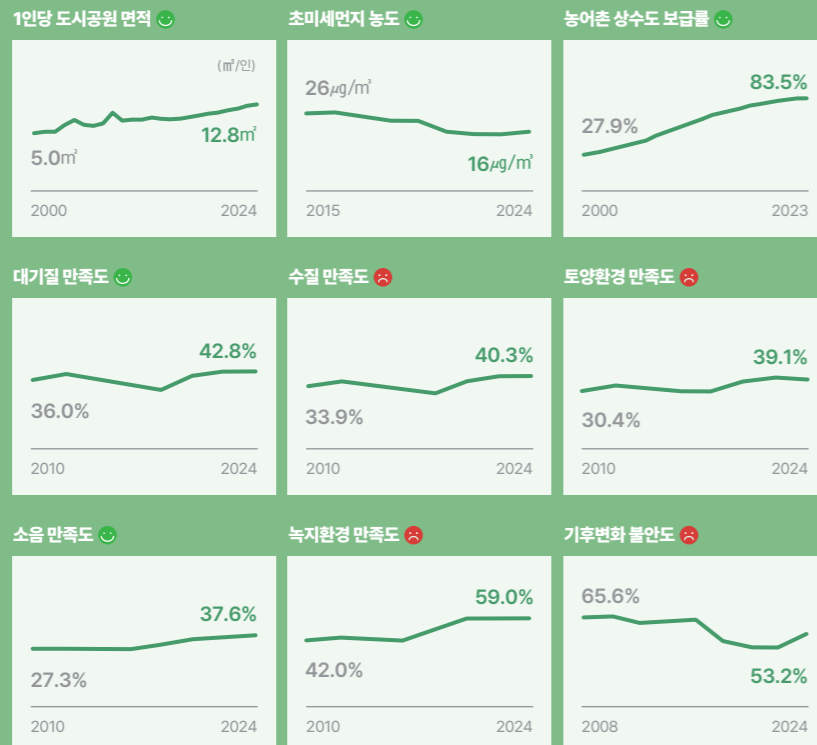


## 환경이란?

환경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매우 즉각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환경은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대기 및 수질오염), 간접적(기후변화)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람들은 물·자연과 같은 환경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는(환경정보 접근권 포함)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사람들은 환경적인 쾌적함과 불쾌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람들의 선택(예,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환경 조건은 기후변화와 가뭄 또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재산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최근 추세

환경 영역에 포함되는 9개 지표의 전기 대비 최근 추세를 보면 개선 지표는 5개, 악화 지표는 4개로 나타났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이는 지표로 두 지표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아진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다. 환경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 지표들은 대기질과 소음 만족도는 지속적인 개선 추세이고, 수질, 토양환경, 녹지환경 만족도는 2022년 대비 소폭 악화되었으나, 다섯 개 영역 모두 증감폭이 1%p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Urban park area per capita

지표 정의 시민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

측정 방법 도시공원 조성면적(결정면적 - 미집행면적) ÷ 도시 지역 총인구

## 2024년 12.8m², 전년 대비 0.2m² 증가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시설이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의 양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거주지 내에 접근이 용이한 도시공원의 유무는 개인 삶의 질과 여가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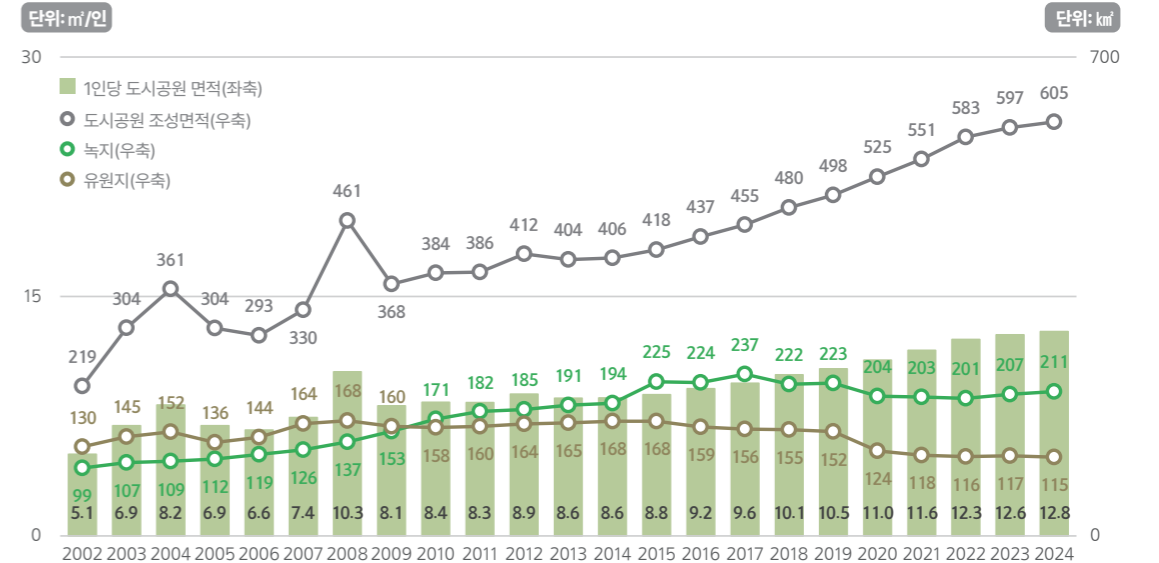
2024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8m²로 2023년 12.6m²에 비해 0.2m² 증가하였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02년 5.1m²에서 2008년 10.3m²까지 증가하였다. 2009년 8.1m²로 감소한 이후 2015년까지 8m² 후반의 비슷한 면적을 유지하다 2016년부터 9m²대에 진입한 이후 증가하고 있다.

도시공원 조성면적의 실면적은 2002년 219km²에서 2024

년 605km²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녹지' 면적은 같은 기간 99km²에서 211km²로 증가하여 도시공원과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오락·휴양시설인 '유원지' 면적은 같은 기간 130km²에서 115km²로 감소하여 도시공원과 다르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녹지 등의 면적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도시공원의 경우 결정면적(706km²) 대비 조성면적(605km²)이 85.7%이다.

## 2002~2024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주 ① 도시공원 :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시설

② 녹지 :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③ 유원지 :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오락·휴양시설

④ 조성면적=결정면적-미집행면적

# 초미세먼지 농도(PM<sub>2.5</sub>)

Fine dust concentration level

**지표 정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PM<sub>2.5</sub>, 지름 2.5 $\mu$ m 이하의 먼지)의 농도로 측정  
**측정 방법** 17개 시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인구 가중한 평균값



## 2024년 16 $\mu$ g/m<sup>3</sup>, 전년보다 3 $\mu$ g/m<sup>3</sup> 감소

여러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로 초미세먼지(PM<sub>2.5</sub>)는 입자크기가 작아서 폐포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과 폐기능 저하를 초래, 시정을 악화시키는 물질로써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으며,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 심각성과 비중,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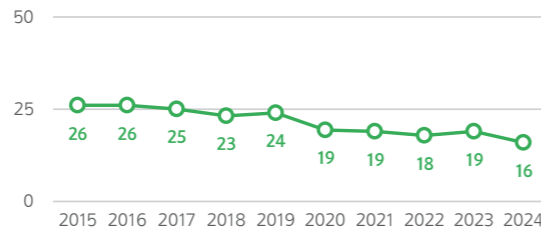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농도(PM<sub>2.5</sub>)를 인구 가중평균하여 합산한 값은 2024년 16 $\mu$ g/m<sup>3</sup>로 2023년보다 3 $\mu$ g/m<sup>3</su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 $\mu$ g/m<sup>3</sup>에서 2019년 23 $\mu$ g/m<sup>3</sup>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량 이용의 감소와 사업장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가 2024년 다시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인천 지역이 19 $\mu$ g/m<sup>3</sup>로 가장 높고,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지역이 17 $\mu$ g/m<sup>3</sup> 이상

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강원,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이 13 $\mu$ g/m<sup>3</sup>로 가장 낮으며, 부산, 대구, 대전 지역이 14 $\mu$ g/m<sup>3</sup>로 낮은 편이다.

초미세먼지 농도(PM<sub>2.5</sub>)는 농도기준에 따라 나쁨과 매우 나쁨으로 구분된다. 나쁨 이상 일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이 24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지역이 23일, 충남 지역이 20일로 많은 편이다. 반면, 전남 지역은 3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제주 지역이 4일, 부산 지역이 5일로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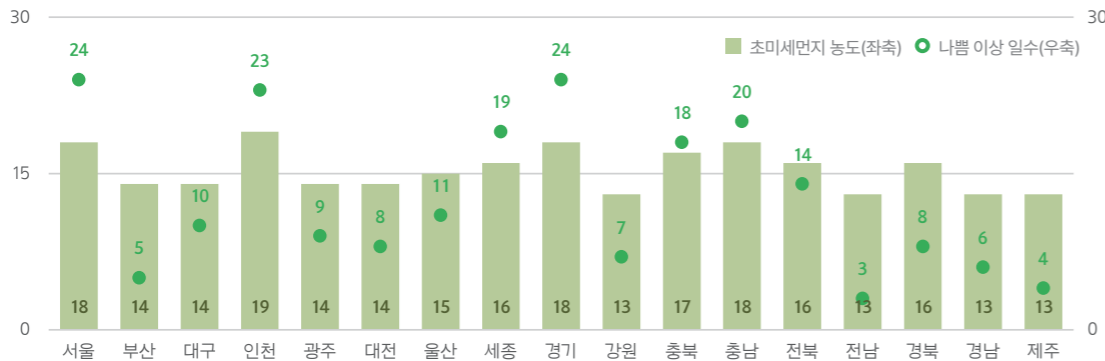
2015~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 단위:  $\mu$ g/m<sup>3</sup>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주 17개 시도 연평균 초미세먼지(PM<sub>2.5</sub>)농도의 인구가중 평균값임.

## 2024년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및 나쁨 이상 일수

단위:  $\mu$ g/m<sup>3</sup> 단위: 일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주 나쁨 이상 일수는 PM<sub>2.5</sub> 나쁨(36~75) 및 매우 나쁨(75~) 일수를 합산한 값임.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Rural water supply coverage rate

**지표 정의** 면 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할 대상 가구 중 실제 급수를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면 지역 급수인구 ÷ 면 지역 총인구) × 100



## 2024년 84.5%, 전년 대비 1.0%p 증가

상수도는 보건위생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과 소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상수도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편익시설이지만 상수도의 보급수준은 각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주택구조,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상수도 보급률은 지역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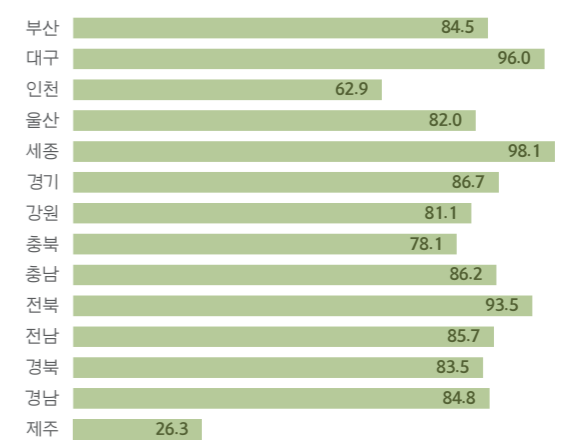
한국은 정부의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으로 선진국 수준인 95% 이상의 상수도 보급률을 달성하여 2024년 98.0%이다. 하지만 지역간 격차는 아직 남아 있다. 도시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에 가깝지만 농어촌 지역은 그렇지 않다.

면 지역에 속하는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4년 84.5%로 2023년 83.5%에서 1.0%p 증가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01년 29.0%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증가폭이 컸으며, 최근에는 2%p 이내의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면 지역이 있는 14개 시도의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을 보면 대부분 지역이 80% 이상의 비율을 보여주는 반면, 제주 지역은 26.3%로 가장 낮고, 인천과 충북 지역이 8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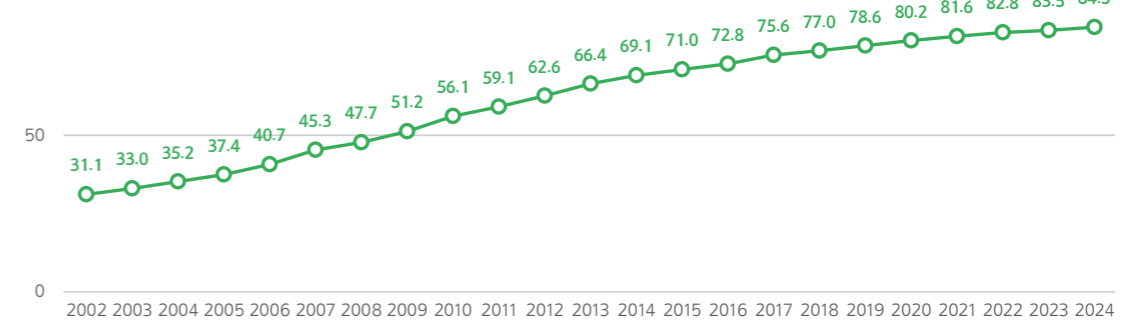
2024년 지역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단위: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도통계」  
 주 ①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로 면 지역이 없는 시도는 제외함.  
 ② 급수인구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구는 포함하지 않음.

## 2002~2024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단위: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도통계」  
 주 ①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임.  
 ② 급수인구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구는 포함하지 않음.

# 대기질 만족도

Air quality satisfaction

**지표 정의** 거주지의 대기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4년 42.8%, 2022년보다 0.5%p 증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는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환경 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보여주는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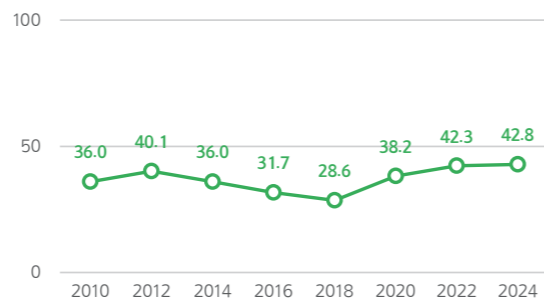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일반적인 시민들의 체감은 낮은 편인데, 이는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40.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2014년보다 4.3%p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38.2%로 2018년보다 9.6%p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도 42.8%로 증가하여 다른 환경분야(수질, 토양환경, 소음)의 만족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기질 만족도의 개선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대기질이 개선됨에 따라 사람들의 체감도 같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기질 만족도는 도시(동부)와 농어촌(읍면) 지역에서 큰 차이를 보여 2024년 농어촌 지역의 대기질 만족도는 61.9%로 도시 지역(38.7%)에 비해 높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대기질 만족도는 2018년까지 2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으나 점차 감소 추세로, 도시와 농어촌 간 만족도 차이는 2010년 30.0%p에서 2024년 23.2%p로 감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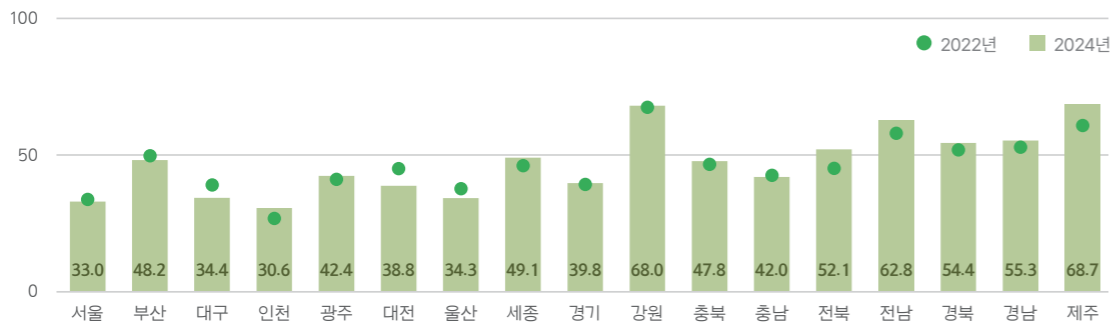
17개 시도별로 보면 제주 지역이 68.7%로 대기질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 전남 지역에서 60% 이상으로 높다. 반면, 인천이 30.6%로 대기질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서울(33.0%), 대구(34.4%), 울산(34.3%) 지역에서 낮은 편이다. 2022년과 비교해보면 제주와 전북 지역에서 지역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대전 지역의 대기질 만족도는 2022년에 비해 -6.2%p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2010~2024년 대기질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2년, 2024년 시도별 대기질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수질 만족도

Water quality satisfaction

**지표 정의** 거주지의 수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수질)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4년 40.3%, 2022년보다 0.8%p 감소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보여주는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 중 수질은 먹는 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기환경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건강과 연관되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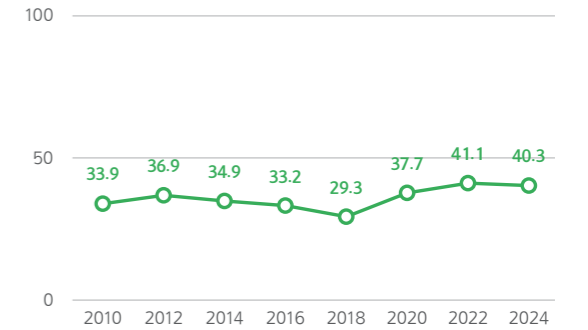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 2024년 40.3%로 2022년 41.1%보다 0.8%p 감소하였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수질 만족도는 2010년 33.9%에서 2012년 36.9%로 증가한 이후 2014년 34.9%, 2016년 33.2%, 2018년 29.3%로 계속 낮아지다 2022년 41.1%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기질 만족도(42.8%)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수질 만족도는 도시(동부)와 농어촌(읍면) 지역 사이에서 차이를 보여 2024년 농어촌 지역의 수질 만족도는 52.6%로 도시 지역(37.7%)에 비해 14.9%p 높다.

17개 시도별로 수질 만족도를 보면 전남 지역이 57.1%로 가장 높고, 제주, 강원, 세종 지역에서 5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천은 24.4%로 수질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서울, 대구, 울산, 경기, 충남 지역에서 수질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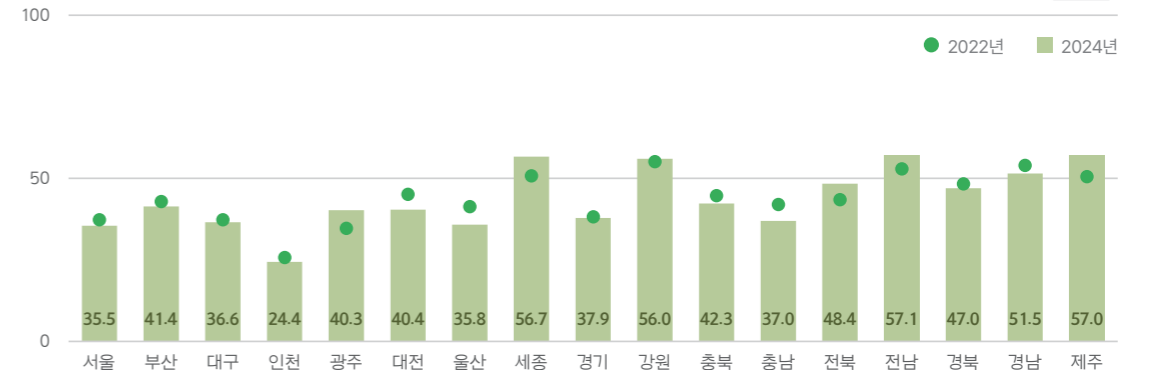
도가 4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세종 지역의 수질 만족도는 56.7%로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할 때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022년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수질 만족도가 소폭으로 감소한 반면, 특히 대전과 충남, 울산 지역이 2022년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며, 제주, 세종, 광주, 전북, 전남 지역은 2022년에 비해 수질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2010~2024년 수질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2년, 2024년 시도별 수질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토양환경 만족도

Soil quality satisfaction

**지표 정의** 거주지의 토양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토양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4년 39.1%, 2022년보다 1.1%p 감소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보여주는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 중 토양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24년 39.1%로 2022년에 비해 1.1%p 감소하였다.

토양환경 만족도는 수질 만족도(40.3%)나 대기질 만족도(42.8%)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다. 토양환경은 대기나 수질에 비해 개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 수준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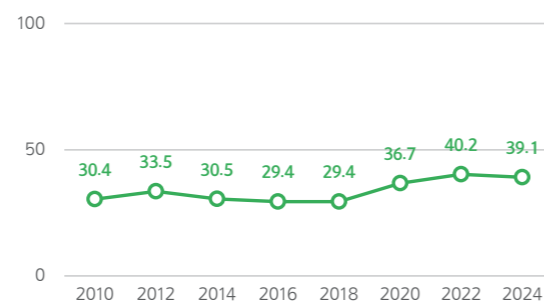
토양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30.4%에서 2012년 33.5%로 증가한 이후, 2014년 30.5%, 2018년 29.4%로 감소했다가 2020년 36.7%, 2022년 40.2%까지 증가하였으나 2024년 소폭 감소하였다.

도시(동부) 지역보다 농어촌(읍면) 지역의 토양환경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도시 지역에서는 2018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 2022년 38.3%로 증가한 이후 2024년 36.6%로 감소한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2012년 54.8%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최근 증가하여 2024년 50.6%로 나타나,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차이는

14.0%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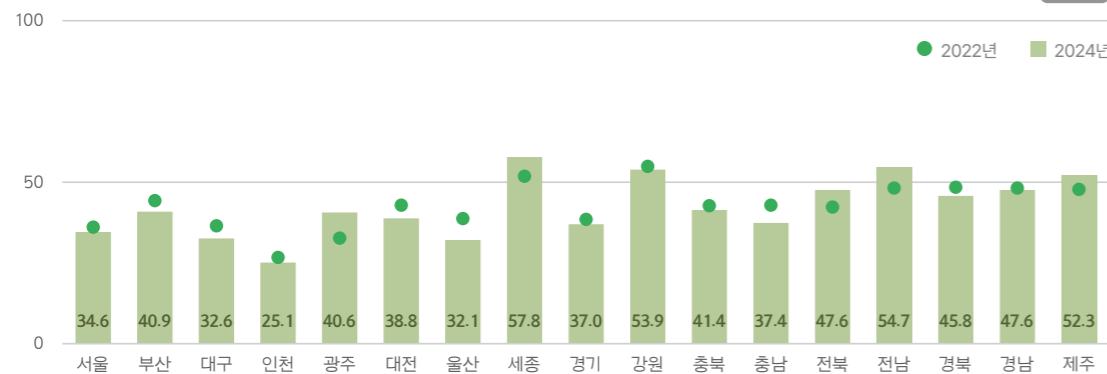
17개 시도별로 토양환경 만족도를 보면, 세종 지역이 57.8%로 가장 높고, 전남, 강원, 제주 지역도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인천의 토양환경 만족도는 25.1%로 가장 낮고, 서울, 대구, 울산 지역은 35% 이하로 낮은 편이다. 2022년과 비교해보면, 세종과 전남 지역의 토양환경 만족도가 6%p 이상 증가하였으며, 울산 지역은 2022년에 비해 -6.6%p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2010~2024년 토양환경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2년, 2024년 시도별 토양환경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소음 만족도

Noise level satisfaction

**지표 정의** 거주지의 소음공해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소음 진동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4년 37.6%, 2022년보다 1.0%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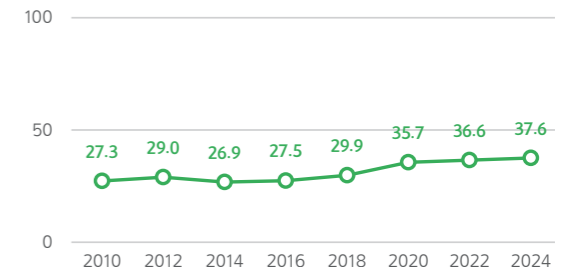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보여주는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 중 소음에 대한 체감도는 최근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이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도로변이나 전동차 등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음 만족도는 2024년 37.6%로 2022년에 비해 1.0%p 증가하였다. 소음 만족도는 2010년 27.3%에서 큰 변화 없이 26~29% 내외로 증감을 하였으나 다른 환경분야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35.7%로 크게 증가한 이후 소폭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대기질이나 수질 만족도 보다는 증가폭이 적은 편이다.

도시(동부) 지역과 농어촌(읍면) 지역을 비교해보면 소음 만족도는 다른 생활환경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도시 지역(34.0%)에 비해 농어촌 지역(54.4%)에서 만족도가 높다.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이는 20.4%p이다. 다른 생활환경 분야에 비해서 체감 만족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가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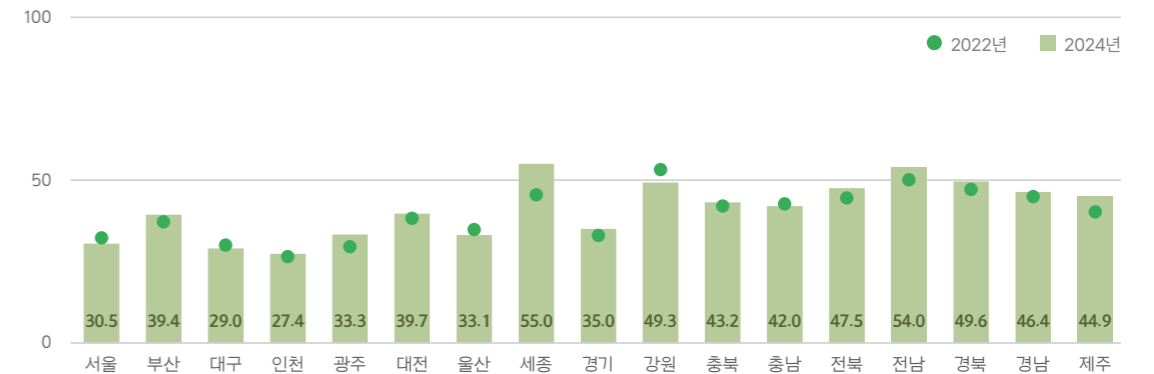
17개 시도별로 소음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세종과 전남 지역이 각각 55.0%, 54.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 지역이 27.4%로 가장 낮으며, 대구(29.0%)와 서울(30.5%) 지역도 소음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2022년과 비교해보면, 소음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세종 지역이 2022년 대비 9.5%p가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별 증감폭은 상이하나 서울,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2022년 대비 소음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강원 지역이 -3.9%p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2010~2024년 소음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2년, 2024년 시도별 소음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녹지환경 만족도

Green environment satisfaction

**지표 정의** 거주지의 녹지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산, 공원 등)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4년 59.0%, 2022년보다 0.1%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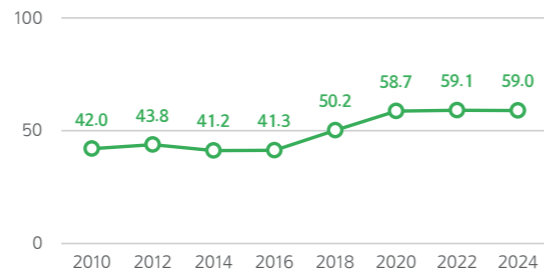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보여주는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 중 녹지환경은 살고 있는 지역 내의 산이나 공원 등 자연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도시공원과 같이 개인들의 여가생활 향유와도 연관되어 있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24년 59.0%로 2022년 59.1%에서 0.1%p 감소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이다. 2010~2016년까지는 42%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8년 50.2%로 2016년 대비 8.9%p, 2020년에는 58.7%로 2018년 대비 8.5%p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다른 생활환경 분야들의 만족도가 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녹지환경 만족도 또한 다른 생활환경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도시(동부) 지역에 비해 농어촌(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2024년 기준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는 70.8%이고, 도시 지역의 만족도는 56.5%로, 만족도 차이는 14.3%p이다. 도시 지역의 녹지환경 만족도는 2010년 37.8%에서 2016년까지 큰 변화없이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 2018년에 7.5%p, 2020년 9.0%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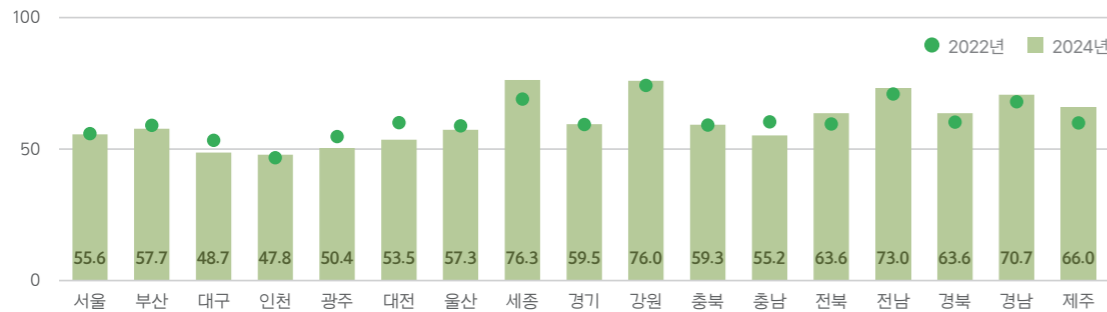
17개 시도별로 녹지환경 만족도를 보면 세종 지역이 76.3%로 가장 높고, 강원 지역(76.0%), 전남 지역(73.0%), 경남 지역(7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에 개발된 도시인 만큼 세종 지역에서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7.3%p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인천 지역의 만족도는 47.8%, 대구 지역은 48.7%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2022년과 비교해보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감소폭이 커 5%p 이상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세종 지역 다음으로는 제주 지역에서 2022년 대비 6.0%p 증가하였다.

2010~2024년 녹지환경 만족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2022년, 2024년 시도별 녹지환경 만족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기후변화 불안도

Climate anxiety level

**지표 정의** 기후변화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기후변화(폭염, 홍수 등) 문제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불안하다' 또는 '약간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4년 53.2%, 2022년보다 7.3%p 증가

기후변화는 전체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경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 정도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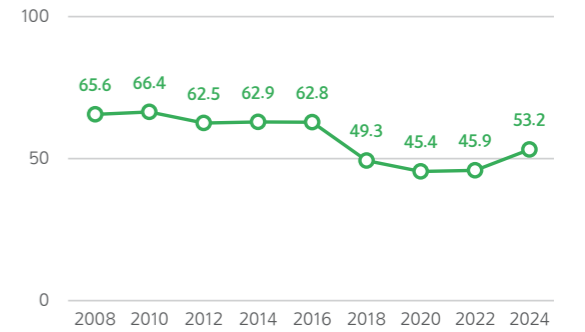
2024년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 정도는 53.2%로 2022년 45.9%에서 7.3%p 증가하였다. 2008년 65.6%에서 2012년 62.5%로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8년 49.3%, 2020년 45.4%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다시 53.2%로 증가하였다.

도시(동부)와 농어촌(읍면) 지역 간의 큰 차이는 없으나 도시 지역이 53.7%, 농어촌 지역이 50.5%로 도시 지역에서 기후변화 불안도가 약간 높다.

성별로는 남자(49.8%)보다 여자(56.4%)가 더 높고, 이러한 성별 차이는 2012년 이후 약 6~9%p 정도 여자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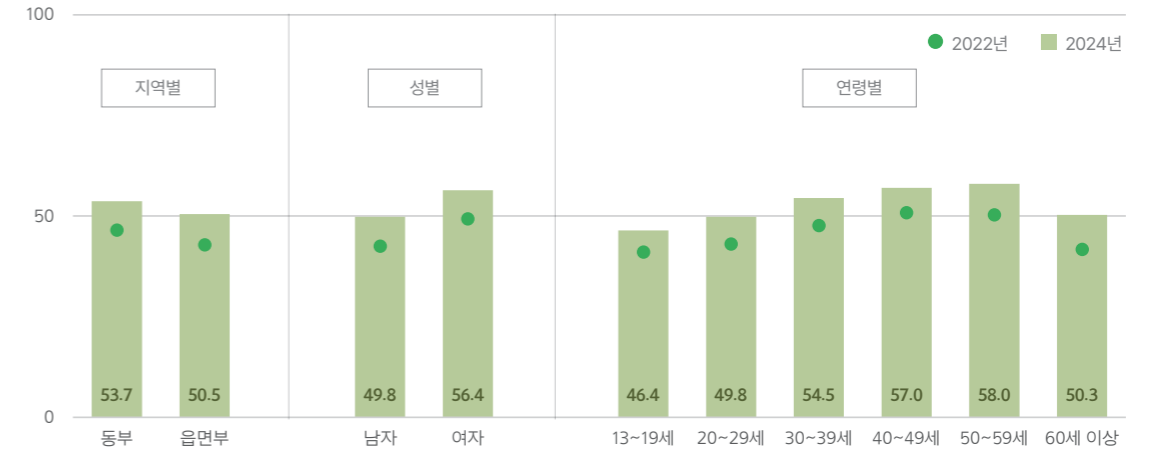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기후변화 불안도가 57% 이상으로 높은 반면, 13~19세는 46.4%로 가장 낮고, 20대와 60세 이상은 50% 전후로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대비 13~19세는 5.4%p 증가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각각 7.7%p, 8.6%p 증가하였다.

2010~2024년 기후변화 불안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2022년, 2024년 지역·성·연령별 기후변화 불안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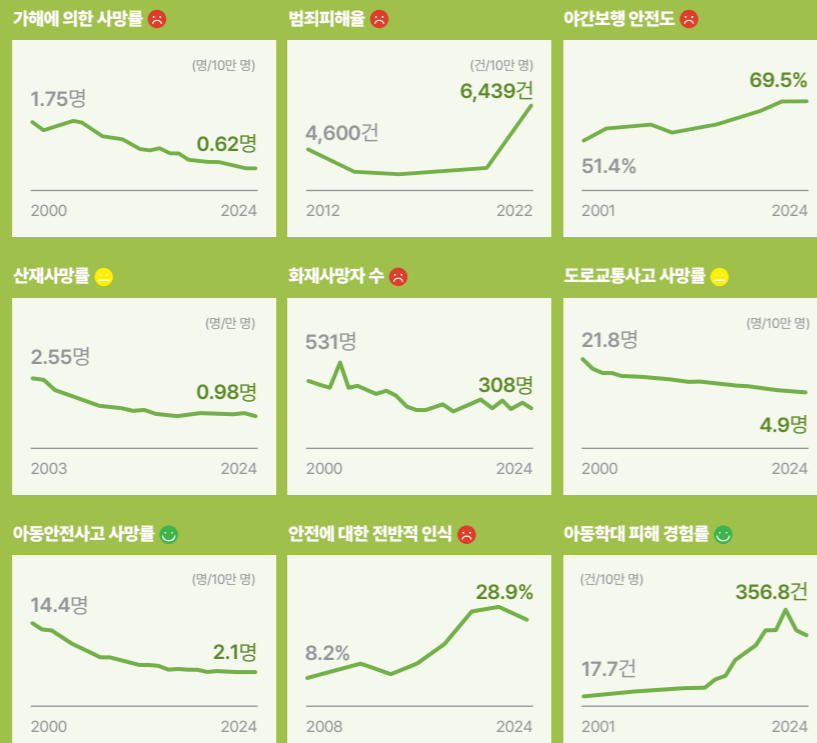


## 안전이란?

안전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해 주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반으로 안전을 “각 개인의 신체적 온전성을 위협에 빠트리는 모든 외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Stiglitz et al., 2009)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안전 영역은 대부분 범죄와 사법체계와 관련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삶의 질 지표에서는 범죄 이외에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위험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사고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 최근 추세

안전 영역 9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 지표는 2개, 악화 지표는 5개, 동일지표 2개로 나타났다. 범죄 관련 지표인 가해에 의한 사망률, 범죄피해율, 그리고 야간보행 안전도는 모두 전기 대비 악화되었다. 안전사고를 보여주는 지표 중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산재사망률은 2024년 전년과 동일하고, 화재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대표적인 취약집단 중 아동의 안전환경을 보여주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감소하였고,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 2021년 이후 최근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지속적인 개선 추세였으나 2024년에는 2022년 대비 악화되었다.



# 가해에 의한 사망률

Homicide rate

지표 정의 인구 10만 명당 타살 사망자 수

측정 방법 {가해(타살)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2024년 10만 명당 0.62명, 전년 대비 0.01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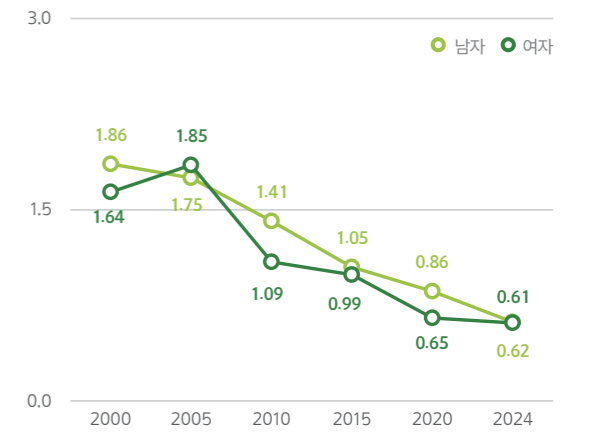
타인의 가해에 의한 사망, 즉 타살은 범죄피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개인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2002년 인구 10만 명당 1.68명에서 2006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인구 10만 명당 0.85명으로 1명 이하로 낮아진 이후 2022년 0.62명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0.01명 증가하여 인구 10만 명당 0.62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00년 인구 10만 명당 1.86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4년에는 0.62명을 기록하였다. 여자는 2000년 인구 10만 명당 1.64명에서 2005년 1.8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점차 감소하여 2024년 0.61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2014년 이후로는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자는 2023년 0.58명에서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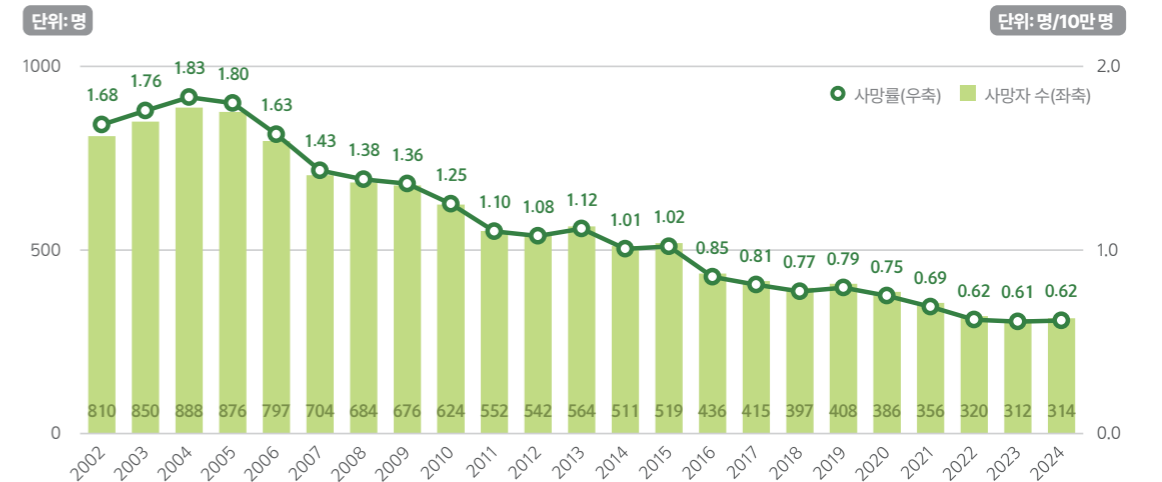
0.62명으로 증가한 반면, 여자는 같은 기간 0.64명에서 0.61명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가해에 의한 여자의 사망률이 남자와 거의 동일하다.

2000~2024년 성별 가해에 의한 사망률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2002~2024년 가해에 의한 사망률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 범죄피해율

Crime victimization rate

**지표 정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집계된 지난 1년 동안의 범죄피해 발생건수  
**측정 방법** (범죄피해건수(추정) ÷ 14세 이상 인구 수) × 100,000



## 2022년 인구 10만 명당 6,439건, 2020년보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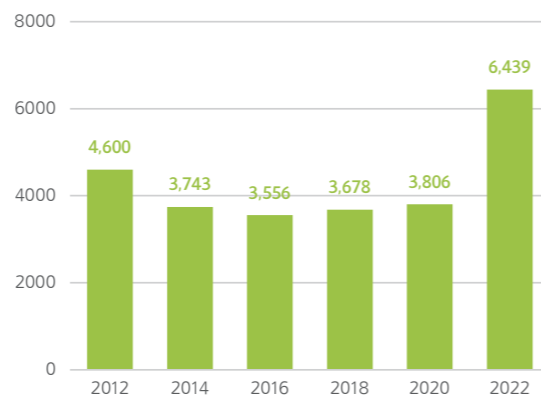
범죄발생은 개인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사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하나이다.

공식 범죄통계는 경찰과 검찰이 인지하고 처리한 사건들을 집계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다더라도 사법기관에 신고되지 않거나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공식 범죄통계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숨은 범죄’의 문제가 생겨난다. 표본조사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수집되는 범죄피해 자료는 개인이 경험한 범죄피해를 바탕으로 ‘숨은 범죄’를 파악함으로써 범죄발생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로 개인들의 범죄피해율을 추정해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한 이후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에는 6,439건으로 증가폭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2020년과 2022년 조사에서 범죄피해 세부 항목이 일부 변화함에 따라 시계열 비교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22년 조사에서는 괴롭힘과 스토킹의 항목이 분리되고, 불법촬영, 피싱 등의 항목이 추가되면서 범죄피해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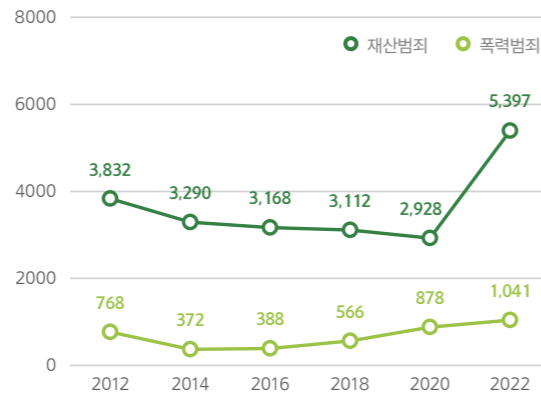
폭력범죄 피해와 재산범죄 피해로 나누어서 보면, 재산범죄가 인구 10만 명당 5,397건으로 폭력범죄(1,041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재산범죄의 경우 2012년 이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폭력범죄는 2012년 인구 10만 명당 768건에서 2014년 400건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18년 566건, 2020년 878건, 2022년 1,041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2012~2022년 범죄피해율 단위: 건/10만 명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주 ① 범죄피해율은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로 발생건수를 추정함  
 ② 2020년, 2022년 기준 조사에서 범죄피해 항목이 일부 변화함에 따라 시계열 분석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2022년 조사에서 괴롭힘과 스토킹의 분리, 불법촬영, 피싱 등의 문항 추가).

2012~2022년 유형별 범죄피해율 단위: 건/10만 명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주 ① 범죄피해율은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로 발생건수를 추정함  
 ② 2020년, 2022년 기준 조사에서 범죄피해 항목이 일부 변화함에 따라 시계열 분석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2022년 조사에서 괴롭힘과 스토킹의 분리, 불법촬영, 피싱 등의 문항 추가).

# 야간보행 안전도

Feeling safe walking alone at night

**지표 정의** 야간보행 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



## 2024년 69.5%, 2022년보다 0.9%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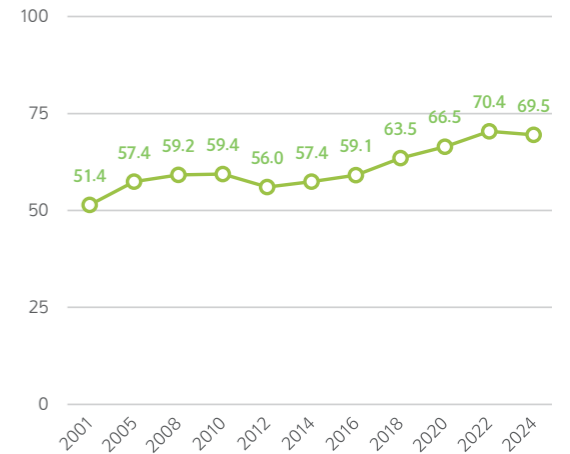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은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주지역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인 ‘야간보행 안전도’는 집 근처에서 야간보행 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로 측정된다. 이 지표는 국제적으로도 안전영역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지표이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는 야간보행 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항목이 일부 변경되어 2018년까지는 집 근처 야간에 혼자 걸기 두려운 곳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로 2001년 51.4%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2020년부터는 야간에 혼자 걸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를 묻는 것(4점 척도)으로 조사항목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증가추세에 이어 2020년 66.5%, 2022년에는 70.4%로 증가 추세였으나, 2024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야간보행 안전도는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안전하다는 응답이 여자는 55.1%로 남자(84.2%)보다 29.1%p 낮다.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읍면) 지역이 도시(동부) 지역보다 일관되게 높지만 그 차이는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2001년 도시와 농촌의 야간보행 안전도는 각각 49.0%, 60.9%로 10%p 이상 차이가 났지만, 2024년에는 각각 69.4%, 70.2%로 1%p 이내의 차이를 보여 비슷한 수준으로, 도시 지역에서의 야간보행 안전도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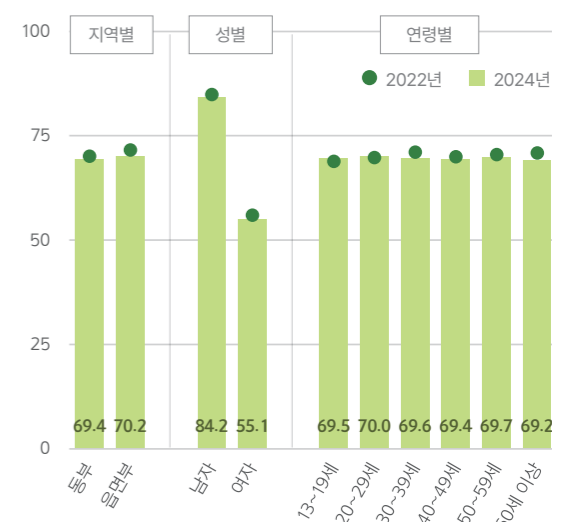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야간보행 안전도가 69~70% 사이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1%p 미만에 불과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대비 13~19세, 20대에서는 야간보행 안전도가 증가한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2001~2024년 야간보행 안전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① 2018년까지는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걸기 두려운 곳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며, 2020년부터는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지(4점 척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② 2010년까지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2년, 2024년 지역·성·연령별 야간보행 안전도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산재사망률

Industrial accident mortality rate

**지표 정의**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재해 사망자 수  
**측정 방법** (산재 사망자 수 ÷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 수) × 10,000



## 2024년 근로자 1만 명당 0.98명, 전년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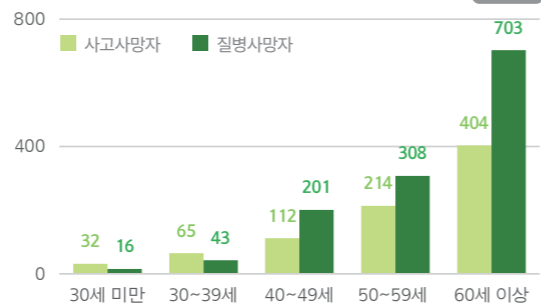
산업재해는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측정함으로써 근무환경의 안전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의미가 있다. 산업재해의 수준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통계에 포착되지 않고 누락되는 사고가 있고, 누락 정도가 국가 또는 시기마다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표가 바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이다. 산재사망률이란 산재 적용 대상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한 재해 사망자의 비율로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로 계산된다.

2024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98명으로 2023년 2,016명보다 82명 증가하였으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만 명당 0.98명으로 2023년과 동일하다. 산재사망률은 2003년 근로자 1만 명당 2.55명에서 2010년 1.36명, 2016년 0.96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6년 이후로는 근로자 1만 명당 1명 정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산재사망자 수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해서 60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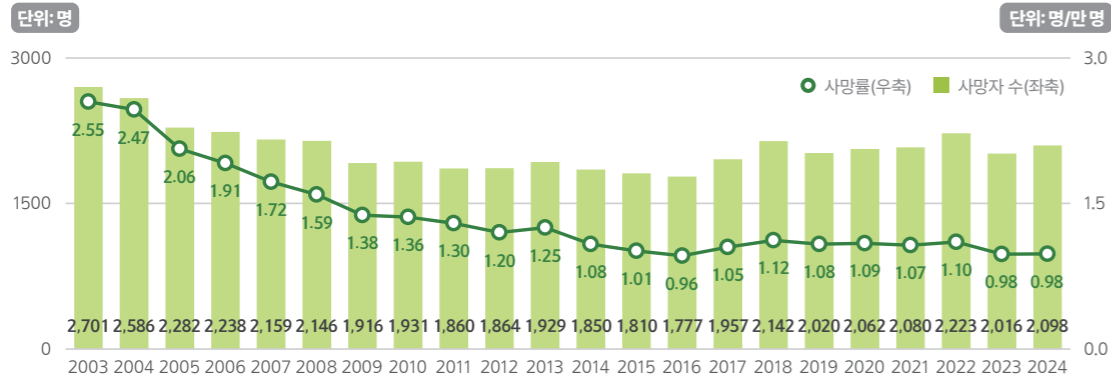
상에서 산재사망자 수는 1,107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 중 52.8%이다. 산재사망을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하여 보면, 질병뿐 아니라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 또한 50대와 60세 이상에서 더 높아 전체 사고사망자 중 50대는 25.9%, 60세 이상은 48.9%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2024년 연령별 산재사망자 수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 2003~2024년 산재사망률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주 ①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임.

② 사망자 수에는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함(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 포함).

# 화재 사망자 수

Number of fire fatalities

**지표 정의** 연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수  
**측정 방법** 연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수로 산출



## 2024년 308명, 전년 대비 25명 증가

화재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초래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이다. 예방과 대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화재의 피해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그 사회의 화재안전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4년 308명으로 2023년보다 25명 증가하였으나, 화재 발생건수는 2023년 38,857건에서 2024년 37,614건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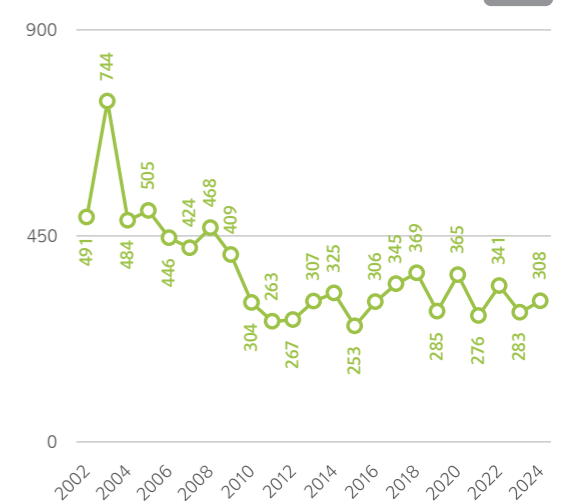
화재 사망자 수는 2001년 516명에서 감소 추세를 보여 2009년까지는 매년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연간 300명 내외로 감소하였다. 2015년 화재 사망자 수는 253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화재 발생건수는 2000년 34,844건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2007년 국가화재분류체계 도입에 따라 47,882건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10년 41,863건, 2015년 44,435건으로 4만 건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37,614건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건수는 2000년 이후 증가하였지만 화재 사망자 수는 2002년에서 2024년까지 183명 감소하여 과거보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화재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임에도 건축물의 대형화 및 복합화 등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의 재산피해액은 1조 2,104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에는 감소하여 7,83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2~2024년 화재 사망자 수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 2000~2024년 화재 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

단위: 억원



출처 소방청, 「화재발생총괄표」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Road traffic accident fatality rate

**지표 정의**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측정 방법**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 총인구) × 100,000



## 2024년 인구 10만 명당 4.9명, 전년대비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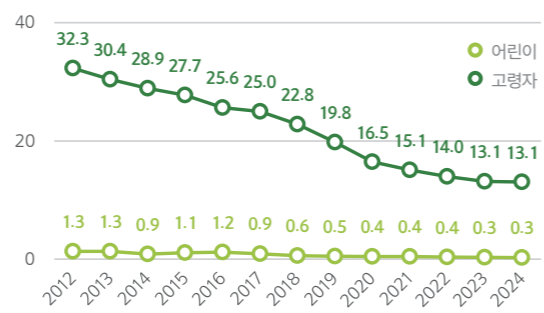
자동차는 통행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며, 거리 보행 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여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2002년 15.2명에서 2014년 9.4명으로 10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2024년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9명이다. 2023년에 2022년 대비 0.4명 감소하면서 2년 연속 5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사고 건수는 2000년대 이후 21~23만 건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여 2022년에 20만 건 미만으로 낮아진 이후 정체되어 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9만 6,349건이다.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폭이 사망자 수만큼 크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대비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면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4년 12명, 인구 10만 명당 0.3명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99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2배 이상 높아 고령자들이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어린이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1년 이후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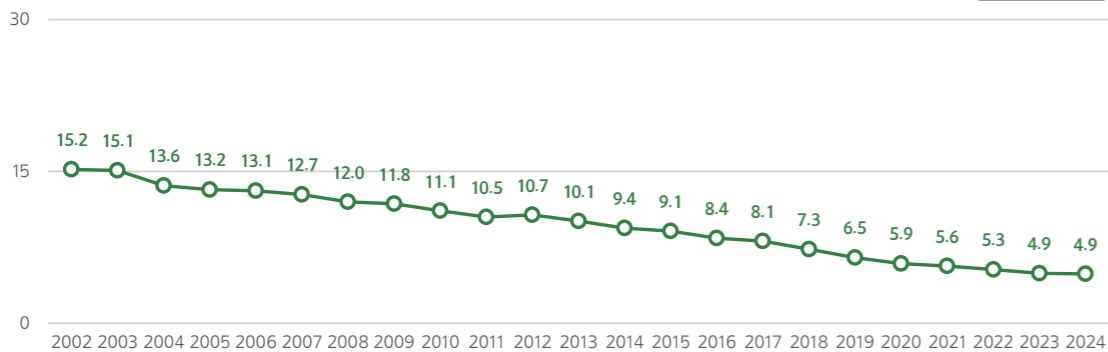
2012~2024년 어린이 및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주 어린이는 12세 이하, 고령자는 65세 이상임.

2002~2024년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주 도로교통사고사망자는 도로의 차량 교통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함(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Child mortality rate from safety accidents

**지표 정의**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측정 방법** (14세 이하 안전사고 사망자 수 ÷ 14세 이하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2024년 10만 명당 2.1명, 전년 대비 0.2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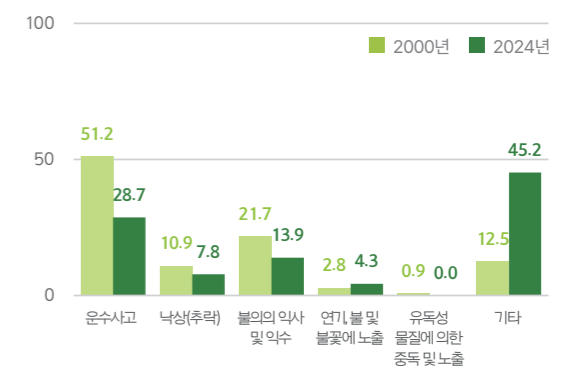
아동은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안전사고(운수사고, 추락, 익사, 질식, 화상, 중독 등)에 노출되기 더 쉽다.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사회의 안전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지와 함께 취약계층인 아동들이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14세 이하 아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4년 115명으로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해 왔으며, 14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역시 2023년 2.3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감소하였다.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아동 인구 10만 명당)은 2002년 12.5명에서 2010년 4.8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3명 미만으로 낮아진 이후 2명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되고 있다.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로 보면 2002년 1,226명에서 2010년 387명으로 1/3 이하로 감소하였고, 2016년부터 200명 미만, 2021년부터는 150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안전사고의 하위항목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운수사고와 익사로 인한 사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다만, 2000년과 비교해보면 운수사고나 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한 반면, 사망의 원인 중에서 기타로 분류된 항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2024년 아동안전사고별 사망 비율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2002~2024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연앙인구」

주 안전사고 범위: 운수사고, 추락, 익사, 질식, 화상, 중독 등 포함(사망의 원인 중 자살과 타살을 제외한 사고사).

#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Perception toward societal safety

**지표 정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 2024년 28.9%, 2022년보다 4.4%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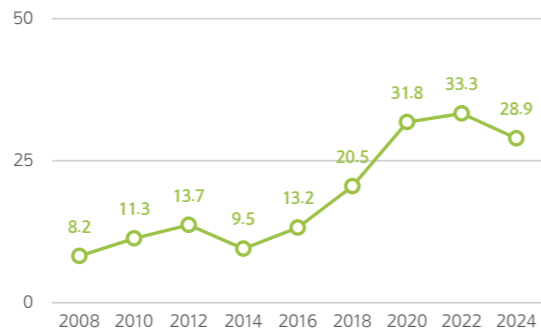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더불어 주관적 지표의 파악이 필요하다. 실제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이 감소하였어도 실제 국민들이 사회에 대해 체감하는 불안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추세 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고 안전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28.9%로, 2022년 33.3%보다 4.4%p 감소하였다.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2008년 8.2%에서 2012년 13.7%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9.5%로 감소하였다. 2014년의 감소는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2016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2020년에 31.8%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24년 다시 28.9%로 감소하였다. 2022년 조사시

점(5월) 이후 발생한 '이태원 참사(2022년 10월)'나 '오송지하차도 참사(2023년 7월)'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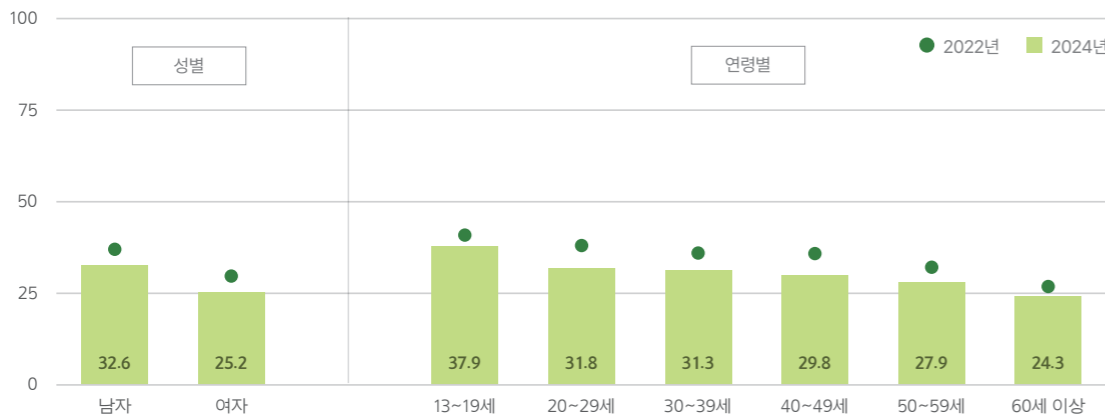
성별로는 남자가 32.6%로 여자(25.2%)보다 7.4%p 높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24.3%로 가장 낮고, 13~19세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계열 변화를 보면 13~19세는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연령별로 다

2008~2024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10년까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2년, 2024년 성·연령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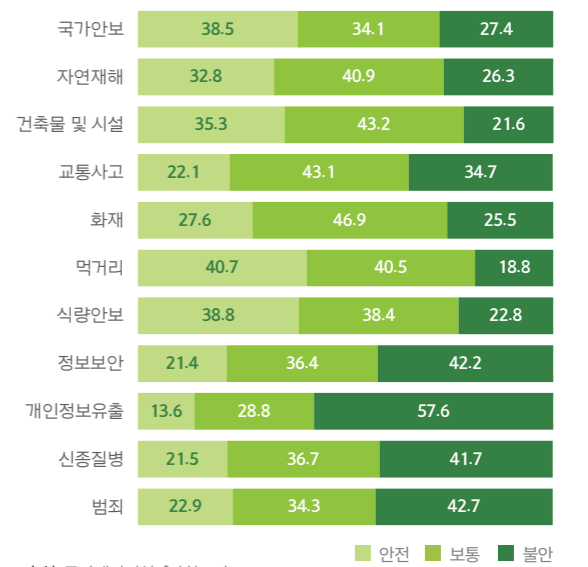
소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2022년과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에서 안전하다는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20대와 40대에서 6%p 이상 감소하였다.

17개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세종 지역에서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38.7%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 서울, 대전, 경남 지역에서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다. 반면, 충북 지역이 22.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대구, 인천, 전남 지역이 25%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인천(-9.2%p), 대전(-8.7%p), 충북(-7.6%p), 울산(-7.2%p) 지역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사회안전이 아닌 구체적인 세부항목별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전하다는 응답은 항목별로 상이하다. 먹거리와 식량안보가 각각 40.7%, 38.8%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가안보도 38.5%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13.6%로 매우 낮았으며, 교통사고, 정보보안, 신종질병, 범죄 등도 안전하다는 비율이 25% 이하로 낮은 편이다. 반면 불안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개인정보유출이 57.6%로 가장 높고, 정보보안,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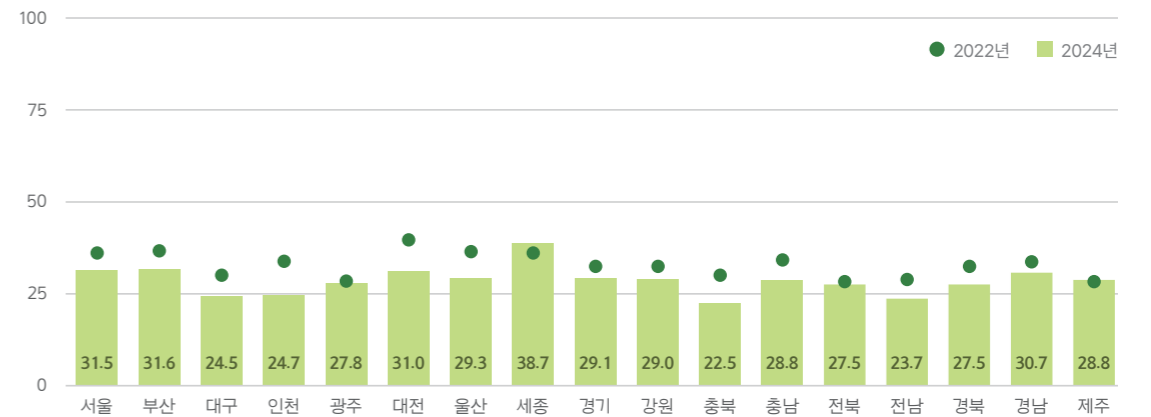
종질병, 범죄 또한 불안하다는 인식이 40% 이상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인식이 6.6%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2024년 세부항목별 안전과 불안에 대한 인식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안전은 '매우 안전'과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며, 불안은 '매우 안전하지 않음'과 '비교적 안전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022년, 2024년 시도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Child abuse rate

**지표 정의**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아동인구 대비 건수

**측정 방법**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례건수(최종 판정 건수) ÷ 18세 미만 추계인구) × 100,000



## 2024년 10만 명당 356.8건, 전년 대비 7.3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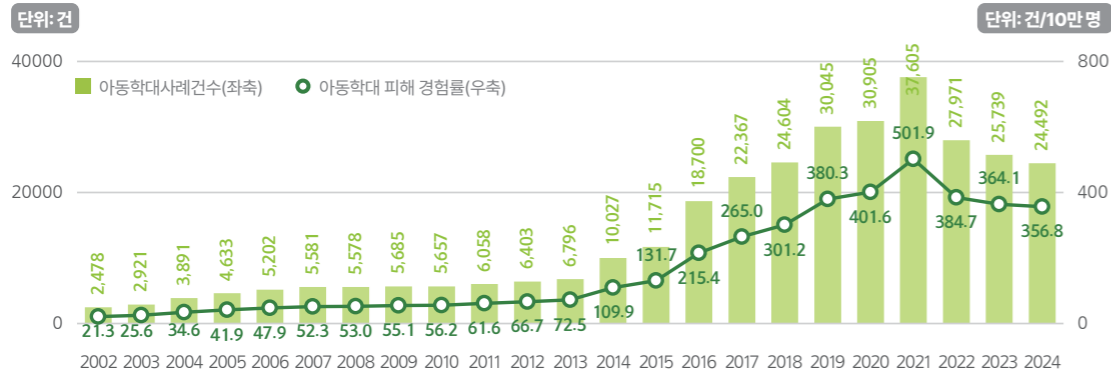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는 아동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물론 그 사회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호받아야 되는 시기인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은 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가정 내에서 학대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의 학대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가정 내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졌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02년 아동 10만 명당 21.3 건이었으나,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401.6건으로 전년 대비 21.3건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501.9건으로 전년 대비 100.3건 증가하였으나 2022년 384.7건, 2023년 364.1건으로 큰 폭의 감소가

이러지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슷해졌다. 2024년에는 10만 명당 356.8건으로 2023년과 비교해서 7.3건 정도 감소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향상과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발생건수 뿐 아니라 신고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2014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제정 강화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과거보다 피해아동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 피해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21년의 급격한 증가는 2020년 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등교중지로 인해 발견되지 못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 등이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고 최종으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전체 변화 추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의 아동학대를 보면 감춰진 사례들이 여전히 많고, 신고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02~2024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2년기준)」  
 주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접수된 신고 중 최종 학대 판단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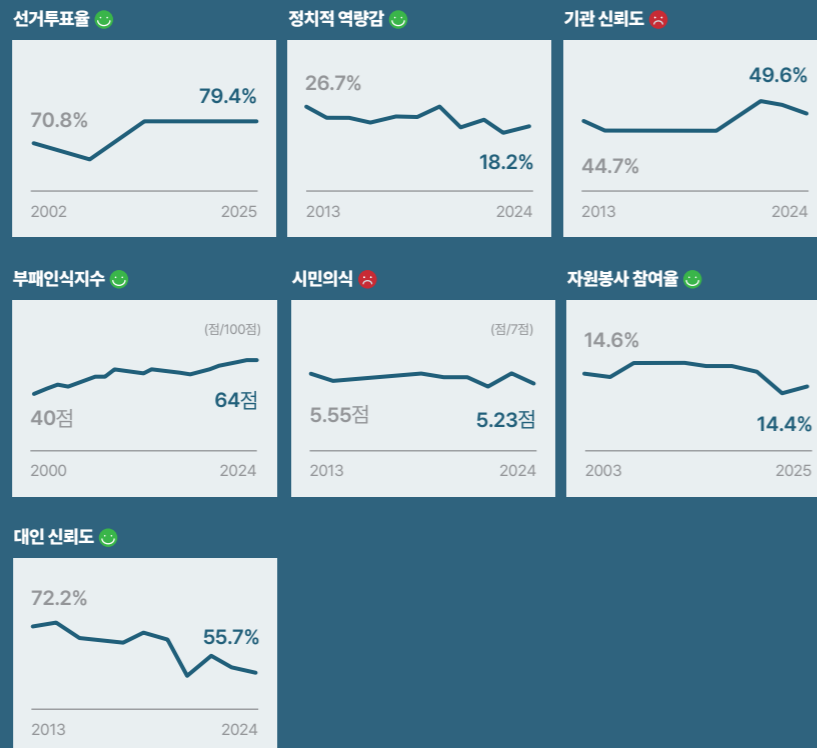


## 시민참여란?

시민참여 영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와 사회, 시민사회의 균형을 보여주는 영역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며, 이는 개인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전반적 발전과 개인의 일상적 영역에서 주관적 및 객관적 차원의 삶의 질로 뿌리내리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시민적 의무와 권리, 정치참여, 신뢰를 포함하였다. 앞의 세 가지는 시민사회가 작동하는 구체적 과정을 드러낼 수 있는 개념이며, 이것이 적절하게 작동한 결과 신뢰가 이루어진다.

## 최근 추세

시민참여 영역의 7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 지표는 5개, 악화 지표 2개이다. 선거투표율은 2025년 개선되었으며, 정치적 역량감 또한 2024년에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다. 2023년에 개선 추세가 정체되었던 부패인식지수는 2024년 64점으로 다시 개선되었다. 대인 신뢰도도 전년 대비 2024년에 개선되었으나, 기관 신뢰도는 코로나 19 시기 급격한 증가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021년 코로나 19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이전만큼 회복하지는 못 하였다. 시민의식은 2024년에 전년 대비 소폭 악화되었다.



## 선거투표율

Voter turnout rate

**지표 정의**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  
**측정 방법** (대통령선거 투표자 수 ÷ 대통령선거 선거인 수) × 100

### 2025년 79.4%, 2022년 대비 2.3%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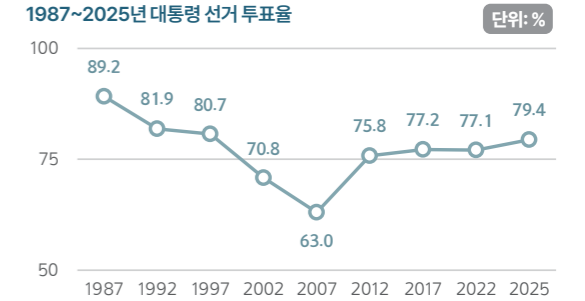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로 대표자의 선출이나 정치적 및 정책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민의의 정치적 반영이다.

정치과정이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표율은 이러한 정치 참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선거투표율은 정치참여의 정도와 함께 민주주의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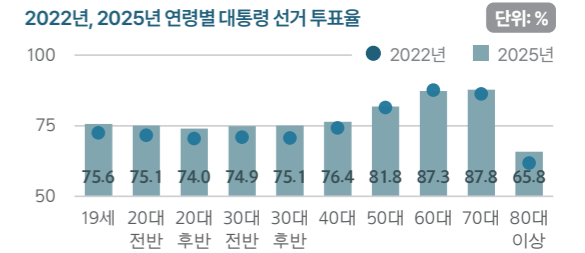
한국은 건국 이후 1990년대까지는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7년 63.0%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2007년 63.0%에서 2017년 77.2%까지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2025년은 79.4%로 2022년 선거보다 2.3%p 증가하였다.

선거 후 실시하는 표본조사 결과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50~70대에서 80% 이상으로 투표율이 가장 높다. 2025년에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투표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과 80대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폭이 3%p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투표율을 보면 광주, 세종, 전북, 전남 지역의 투표율이 82% 이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반면, 제주 지역은 74.6%로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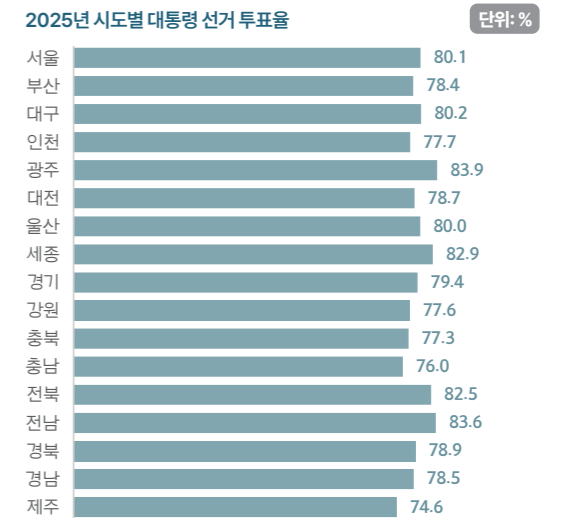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주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 정치적 역량감

Perception of political empowerment



**지표 정의** 스스로 정치적 역량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와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항목에 대해(5점 척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산술평균한 값

## 2024년 18.2%, 전년 대비 0.6%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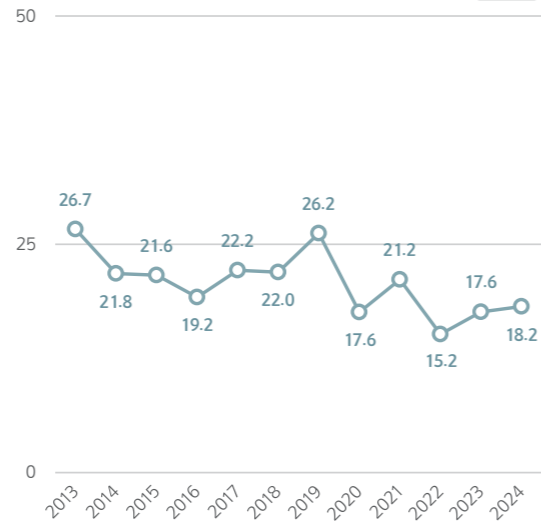
시민이 정치와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정치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정치적 역량감이다. 정치참여는 시민 스스로 정치적 역량감을 가질 때 높아지며, 정치적 역량감은 시민참여의 잠재적 수준을 보여준다.

정치적 역량감은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와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항목으로 측정된다. 각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24년 18.2%로 전년보다 0.6%p 증가하였다. 이 비율은 2013년 26.7%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 17.6%, 2022년 15.2%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소폭 증가하고 있다.

각 항목별로 보면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17.8%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는 18.6%이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2023년 16.9%에서 0.9%p,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는 2023년 18.3%에서 0.3%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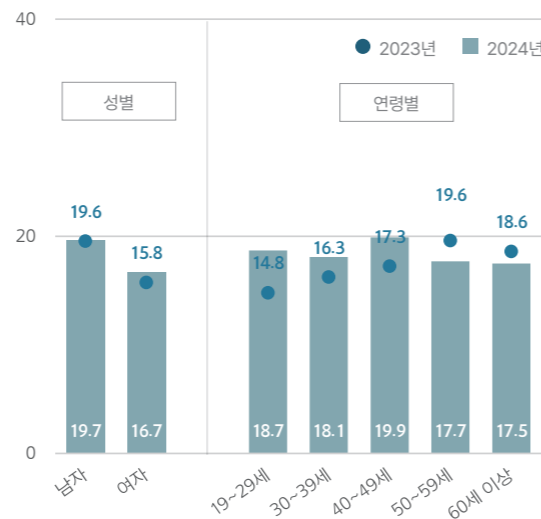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남자가 19.7%로 여자(16.7%)보다 3.0%p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 보면 2024년에는 40대가 19.9%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17.5%로 낮다. 2023년과 비교하면 성별 격차는 줄어들었고, 연령별로 보면 2023년에는 5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2024년에는 50세 미만 연령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인다.

2013~2024년 정치적 역량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세~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3년, 2024년 성·연령별 정치적 역량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기관 신뢰도

Institutional trust



**지표 정의** 주요 기관과 제도에 대해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16개 기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믿는다'와 '약간 믿는다'의 응답 비율을 합산

\* 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TV 방송사, 신문사, 교육계, 의료계, 대기업, 종교계, 금융기관

## 2024년 49.6%, 전년 대비 1.5%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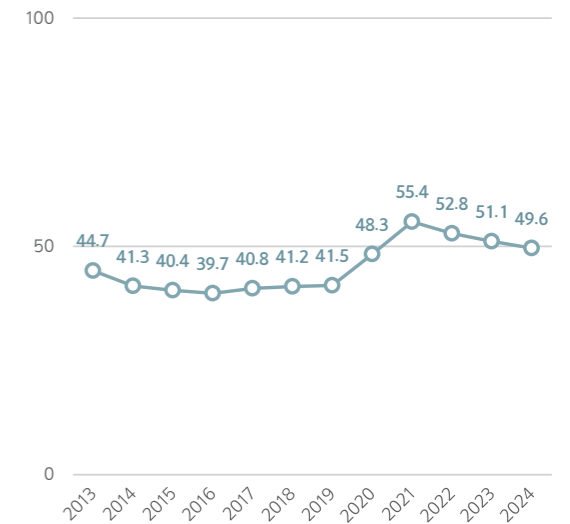
사회의 여러 제도 및 기관들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제도 및 기관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며 또한 국민 전체의 요구나 이해를 잘 대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공적 기관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 기관 및 제도의 정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관 신뢰도는 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TV 방송사, 신문사, 교육계, 의료계, 대기업, 종교계, 금융기관의 16개 기관에 대한 신뢰도로 측정된다.

기관 신뢰도는 2013년 44.7% 이후 감소하여 2019년까지 40% 전후의 수준을 보였다. 이후, 2020년에 48.3%, 2021년에는 55.4%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2024년에는 49.6%이다. 2020년과 2021년의 증가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부대응 방침 등 긍정적인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부기관별로 신뢰도를 보면 교육계가 65.2%로 신뢰도가 가장 높고, 의료계와 금융기관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26.0%로 가장 낮다. 특히 국회의 경우 다른 기관들이 대부분 5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최근 2년 동안 소폭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2024년 의료계(-10.6%p)와 중앙정부부처(-9.8%p)의 경우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노동조합(+5.1%p)과 종교계(+4.1%p)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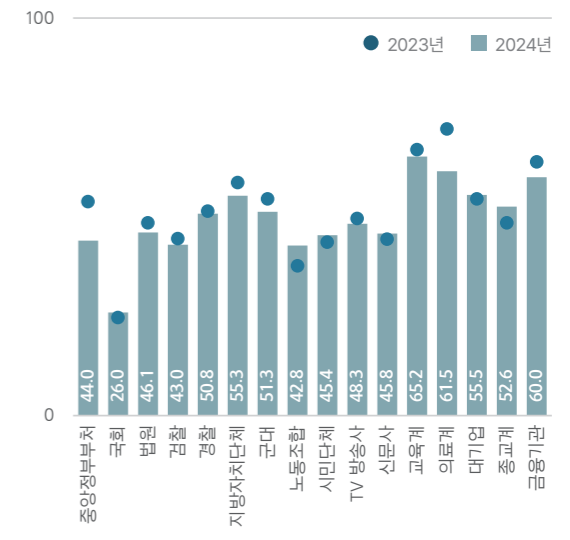
기관 신뢰도는 농어촌(읍면부)지역에서 51.6%로 도시(동부)지역(49.2%)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47.7%로 가장 낮고, 60세 이상에서 51.6%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편이다. 성별로는 남자 49.3%, 여자 49.9%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2013~2024년 기관 신뢰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세~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3년, 2024년 기관별 신뢰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지표 정의**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지수

**측정 방법**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국가분석 전문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0~100점으로 산출한 부패 인식 지표(점수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음)



## 2024년 64점, 180개국 중 30위

정부의 부패 정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을 주로 활용한다. 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은 정부가 얼마나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여 공평무사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청렴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운영과 성과도 좋아진다. UN에서 발간되는 세계행복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6개 요인 중 하나로 '부패'가 포함되는 만큼 사회의 부패 정도는 삶의 질과 관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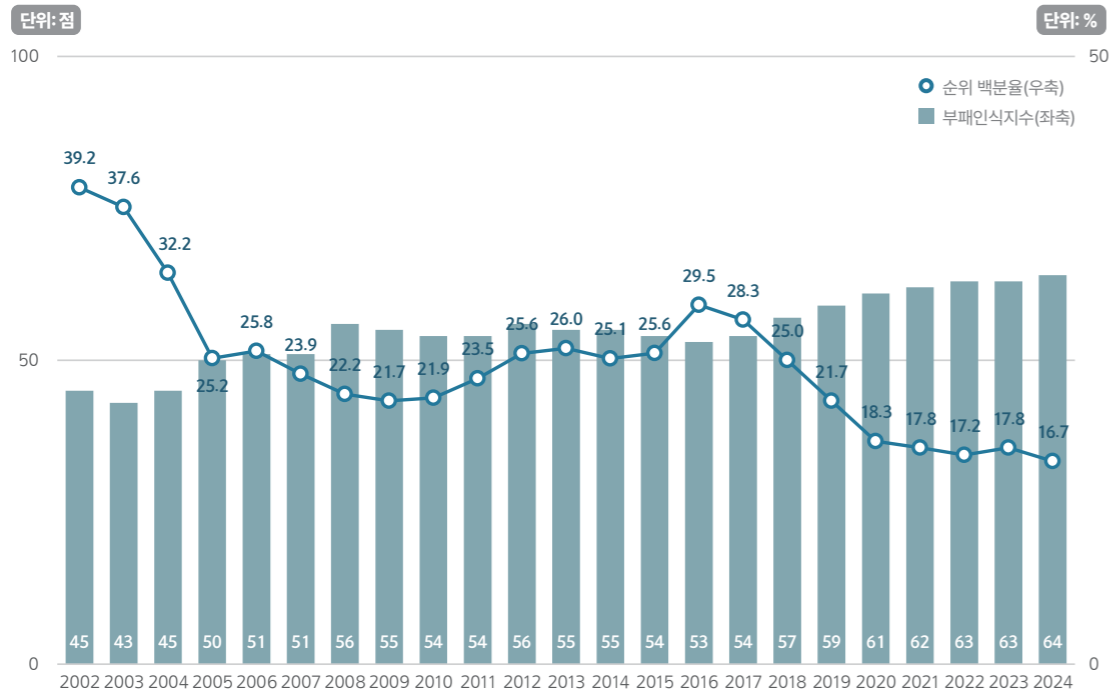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995년부터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의 국가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국 공공부문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작성하는 지표이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즉 청렴도는 2002년 10점 만점 중 4.5점에서 점차 높아져 2008년 5.6점을 전후로 하여 개선이 정체되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패인식지수는 2012년부터 10점 척도에서 100점 척도로 변경되어 작성되어 2024년 부패인식지수는 64점으로 작년 63점에서 1점 상승했다.

2024년에는 180개국 중 30위로 2023년(32위/180개국)

## 2002~2024년 부패인식지수



출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4

주 ① 2012년 이후부터 10점 척도에서 100점 척도로 변경되었으며, 비교를 위해 2012년 이전 값은 100점 척도로 환산함.

② 순위 백분율은 조사대상국가를 연도별로 통일했을 때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냄.

보다 순위는 두 계단 상승하였다. 2016년 52위에서 2020년 33위로 상승한 이후 최근까지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 부패인식지수와 순위 모두 개선 추세에서 최근 정체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절반 가량 국가(16개국)들의 부패인식지수가 70점 이상으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여, 아직도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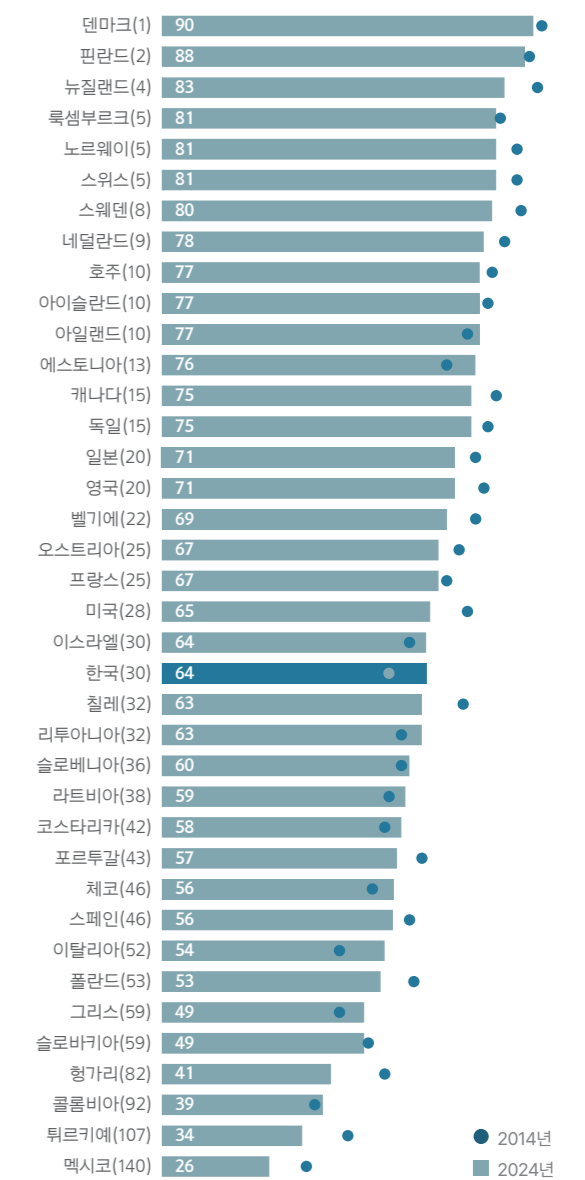
부패인식지수는 최근에는 180개 국가 대상이지만 2017년 이전에는 연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세계 순위를 살피는 것보다는 전체 조사대상국 중 세계 순위의 백분율을 알아보는 것이 유용하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2002년 상위 46.2%에서 2009년 상위 21.7%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된 후 25% 전후에서 등락을 보였다. 2016년 29.5%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16.7%로 2020년부터 부패인식지수의 국가별 순위가 상위 20% 이내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부패인식지수는 2024년 덴마크가 1위로 90점이며, 그 다음으로 핀란드가 8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OECD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54점), 그리스(49점), 멕시코(26점) 등 8개국이 55점 미만으로 50위권 밖에 있다.

10위권 이내에 포함된 상위권 국가들의 경우 2014년에도 80점 이상으로 상위권이었으나, 2014년보다 부패인식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2014년 91점에서 2024년 83점으로, 스웨덴은 2014년 87점에서 2024년 80점으로 감소하였다. 2014년 대비 전반적으로 부패인식지수가 감소한 나라가 많은 가운데, 우리나라와 함께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2014년 대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2014년, 2024년 OECD 국가의 부패인식지수



출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4

주 괄호 안 숫자는 2024년 기준 180개 국가 중 순위임.

###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조사하는 자료로 월드뱅크 등 13개 국제기관의 국가분석전문가들에게 각 국가별로 공공부문 부패 정도에 대해 조사. 주요 질문 내용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정부예산 배정과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설명할 수 없는 특수공무비용이 존재하는가?", "공공재원에 대해 감사하는 독립기구가 존재하는가?", "부정부패에 대해 고발한 내부 고발자, 언론인 등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 등이 있음.

# 시민의식

Citizenship

**지표 정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책무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개인의 의무와 관련된 8개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7점 척도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



## 2024년 5.23점, 전년 대비 0.08점 감소

시민성은 한편에서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거나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하는 시민권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나 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 정도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사회의 질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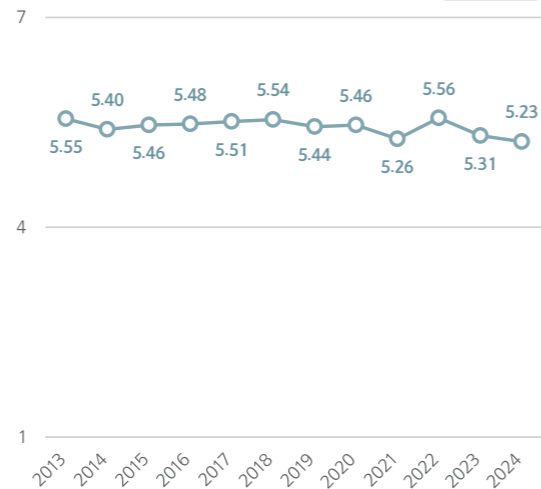
시민의식은 시민의 의무와 덕목을 보여주는 8개 항목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로 측정되며,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②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③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④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⑤ 사회 또는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⑥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⑦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⑧ 국가 위기 시 끼이 군복무 한다.

시민의식은 2024년 5.23점(7점 척도)으로 나타나 2023년 5.31점에 비해 감소하였다. 2013년 5.55점에서 2021년 5.26점으로 감소하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투표 참여', '세금 납부'와 '법, 규칙 준수'가 5.7점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사회, 정치단체 활동'은 4.6점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항목에서 중요도가 감소하였으나 '사회, 정치단체 활동'은 0.2점 증가했고 '윤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상품 선택'이 전년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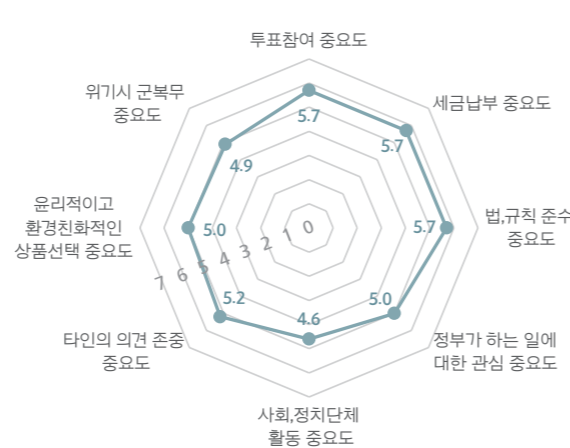
성별로는 남자가 5.23점, 여자가 5.24점으로 거의 비슷하며, 연령별로는 19~29세의 시민의식은 5.10점으로 나타난 반면, 50대는 5.33점으로 높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2013~2024년 시민의식 단위: 점/7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세~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4년 항목별 시민의식 단위: 점/7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자원봉사 참여율

Voluntary work participation rate

**지표 정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 2025년 14.4%, 2023년보다 3.8%p 증가

자원봉사는 정부의 강제나 시장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는 이타주의의 발현이다. 자원봉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을 주어 시민의식과 공공선이 고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면 사회적 결속과 유대가 높아지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며, 이는 다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을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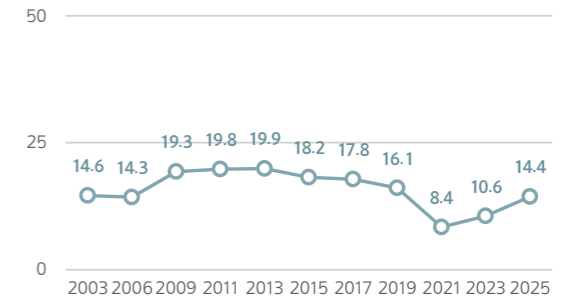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된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3년 14.6%에서 2009년 19.3%로 증가한 후 18~19% 수준을 유지하다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였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 간의 모임이나 방문 등이 제한됨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율이 8.4%로 2019년 16.1%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하였다. 이후 2025년 14.4%까지 증가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만큼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참여 횟수를 보면 2025년 8.3회로 2023년(9.3회)보다 감소했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2025년 기준 남자 13.7%, 여자 15.0%로 여자가 약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큰 편이다. 13~19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67.1%인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 10% 내외의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 20세 이상에서는 50대(14.0%)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13~19세의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50대도 학령인구의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연령대이다.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졸업 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활동이 자발성에 의한 것보다는 교과과정이나 내신성

적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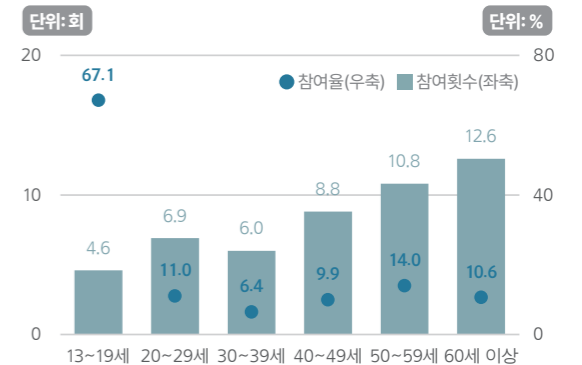
자원봉사 참여인구 1인당 평균 참여횟수는 13~19세에서 4.6회로 가장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참여횟수가 증가한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참여 횟수는 12.6회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기적인 활동이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2003~202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25년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과 참여횟수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참여횟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인구 1인당 평균 참여횟수임.

# 대인 신뢰도

Interpersonal trust

**지표 정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

**측정 방법**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2024년 55.7%, 전년 대비 3.0%p 증가

대인 신뢰도는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로 측정한다.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회적 유대와 결속의 범위가 좁아진다. 뿐만 아니라 서로 불신하는 집단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거나 불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본이 증대하며 사회적 유대 또한 돈독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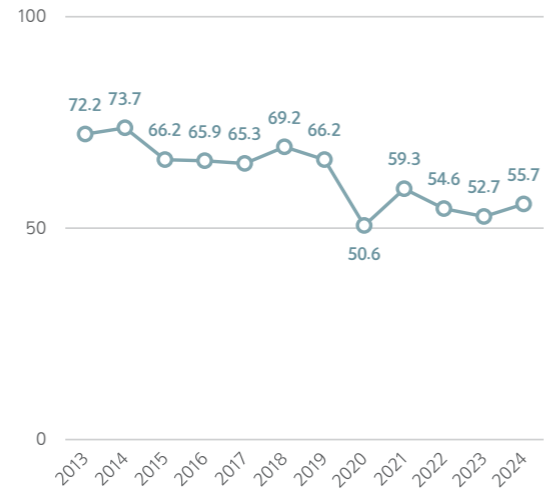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 정도를 보여주는 대인 신뢰도는 2014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대인 신뢰도는 2014년 73.7%에서 2017년 65.3%까지 떨어진 이후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20년 50.6%로 급격히 감소(전년 대비 -15.6%p)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으로 개인들 간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타인으로부터 전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대인 신뢰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이어졌지만 대인 신뢰도는 59.3%로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을 보여준다. 2024년에는 55.7%로 전년 대비 3.0%p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는 차이를 보인다.

성별로는 대인 신뢰도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지만, 지역별로는 농어촌(읍면)지역의 대인 신뢰도가 62.9%로 도시(동부)지역의 54.1%보다 더 높다.

연령별로 보면 19~29세의 대인 신뢰도가 53.3%로 가장 낮고, 40대 이상에서는 56%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에서 증가했으나 30대 이하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19~29세는 전년 대비 6.6%p, 30~39세는 6.5%p 증가하였다.

2013~2024년 대인 신뢰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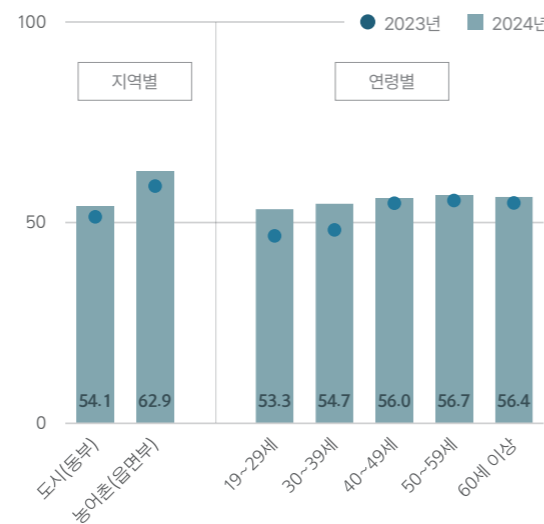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세~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3년, 2024년 지역·연령별 대인 신뢰도

단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 주관적 웰빙이란?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 특히 개인 수준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객관적인 지표들이 삶의 질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객관적인 조건들의 합은 개인이 느끼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 측정에 있어 주관적인 지표는 객관적인 측정치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포섭하지 못하는 삶의 측면들을 담아주는 중요한 보완적인 측정 장치이면서 객관적 측정이 주관적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주관적 웰빙의 측정은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 인지적 요인은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개인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잣대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 전체 혹은 영역별 만족감을 평가한다. 정서적 요인은 일상의 정서적 경험으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로 측정한다.

## 최근 추세

주관적 웰빙 영역에 포함되는 3개 지표의 전년 대비 최근 추세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동일, 긍정정서는 개선된 반면, 부정정서는 전년 대비 악화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2020년 6.0점에서 2022년 6.5점까지 증가한 이후 정체되어 있으며, 긍정정서도 최근 정체 추세이긴 하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부정정서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 4.0점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 3.1점으로 개선되었으나 2024년에 3.8점으로 다시 악화되었다.



#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지표 정의** 현재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

**측정 방법**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



## 2024년 6.4점, 전년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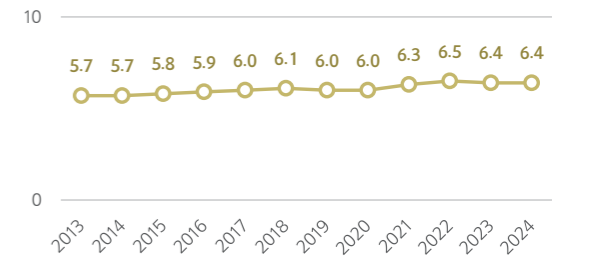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인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 간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삶의 질은 다차원적이고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4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2013년 5.7점에서 2017년 6.0점으로 증가한 이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다, 2022년 6.5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계속 정체되어 있으나 2020년 이전 추세보다는 높은 편이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서의 전반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삶의 만족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남녀 모두 6.4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고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6.3점으로 낮고, 50대 이하에서는 6.4~6.6점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2023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30대와

2013~2024년 삶의 만족도

단위: 점/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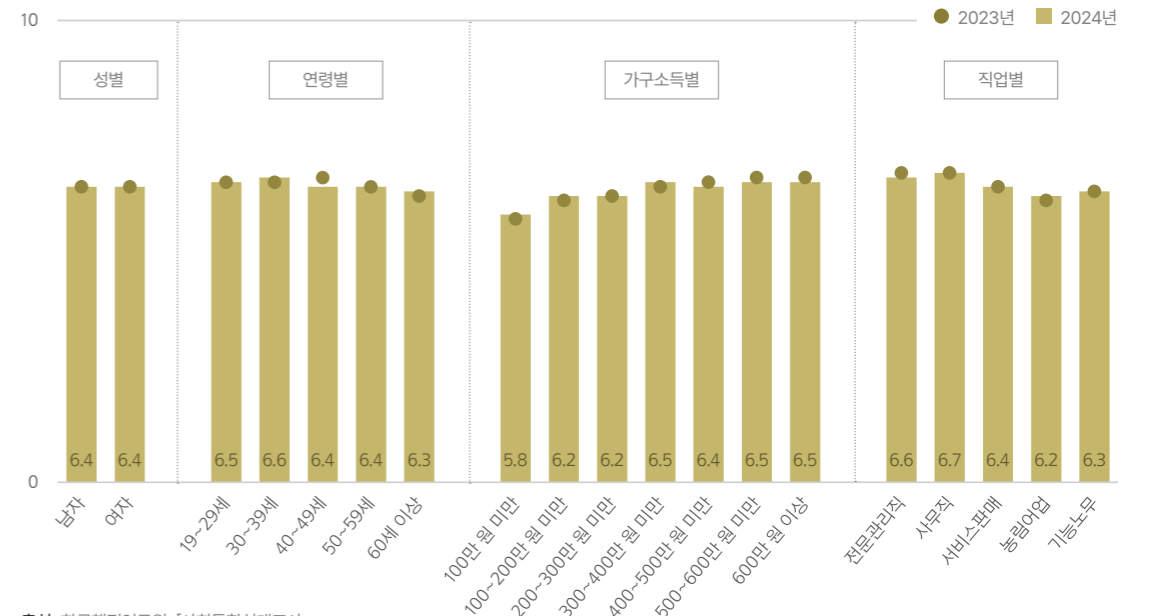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세~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3년, 2024년 성·연령·가구소득·직업별 삶의 만족도

단위: 점/10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긍정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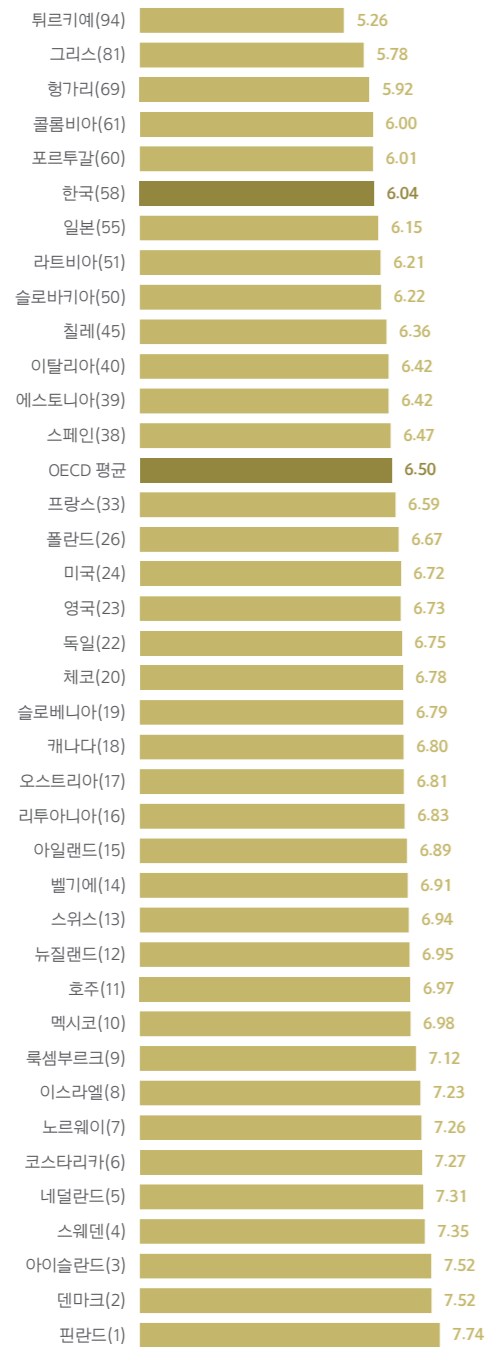


Positive emotions

**지표 정의**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정서(행복)를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것  
**측정 방법**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

## 2022~2024년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

단위: 점/10점



출처 SDSN, World Happiness Report 2025  
 주 ① 2022~2024년 세 개연도의 평균값임.  
 ② 삶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0~10점 척도 평균 점수임.  
 ③ 괄호 안의 숫자는 147개 국가 중의 순위를 나타냄.

60세 이상에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 반면, 40대에서는 감소했다.

소득수준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100만 원과 300만 원을 전후하여 차이가 나타난다. 다.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8점인데 비해, 100~300만 원 미만에서는 6.2점으로 0.4점 더 높으며, 300만 원 이상은 6.4~6.5점이다. 다만 전년에 비해 소득수준 간 삶의 만족도 격차가 소폭이지만 좁혀졌다.

직업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모두 6.6점 이상인 데 비해, 농림어업은 6.2점, 기능노무직은 6.3점으로 낮다. 하지만 전년 대비 전문관리직의 삶의 만족도가 소폭이지만 감소한 반면 농림어업에서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모든 집단에서 대부분 삶의 만족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0.1점 정도 등락한 반면, 40대에서 0.2점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컸다. 또한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집단, 농림어업직에서 2023년 대비 0.1점 증가하여 격차는 조금이지만 감소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인 삶의 질 측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며,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는 삶의 만족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갤럽월드폴 조사가 매년 진행되지 않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단년도 자료가 아닌 3개년도의 평균값으로 국제비교를 제시한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2022~2024년에 6.04점으로 OECD 평균(6.50점)보다 0.46점 낮아 하위권이다. 포르투갈, 콜롬비아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147개 국가 중에서는 58위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튀르키예, 그리스, 헝가리 세 국가만 6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반면, 핀란드는 7.74점으로 가장 높고,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7.5점 이상, 스웨덴, 네덜란드가 7.3점 이상이다. 20위권 이내의 상위권 국가는 모두 OECD 회원국이다.

## 2024년 6.8점, 전년보다 0.1점 증가

긍정정서는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여기에서는 긍정정서 중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어제 얼마나 자주 '행복'했는지로 측정된다.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긍정정서는 2024년 6.8점으로 2021년 이후 정체되어 있다가 소폭 상승했다. '삶의 만족도' 지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긍정정서는 2014년 6.2점에서 2018년까지 매년 소폭 증가한 이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2021년 증가한 이후 코로나19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긍정정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6.8점으로 동일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6.6점으로 가장 낮고, 40대 이하에서 7.0점으로 젊은 층에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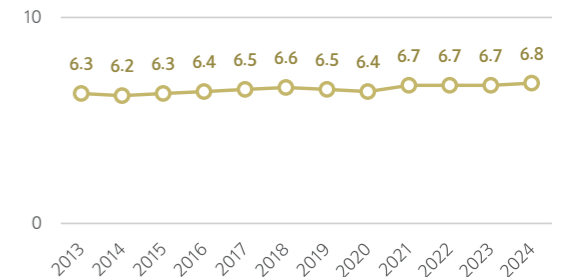
가구소득별로 비교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정서가 더 높아 600만 원 이상인 경우 7.0점, 3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6.8점 이상으로 높다. 반면 100만 원 미만 집단은 6.0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0.8점 낮고, 100~300만 원 미만도 6.5점으로 낮은 편이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100만 원 미만인 집단에서 감소해서 소득수준별 격차가 더 커졌다.

직업별로 보면 사무직에서 긍정정서가 7.1점으로 높은 반면, 다른 직업에서 6.7~6.8점으로 직업별로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긍정정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0.1점 정도 등락한 반면, 40세 이상과 전문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에서 긍정정서의 증가폭이 0.2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2013~2024년 긍정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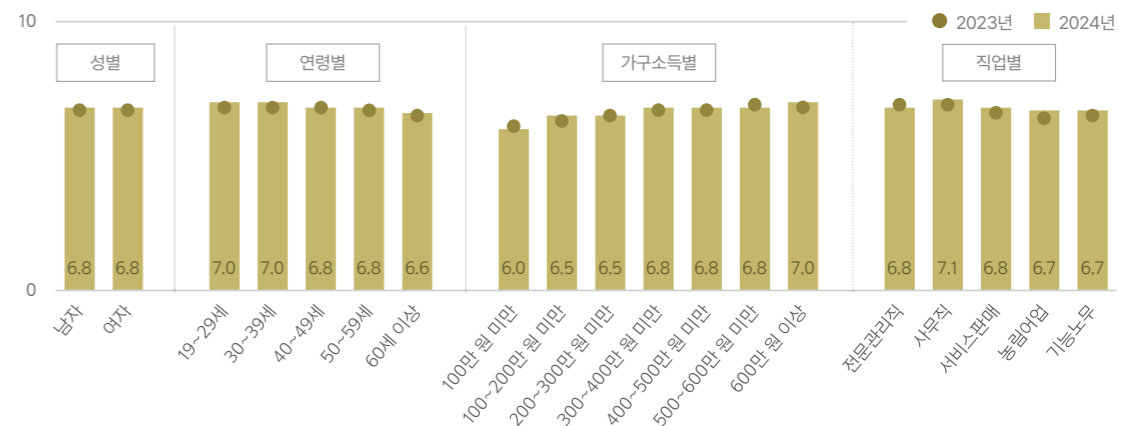
단위: 점/10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인 19세~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 2023년, 2024년 성·연령·소득수준·직업별 긍정정서

단위: 점/10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부정정서

Negative emotions



**지표 정의**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정정서(걱정, 우울감)를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것

**측정 방법** 어제 얼마나 걱정, 우울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 (걱정 평균점수 + 우울감 평균점수) ÷ 2

## 2024년 3.8점, 전년 대비 0.7점 증가

부정정서는 주관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어제 얼마나 자주 '걱정'했는지와 '우울감'을 느꼈는지를 측정된다.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하나의 수치로 다루지 않고, 각각을 나누어 보는 것은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는 양극단에 위치하는 반대의 개념이 아닌 두 지표가 서로 다른 내용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얼마나 '걱정(4.1점)'과 '우울감(3.5점)'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부정정서는 2024년 3.8점으로 2023년보다 0.7점 증가하였다. 2022년부터 감소 추세였으나 2024년에 다시 증가하여 코로나19 시기와 비슷해졌다.

성별에 따른 부정정서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연령별로 보면 2024년에는 60세 이상에서 4.0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19~29세에서는 3.6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정서가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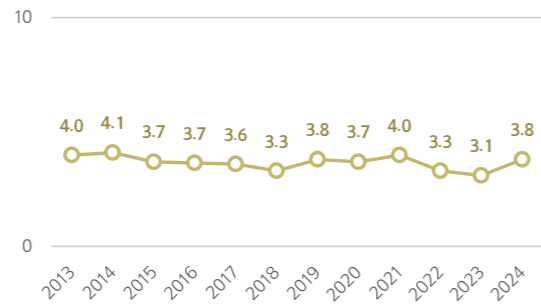
소득수준별로 보면 2023년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정정서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2024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어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4.2점으로 높고,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에서 3.7점 이

하로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비교해보면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부정정서가 3.8점으로 가장 낮고, 농림어업직에서 4.3점으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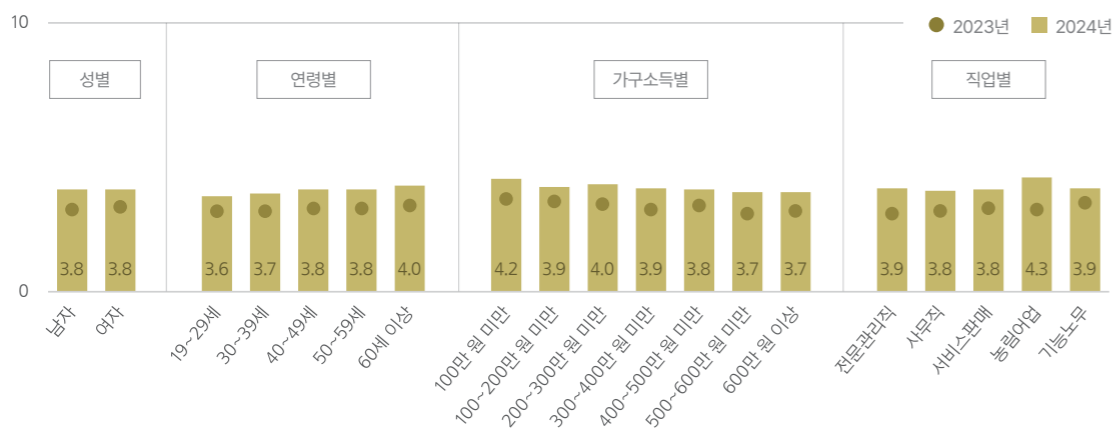
2023년과 비교해보면, 모든 집단에서 부정정서가 0.6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전문관리직과 농림어업직에서 1.0점 이상 증가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증가폭이 1.5배 이상 크다.

2013~2024년 부정정서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세~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023년, 2024년 성·연령·소득수준·직업별 부정정서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PART 3

## 이슈 분석

01 주관지표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과 유형화

---

02 행복의 참값(true value) 찾기: 실험조사의 함의

# 01 주관지표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과 유형화<sup>1)</sup>

권다운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1. 서론

삶의 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 지표체계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여러 연구기관과 지자체, 개인 연구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라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할 때 지역 단위에서 삶의 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는 지역 단위에서 삶의 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법적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89개 시군구 지역을 포함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변화에 대한 정량적 진단과 정책적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지정의 근거가 주로 인구통계학적 지표에 집중되어 있어 복합적인 삶의 질 영역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은 정책적으로 하나의 범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 경제기반, 생활 인프라,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 대상 집단 내부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주관적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함으로써, 향후 지역별 특성과 단계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정책 설계와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실증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을 주관지표 기반 지역 유형화라는 새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주관적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함으로써, 향후 지역별 특성과 단계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정책 설계와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실증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을 주관지표 기반 지역 유형화라는 새로운 접근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구, 경제, 산업 등 객관지표가 포착하지 못한 주관적인 삶의 질에 주목하고자 한다.

## 2. 주관지표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본격화되었다. 행정

<sup>1)</sup> 본고는 권다운, 황선재. (2025).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 현황과 유형화: 지역사회조사, 주관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8(4), 85-108. 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안전부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18개 지역을 인구 ‘관심’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되어 지역별 맞춤형 인구 활력 사업에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지정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계획을 제출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모방형 사업’이 반복되고 있고(이민주 외, 2023), 인구감소 대응이 여전히 단기적 인구 유입이나 출산장려금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기적 관점의 지역 적응(adaptation) 전략으로의 전환이 미흡하다는 점이다(김한나 외, 2020). 또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추세가 완화되지 않아,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형석·김승희, 2024).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민보경, 2025; 이민주 외, 2023; 정주원·이아라, 2022; 제현정 2019).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인구 규모, 고령화율, 산업구조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회적 관계, 공동체 신뢰 등 주관적 삶의 질 요인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인구감소는 단순히 인구 규모의 축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 약화, 고립, 생활만족도 저하 등 복합적인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내적 다양성과 삶의 질 구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 3. 분석방법

###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군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삶의 질 구조와 지역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3~24년 지역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사회조사는 전국 17개 시·도가 작성하는 지역 단위 사회조사이다. 조사는 시·도 내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도별로 공통문항과 지역 특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홀수 연도와 짝

표 1 인구감소지역 현황

시도	시군구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대구(3)	군위군, 남구, 서구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b>합계</b>	<b>89개</b>

수 연도에 조사항목이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2023년과 2024년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sup>2</sup>

분석 대상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로, 인구감소지역의 시도별 목록은 표 1과 같다.

### 변수 및 분석방법

주요 변수는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분류체계에 따라 총 10개 영역 7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총 10개 영역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문항 특성에 따라 4점, 5점, 또는 10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 간 규모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평균 0, 표준편차 1이 되도록 표준화(z-score 변환)하였다. 엘보우<sup>Elbow</sup> 기법과 실루엣<sup>Silhouette</sup> 계수를 기반으로 최적군집수(k=3)를 결정하였다. K-평균 군집분석<sup>K-means clustering</sup>과 주성분분석<sup>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sup>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유형화하고 10개 영역 간 구조적 상관관계를 축약하고, 군집의 분포와 특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 표 2 지역사회조사 주관지표 공통항목

영역	지표	비고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생활 만족, 행복, 걱정(-)	홀수년도
소득	소득만족도,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홀수년도
인프라	주거환경 만족도, 기반시설 만족도, 교통수단 만족도, 지역(시도 및 시군구) 정주 의사	홀수년도
일자리	일자리 충분도, 일자리 만족도	홀수년도
교육	보육환경 만족도, 공교육환경 만족도, (공교육 외) 교육기회 충분도, 평생교육충분도	홀수년도
문화·여가	문화 여가 시설 만족도,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시간 사용 압박감(평일, 주말)(-)	홀수년도
건강	의료기관 만족도	짝수년도
사회통합	일반인에 대한 신뢰, 사회적 지원, 공동체 의식(잘 알고 지내는 편, 동네 일에 대해 이야기, 서로 도움, 모임에 참석),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임신출산육아 복지, 취약계층복지) 만족도	짝수년도
안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혼자 집에 있을 때, 혼자 골목길 걸을 때)(-), 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자연재해, 건축물, 교통사고, 화재, 먹거리, 정보보안, 감염병, 범죄위험, 전반적인 안전 평가)	짝수년도
환경	환경 체감도(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짝수년도

주: 값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의미를 갖는 지표는 (-) 표시함

## 4. 분석결과

###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

표 3은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과 전국(229개 시군구)의 삶의 질을 영역별로 비교한 기초통계량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평균 6.454점으로 전국 평균인 6.393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생활 만족도와 행복도 역시 각각 6.340점, 6.348점으로 전체 지역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걱정 정도는 4.157

<sup>2</sup> 경상북도는 2024년도 자료 미공개로, 예외적으로 2022년도(짝수년도) 자료를 분석하였음.

표 3 인구감소지역과 전국 평균 영역별 삶의 질 기초통계량

영역	조사항목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전국 평균 (229개 시군구)	Min	Max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6.454(0.384)	6.393(0.422)	0	10
	생활만족도	6.340(0.402)	6.048(0.991)	0	10
	행복감	6.348(0.356)	6.320(0.326)	0	10
	걱정 (-)	4.157(0.436)	4.341(0.433)	0	10
소득/소비/자산	소득만족도	2.868(0.140)	2.916(0.241)	1	5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 (-)	2.223(0.225)	2.260(0.202)	1	4
주거/교통	주거환경 만족도	3.388(0.679)	3.445(0.522)	1	5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3.452(0.199)	3.523(0.198)	1	5
	주거지역 내 주차장 이용	3.401(0.224)	3.326(0.248)	1	5
	시내버스, 기차 등 모든 교통수단 만족도 평균	3.457(0.452)	3.445(0.400)	1	5
	지역 정주 의사(시도)	4.069(0.475)	3.811(0.600)	1	5
노동	지역 정주 의사(시군구)	4.047(0.440)	3.761(0.550)	1	5
	일자리 충분도	2.705(0.215)	2.721(0.251)	1	5
	전반적인 만족도	3.335(0.156)	3.345(0.144)	1	5
교육	보육환경 만족	3.400(0.350)	3.393(0.278)	1	5
	공교육 환경 만족	3.053(0.211)	3.137(0.235)	1	5
	학교 교육 이외 교육기회 충분도	2.638(0.249)	2.833(0.337)	1	5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	2.913(0.237)	2.978(0.337)	1	5
문화/여가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2.790(0.148)	2.920(0.273)	1	5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2.807(0.137)	2.903(0.200)	1	5
	시간 사용 압박(평일) (-)	2.312(0.141)	2.455(0.189)	1	4
	시간 사용 압박감(주말) (-)	2.220(0.170)	2.322(0.192)	1	4
건강	의료기관 만족도	3.497(0.231)	3.596(0.232)	1	5
	일반인에 대한 신뢰	2.321(0.145)	2.255(0.166)	1	5
사회통합	사회적 지원	0.910(0.058)	0.914(0.283)	0	1
	공동체 의식	3.282(0.321)	2.842(0.458)	1	5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	3.431(0.238)	3.337(0.277)	1	5
안전	자연재해, 건축물, 교통사고, 화재, 먹거리, 정보보안, 범죄위험 등 영역별 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	3.405(0.181)	3.308(0.211)	1	5
환경	대기, 수질,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각 영역별 체감도 평균	3.659(0.262)	3.435(0.320)	1	5

주: \*p<.05, \*\*p<.01, \*\*\*p<.001

점으로 전국 평균(4.341점)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나타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질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부 영역별로 보면, 소득·소비 영역의 만족도는 인구감소지역(2.868점)이 전체 지역(2.916점)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주거 영역의 주택 만족도(3.388점), 기반시설 만족도(3.452점), 주차장 이용 만족도(3.401점) 등은 전체 지역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통 영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전체 평균(3.445점)과 비교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약간 높은 3.457점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 단위 거주방향 역시 높은 수준(4.047점)을 보여 지역 정주 의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노동 영역에서는 일자리 충분도(2.705점)와 직장 만족도(3.335점)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보육환경 만족도(3.4점)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교육 영역에서는 학교 교육 외 교육기회 충분도(2.638점)와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2.913점)가 모두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문화시설 만족도(2.79점), 여가활동 만족도(2.807점), 시간사용 만족도(평일 2.312점, 주말 2.22점)가 낮게 나타나 문화·여가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준다.

건강 영역의 의료기관 만족도는 3.497점으로 전체 지역(3.596점)보다 다소 낮았으나,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2.321점), 사회적 지원(0.91점), 공동체 의식(3.282점),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3.431점)가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안전(3.405점)과 환경(3.659점) 영역은 모두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인구감소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인구감소지역은 경제·문화·일자리 영역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나, 안전·환경·정주 의향 등 생활기반 및 환경적 만족도는 전체 지역과 비교해 낮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 3**의 결과는 기초통계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지역 만족도가 낮은 개인일수록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선택 편(selection bias)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대체로 고령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고령 인구일수록 대안적 선택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한, 장기간 거주를 통해 형성된 생활 관성, 익숙한 환경에 대한 선호 등에 의해 주관적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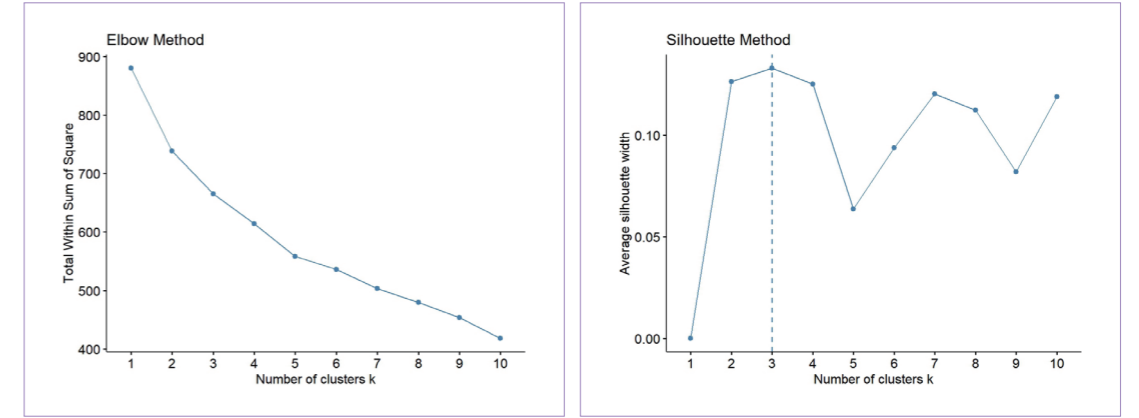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반드시 낮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인구, 산업 등 객관지표의 수준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주관지표의 수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지표는 지역의 경제활동 규모나 인구 유출 속도와 같은 구조적 특성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주민의 생활만족도나 사회적 관계, 정주 의향과 같은 주관적 삶의 질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정책은 단순히 ‘인구감소 = 삶의 질 저하’라는 단순 도식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내부의 다양성과 삶의 질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 공동체 결속, 환경, 복지 접근성 등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비경제적 요인을 통해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정책이 인구 유입, 산업유치 등 양적 성장에서 더 나아가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주관지표에 기반한 지역 삶의 질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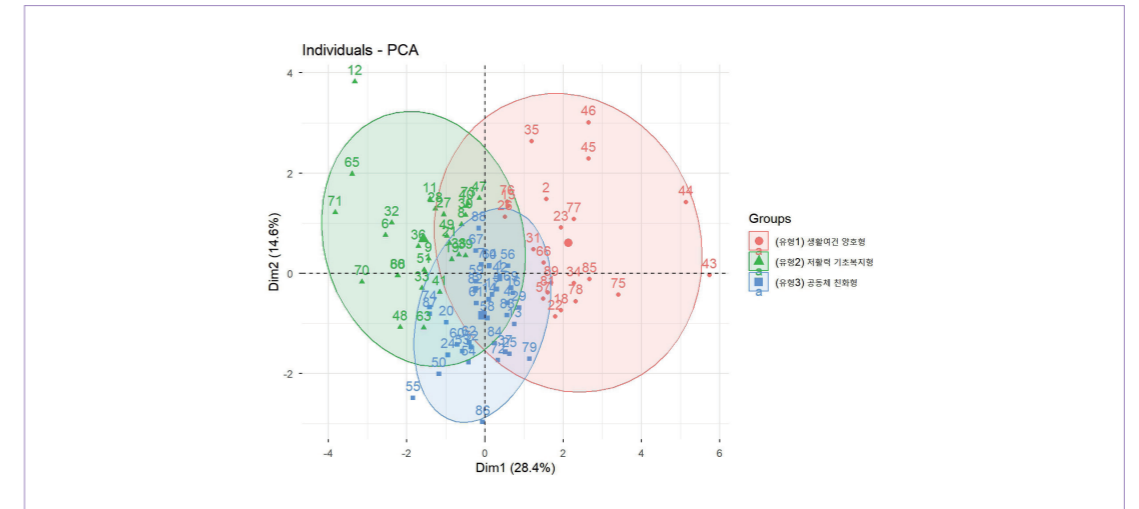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들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까?

**그림 1**은 최적 군집수 도출을 위한 엘보우(Elbow) 기법과 실루엣(Silhouette) 계수를 보여준다. 인구감소지역 유형화의 최적 군집 수는 k=3으로 도출되었다. 엘보우 기법에서의 최적 군집 수는 감소율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구조적 전환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루엣 분석결과에서도 군집 수가 3일 때 평균 실루엣 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군집 내 응집도가 높고 군집 간 분리도 역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엘보우 기법을 활용한 최적의 K 도출(좌)과 실루엣 분석 결과(우)



**그림 2** 주성분분석 결과



이에 따라 세 개의 군집을 기반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실시하고, 유형별 상대적 분포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PCA 요인분석 결과, 제1 주성분(PC1)은 소득, 인프라, 일자리, 의료서비스 만족도 등 경제적·생활기반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축으로 해석된다.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물질 자원이 풍부한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제2 주성분(PC2)은 위쪽(+)으로 갈수록 교육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사회통합, 문화·여가, 환경 만족도가 높아 사회·문화적 자원 축으로 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생활여건 양호형’(유형1)과 ‘저활력 기초복지형’(유형2), ‘공동체 친화형’(유형3)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생활여건 양호형 지역(유형1)은 PC1의 양(+)방향에 분포하며, 물질적 자원과 생활기반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활력 지역이다. 다음으로 저활력 기초복지형 지역(유형2)은 PC2의 양(+) 방향에 위치하여 삶의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만족도가 낮지만, 교육, 의료 영역은 비교적 양호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친화형 지역(유형3)은 PC2의 음(-) 방향에 분

그림 3 유형별 삶의 질 영역별 평균값 (z-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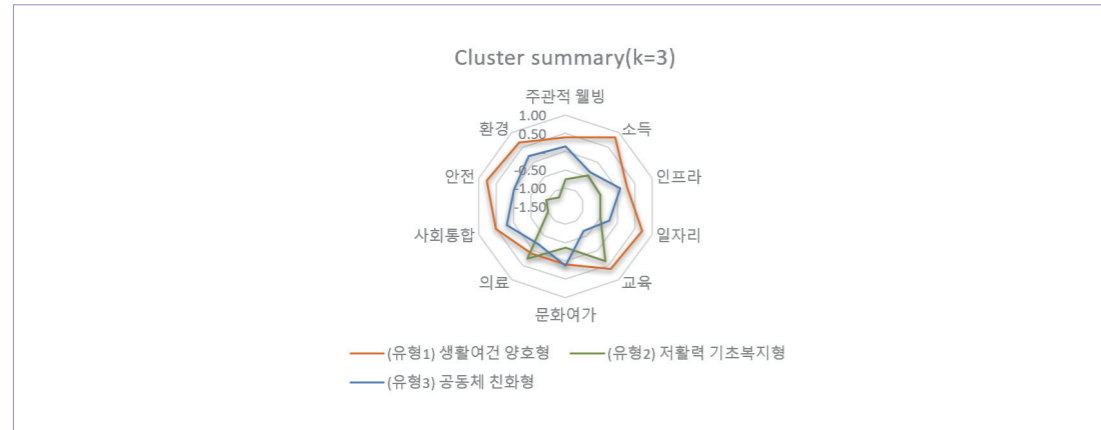


표 4 유형별 삶의 질 영역별 평균값 (z-score)

구분	유형1 생활여건 양호형	유형2 저활력 기초복지형	유형3 공동체 친화형
주관적 웰빙	0.4	-0.77	0.15
소득	0.84	-0.45	-0.35
인프라	0.28	-0.49	0.08
일자리	0.71	-0.49	-0.24
교육	0.62	0.37	-0.65
문화·여가	0.1	-0.37	0.14
의료	0.1	0.27	-0.22
사회통합	0.51	-1.01	0.2
안전	0.77	-0.94	-0.02
환경	0.67	-1.2	0.2

포하여, 문화·여가, 환경, 사회통합과 같은 관계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군으로 볼 수 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른 유형별 지역을 살펴보면, 생활여건 양호형 지역(유형1)은 소득, 일자리, 안전, 환경 등 물질적·생활 기반 자원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지역군으로, 주로 경북 북부(안동시·영천시), 경남 서부(거창군·밀양시), 전북 김제시, 충청권 공주시 등 비교적 산업·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중소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활력 기초복지형 지역(유형2)은 주관적 지표 대부분 영역이 평균 이하이지만, 교육과 의료 영역에서는 일정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복지 기반이 작동하는 지역군으로 해석된다. 이 유형에는 강원도의 정선군·태백시·평창군·화천군·횡성군과 전남 강진군·곡성군·해남군, 충남 서천군 등 인구감소와 산업 쇠퇴가 진행되면서도 기본적인 교육 및 의료 인프라가 유지되는 내륙 농산어촌 지역이 주로 포함된다. 반면 공동체 친화형 지역(유형3)은 물질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사회통합·문화여가·환경 영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지역군으로, 전남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와 경남 다수 지역 등 관계적 자본과 지역 공동체 성이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는 지역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그림 3과 표 4는 삶의 질 영역별 평균값을 기반으로한 유형별 특징을 보여준다. 평균값은 개별 지표의 절대 수준이 아닌 표준화된 상대적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0은 전체 평균 수준, +1은 전체 평균보다 약 1 표준편차 높은 수준, -1은 그만큼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그래프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각 유형의 상대적 강점과 취약 영역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생활여건 양호형 지역(유형1)은 삶의 질 대부분 영역에서 평균 이상 수준을 보이며 특히 소득(0.84), 안전(0.77), 교육(0.62), 환경(0.67)에서 큰 값을 보여 경제적 안정성과 일정 수준 생활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저활력 기초복지형 지역(유형2)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지만 교육(0.37)과 의료(0.27)는 상대적으로 양호해, 기초 복지서비스를 통한 생활기반이 유지되는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친화형 지역(유형3)은 소득이나 인프라 수준은 낮지만, 사회통합(0.20), 환경(0.20) 등 관계적·문화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다. 공동체 결속과 환경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관적 웰빙 수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포는 인구감소지역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양상의 취약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자원과 공동체 및 관계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경제적·물적 요인과 사회적 자본 요인이 교차적으로 작동하여 지역별 삶의 질이 다차원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 5. 결론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은 어떨까?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구조나 경제 여건 등 객관 지표상 취약하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은 전체 지역과 유사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전체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안전과 환경, 지역 정주 의향 등 생활환경 관련 만족도 또한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반면, 일자리와 문화·여가 영역은 여전히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객관지표는 지역의 인구 규모나 구조 변화, 경제활동 수준과 같은 특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주민의 생활만족도나 사회적 관계, 정주 의향과 같은 주관적 삶의 질 요인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역 삶의 질에 대해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서는 객관지표뿐 아니라 주관지표의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10개 영역을 물질적 자원(생활기반·인프라·소득 등)과 관계적 자원(사회적 신뢰·공동체 결속·통합 등)의 두 축으로 설정하고, 이 두 축을 바탕으로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은 생활여건 양호형(유형1)과 저활력 기초복지형(유형2), 공동체 친화형(유형3)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생활여건 양호형과 저활력 기초복지형은 기존의 객관적 지역 분류와 일정 부분 대응된다. 하지만 공동체 친화형 지역은 객관적 생활여건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 객관적 지표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 친화형은 주관적 지표기반 접근의 분석적 유용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주관지표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결과는 인구감소대응 정책에 있어 지역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생활여건 양호형 지역의 경우 산업·문화·교육이 연계된 지역 순환경제 강화에 주력할 수 있다. 저활력 기초복지형 지역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와 주거와 돌봄 기능을 연계한 생활권 단위의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또는 주민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형 소득·고용 지원 프로그램 등 기초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공동체 친화형 지역의 경우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을 지역자원으로 전환하는 공동체 회복력(resilience) 강화 전략이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생활문화 공간,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사회적 경제기반의 커뮤니티 지속성 확보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 주관지표 기반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사회조사 자료는 시·도에서 작성된 자료를 국가데이터처에서 수집하여 개별 제공하고 있어, 데이터를 수집·병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의 자료공개 시기에 따라 최신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군구별 코드 체계가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정제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자동화된 데이터 통합 시스템 도입, 코드 시스템의 통일 등을 통해 주관지표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현재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정책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특성과 발전단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지역의 상대적 여건과 주민의 체감 수준을 함께 고려한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처럼 객관적 요인뿐 아니라 주관적 삶의 질 수준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강·약점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을 설계하고, 유형 간 비교를 통한 성과평가 및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삶의 질 향상 중심의 종합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인구감소 대응정책은 단순한 인구 유입의 양적 성장 중심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질적 성숙의 지역 재생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주관지표 기반 유형화는 이러한 정책 전환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한나·고우림·임예진·정명구·조영태 (2020) “지방인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인구학》43(4): 115-138.

민보경 (2025).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기회 요인 탐색: 중장년층 유입과 발전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25-18호.

이형석·김승희 (2024)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유형 특성과 대응방향: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63(2): 3-28.

이민주·김술기·김의준 (2023) “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화와 특성 분석” 《도시연구》23: 93-116.

정주원·이아라. (2022). 인구감소지역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 《한국행정연구》31(3): 61-87.

제현정 (2019) “인구감소지역의 유형별 대응정책 사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22(1): 131-147.

## 02

# 행복의 참값<sup>1</sup> 찾기: 실험조사의 함의<sup>2</sup>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서론

누구나 행복한 삶을 바란다. 그런데 얼마만큼 행복하기를 바라는지, 지금은 어느 정도 지점에 이르렀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래서 행복을 점수로 변환해서 측정한다. 가장 흔한 방법은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해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 10점까지의 범위에서 응답을 받는 삶의 만족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sup>2</sup> 이 방식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간주한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데이트 횟수를 먼저 질문한 후 응답한 행복 점수는 데이트를 많이 한 학생이 데이트를 못 한 학생보다 훨씬 높다(Strack, Martin, & Schwarz, 1988). 중용의 덕을 추구하는 유교적 가치를 내재한 동아시아 학생은 미국 학생들에 비해 척도에서 중간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Chen, Lee, & Stevensen, 1995).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나 식사 시간 직후에는 가석방 심사 결과 승인 판결이 나올 확률이 65%로 높은 반면, 휴식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승인율이 점차 낮아지는 ‘배고픈 판사 효과<sup>hungry judge effect</sup>’도 유명하다(Danziger et al., 2011). 가난한 사람들은 고액의 수리비를 내야 하는 가상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Mani et al., 2013). 한편, 날씨가 좋고 경치가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에 사는 학생들이 추운 중서부 지역에 사는 학생들보다 행복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Schkade & Kahneman, 1998). 응답 시점 주변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삶의 만족 척도에서 6점을 응답한 사람이 8점을 응답한 사람보다 더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행복 수준을 알아내기 위해 호르몬과 뇌파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 측정을 시도하기도 한다(Davidson, 2004).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뇌파나 호르몬을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하는 재정과 시간, 노력을 생각하면, 이런 방식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지점을 찾기 위해 추상적 경험으로서의 행복 수준을 숫자로 환원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행복 수준의 참값<sup>true value</sup>을 찾기 위해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결괏값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제를 찾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sup>mode effect</sup>와 조사 문항 순서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sup>framing effect</sup>의 존재를 실험조사로 검증한 결과를 소개한다. 모드 효과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채 행복 점수를 온라인으로 매길 때와 실재하는 청자, 즉 훈련된 조사원에게 행복 점수를 보고할 때의 차이로 확인한다(Kocjan & Sočan, 2003). 특히 프레이밍

<sup>1</sup> 이 글은 「김성아, 민기재, 한수진, (2024).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장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sup>2</sup> 그밖에 삶의 평가, 삶의 의미 등을 측정하기도 하지만(OECD, 2013), 이 글의 중반부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함.

효과는 자신의 소득 수준, 즉 경제적 여유 혹은 결핍을 직접 상기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을 때와의 행복 점수 차이로 확인한다(Vohs, Mead, & Goode, 2006). 이어서 우선 행복 수준을 숫자로 측정하는 데에 모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의 존재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조사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여 모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의 존재를 실증한다. 마지막 결론에서 조사를 통해 행복의 참값을 찾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룬다.

## 2. 실험조사

### (1) 실험조사 설계

한국인의 행복 점수를 측정하는 데에 모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조사를 설계하였다. 우선 ‘모드 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 및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두 가지 조사 방법을 패널1과 패널2로 무작위 할당된 두 개 집단에 각각 적용해 체계적 편의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문항 순서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지 서두에서 조사 안내 및 참여 동의에 관한 질문을 한 이후 행복 측정 문항 세트(A), 성격과 사회적 자본 측정 문항 세트(B), 삽화를 이용한 조정 문항(C), 그리고 가구와 개인 소득 수준 문항을 후반부에 배치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 세트(D)로 조사표 구성을 달리 설정했다. 이 조사표는 패널을 다시 패널A, 패널B로 구분한 뒤 패널A는 A→B→C→D, 패널B는 D→A→B→C 순서로 질문하였다. 이 방법으로 소득 수준을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 문항 세트를 행복 측정 문항 전후에 배치하는 방식 역시 무작위 할당하였다.

모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방법 무작위 할당과 프레이밍 효과를 검증하려는 두 가지 문항 순서 설정 방식 무작위 할당을 주된 원칙으로 하여, 조사 대상은 19세 이상 69세 이하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를 주된 조사 방법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타 연령대와 비교하면 인터넷 이용률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3</sup>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에 의한 무작위 할당을 고려한 이번 실험 조사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실험조사 설계

구분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 검증			합계
	패널1	패널2		
조사표 설계에 의한	패널A	패널A1: 500명	패널A2: 500명	1,000명
프레이밍 효과 검증	패널B	패널B1: 500명	패널B2: 500명	1,000명
<b>합계</b>		1,000명	1,000명	2,000명

3 (각주 표)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2023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이용(%)	99.7	99.8	99.7	99.0	94.9	64.4
이용 안 함(%)	0.3	0.2	0.3	1.0	5.1	35.6

출처: “2023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최문실, 김태동, 명사은,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p.116에서 저자가 수정함.

표 2 조사 참여자의 모집단

(단위: 명)

지역	성별	연령대					합계
		19~29	30~39	40~49	50~59	60~69	
서울	남	180	200	180	200	160	920
	여	200	200	180	200	180	960
경인권(경기, 인천)	남	300	320	380	380	300	1680
	여	280	300	360	380	320	1640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남	100	100	120	120	120	560
	여	80	80	100	120	120	500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제주)	남	100	80	120	140	120	560
	여	80	80	100	120	120	500
경북권(경북, 대구)	남	80	80	100	120	100	480
	여	60	60	100	120	120	460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	남	120	120	160	180	160	740
	여	100	100	160	180	180	720
강원권	남	20	20	20	40	40	140
	여	20	20	20	40	40	140
합계	남	900	920	1080	1180	1000	5080
	여	820	840	1020	1160	1080	4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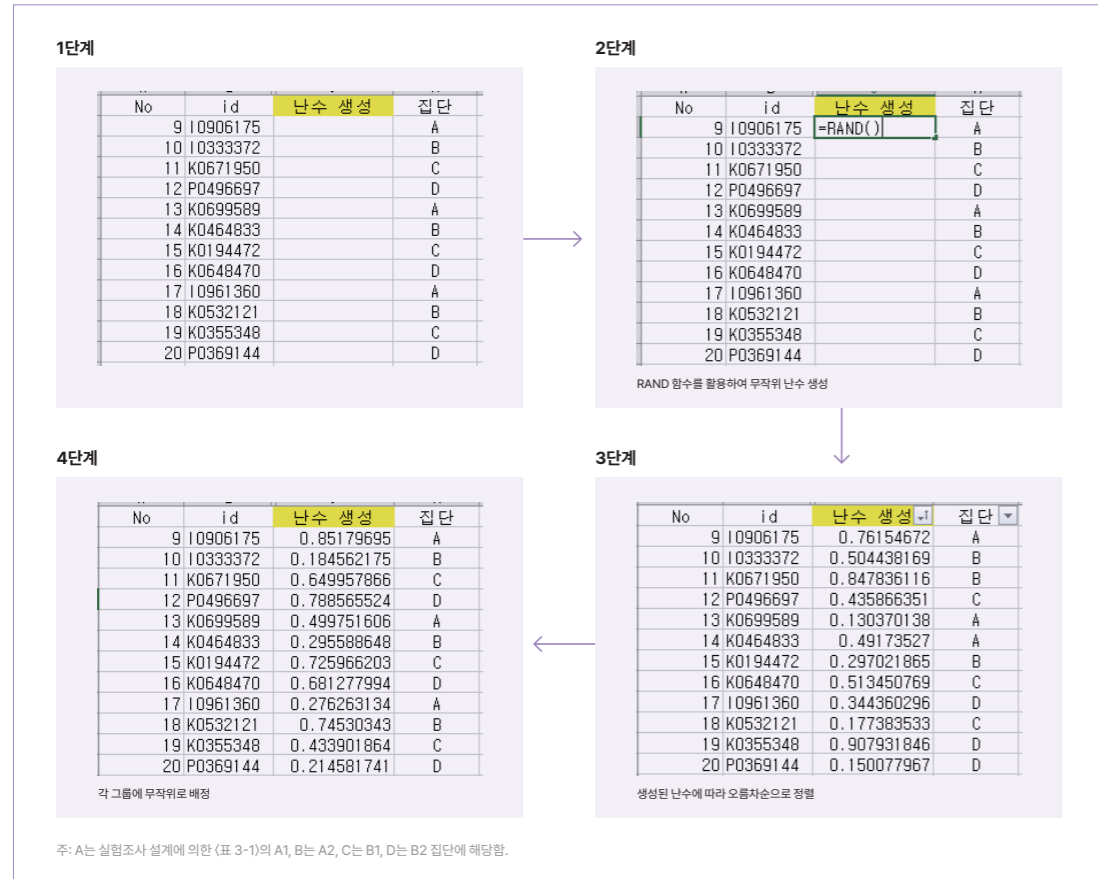
이 실험조사에서 설정한 모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방법인 무작위 할당과 프레이밍 효과를 검증하려는 두 가지 문항 순서 설정 방식 무작위 할당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표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첫째, 대규모 온라인 패널에서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조사 참여자군을 1차 모집한 후, 둘째, 조사 방법 및 조사표의 문항 순서에 따른 4개 집단을 무작위 할당하였다. 셋째,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응답 완료 현황을 모니터링하였다. 특히 온라인 조사에서 특정 성별이나 특정 연령대 집단에서 우선 응답을 완료함으로써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할 것이다.

조사는 2024년 5월 30일 목요일부터 6월 12일 수요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계절과 요일, 응답시간 등 응답 결과에 대한 조사 시기의 영향을 고려해 낮 시간 및 저녁 시간, 주중 및 주말과 공휴일(현충일)의 전화조사 발신 시점을 유의할당하였다. 조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2024년 5월 23일 목요일부터 같은 달 29일 수요일까지 1주일 동안 조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 참여자의 5배수인 1만 명을 조사 모집단으로 1차 모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2024년 4월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성별, 10세별 연령대, 거주지역의 분포를 고려하였다.

2024년 5월 29일 수요일에는 조사 참여자의 모집단을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 집단을 고려하여 4개 조사 집단으로 무작위 할당하였다. 무작위 할당을 위해 집단별 층화가 최소 1배수 이상이 될 때까지 RAND 함수를 활용해 생성한 난수를 활용하였다. 다음 표 두 개는 조사 참여자를 4개 집단으로 무작위 할당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5월 30일 수요일부터 2주간 조사를 실시한 후, 6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데이터 클리닝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응답 시간이 평균 응답 시간 대비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은 실제 응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다. 6월 22일까지

표 3 조사 참여자 무작위 할당 과정



클리닝한 최종 데이터를 확보하였다.<sup>4</sup>

## (2) 조사표 구성

조사표는 전화조사 응답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을 제외하고 20개 문항 규모를 유지하였다. 조사 안내 및 참여 동의에 이어, 행복 측정 문항 세트(A)는 삶의 만족 측정 질문, 캔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삶의 평가, 그리고 어제 경험한 행복감 질문을 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까지 11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질문은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 10점까지 중 응답해 주십시오”이고, 삶의 평가 질문은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온라인 조사에 한해 바닥의 0점부터 꼭대기 10점까지 사다리

<sup>4</sup> 전체 조사 실사는 대규모 온라인 패널을 확보한 전문 조사업체인 (주)엠브레인컨설팅에서 수행하였다. 조사 목적과 설계, 실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득하였다(제2024-040호)

의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어제 행복감의 질문은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0점부터 ‘매우 행복했다’ 10점까지 중 응답해 주십시오”이다. 문항 순서 설정 방식에 의해 패널 B 집단의 경우 가구와 개인 소득에 관한 질문 직후에 접하게 되는 행복 측정 문항을 삶의 만족으로 설정한 것은 이 질문을 행복의 표준적인 측정 방식으로 쓰는 학계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Helliwell, Layard, & Sachs, 2023).

성격 문항 세트(B)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요소 중 외향성과 신경성, 비교성향으로 구성하였다. 외향성과 신경성은 성격 5요인 Big Five Inventory (이하 BFI) 척도의 간편형 한국어 버전에서 추출하였다(김지현 외, 2011; 오아영, 2017). BFI는 개방성 Open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친화성 Agreeableness, 신경성 Neuroticism과 외향성 Extraversion의 5가지 성격 요인을 측정한다. 이 중 신경성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으며, 세상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김지현 외, 2011, p.48).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이다(김지현 외, 2011, p.48). 신경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외향성이 강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유미, 2016). 신경성을 측정하기 위해 ‘쉽게 침울해진다’, ‘자주 우울해진다’, ‘걱정을 많이 한다’의 세 가지 표현을, 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용하다’, ‘수다스럽다’, ‘사교적이다’의 세 가지 표현을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부터 매우 그렇다는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타인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한민 외, 2013; 김희삼, 2014). 비교성향이 높을수록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물질적 소유나 일, 지위 등을 중시하고 과시적 행동을 하는 등 자기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살면서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한다’, ‘종종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잘 비교하지 않는 편이다’, ‘나와 비슷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 ‘내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자 한다’, ‘내가 궁금한 무언가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의 6가지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부터 매우 그렇다는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서 응답자 본인의 생각과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Gibbons와 Buunk(1999)가 개발한 문항을 최윤희(2003)가 번역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문항에서 추출하였다.

사회적 자본 측정 세트(C)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가족이나 친척 외의 사람들과 맺는 사회적 교류, 그리고 아플 때나 돈이 필요할 때,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문항을 포함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나 협동, 관용과 공공성, 연대 등을 포함한다(최창용 외, 2020).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6개 요소 중 하나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친지의 사적 지지체계를 다루고 있다(Helliwell et al., 2024). 동거하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의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 그리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결핍된 고립된 상태가 삶의 만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하다(김성아 외, 2024). 이 조사에서는 사회적 교류 차원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가족 또는 친척, 그리고 업무상 관계를 제외한 친구, 이웃, 동료 등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 중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등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체계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질문하는 상황에 부합하는 타인이 없다면, 사회적 교류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핍된 것으로 정의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 세트(D)는 성별, 연령,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실제 거주지역,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 수, 혼인상태,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그리고 가구 및 개인의 월평균 소득 수준을 범주화하여 질문하였다. 각각의 질문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구성 요소로서 이태진 외(2021)가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조사 실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응답일, 응답시간 등 파라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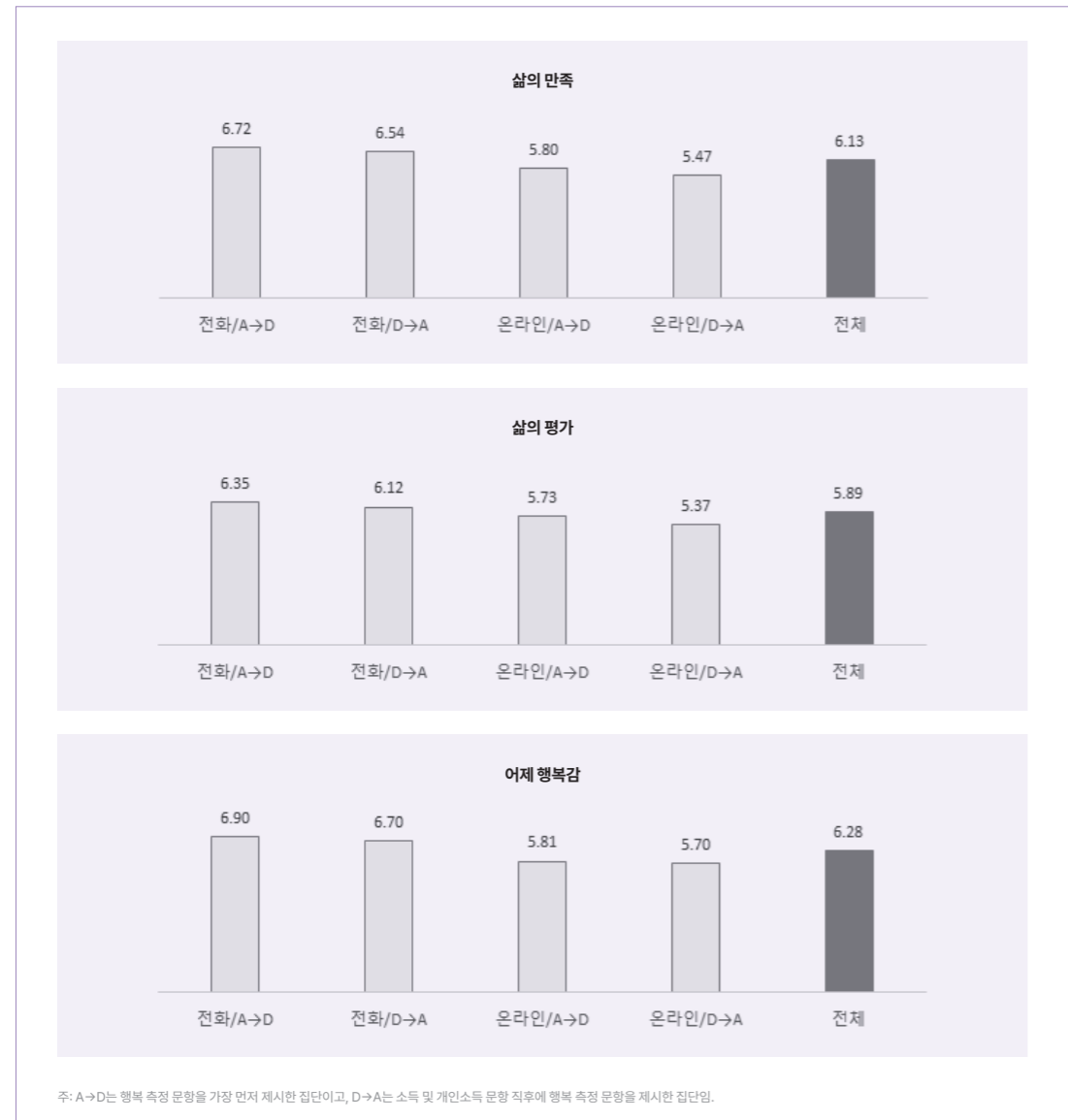
### 3. 실험조사 분석 결과

#### (1) 행복 측정 실험조사 결과: 모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

이 장은 서베이를 통해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 그리고 문항 순서에 따른 프레이밍 효과가 존재한다면, 집단 간 응답값이 체계적으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로부터 출발했다. 다음 그림은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를 무작위 할당된 4개 집단에 따라 삶의 만족,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으로 측정한 행복 응답 점수이다.

삶의 만족의 평균 응답값은 6.13점이다. 조사 방법에 따라서 보면,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평균 응답값은 5.63점, 전화조사 응답자는 6.63점이다. 전체 평균 응답값이 5.89점인 삶의 평가는 온라인 조사의 경우 5.55점, 전화조사는 6.24점이다. 전체 평균 응답값이 6.28점인 어제 행복감에 대해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평균 응답값은 5.76점, 전화조사 응답자는 6.80점이

그림 1 조사 방법 및 문항 순서 무작위 할당 집단별 행복 응답 점수 (단위: 점)



다. 전반적으로 조사원의 질문에 구두로 응답하는 전화조사 응답자의 응답값이 관찰자 없이 제시된 문항에 스스로 응답하는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응답값보다 체계적으로 높다.

조사 문항의 순서에 따라, 가구와 개인 소득 문항 이후에 행복 질문이 주어진 경우(D→A), 삶의 만족은 6.0점, 삶의 평가는 5.75점, 어제 행복감은 6.20점이다. 반면, 행복 질문이 가장 먼저 제시된 경우(A→D)는 삶의 만족이 6.26점, 삶의 평가가 6.04점, 어제 행복감이 6.35점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가구와 개인 소득 질문이 선행되지 않고 행복 질문이 가장 먼저 제시된 경우에 행복 응답값이 체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나 개인 소득 구간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현재 경제력을 상기시킬 수 있고, 이로써 행복 응답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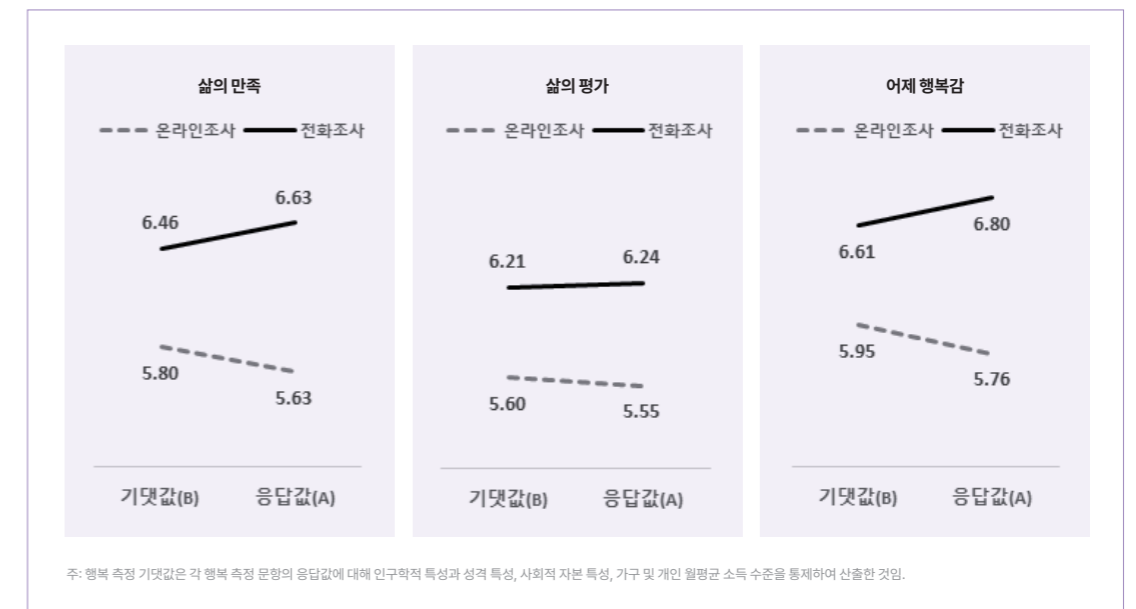
서베이를 통해 행복을 측정하는 데에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격 및 사회적 자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초통계량에서 모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에 비해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에서 응답자가 행복 응답값을 체계적으로 높게 보고할 가능성이 짐작된다. 또한 소득 수준을 상기하는 선행 질문이 존재할 때 현재 경험하는 행복 수준이 낮게 보고될 수 있다.

#### (2) 조사방법에 따른 모드 효과 검증

여기에서는 모드 효과, 즉 조사 방법에 따라 행복 응답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수식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사회적 자본과 가구 및 개인소득의 다차원적 삶의 질(QoL)을 통제한 행복 측정 결과의 기댓값( $\hat{Y}_i$ )<sup>5</sup>과 실제 응답값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행복 측정 결과의 기댓값은 성별과 연령, 혼인상태와 교육 수준 등 다차원적 삶의 질 변수군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기대되는 행복 점수이다.

그림 2는 행복의 측정 도구에 따라 평균 기댓값( $\hat{Y}$ )과 평균 응답값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행복 측정 문항 중 가장 먼저 제시된 '삶의 만족'의 경우,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평균 기댓값이 5.80점인데 실제 응답값은 5.63점으로 다소 낮게 확인

그림 2 조사 방법에 따른 행복 측정 기댓값과 응답값의 차이 (단위: 점)



<sup>5</sup>  $\hat{Y}_i = \gamma_0 + \gamma_1 QoL_i + v_i$ 의 산식을 통해 산출한 값임.  $QoL_i$ 는 성별과 연령, 혼인상태와 교육 수준 등 다차원적 삶의 질 변수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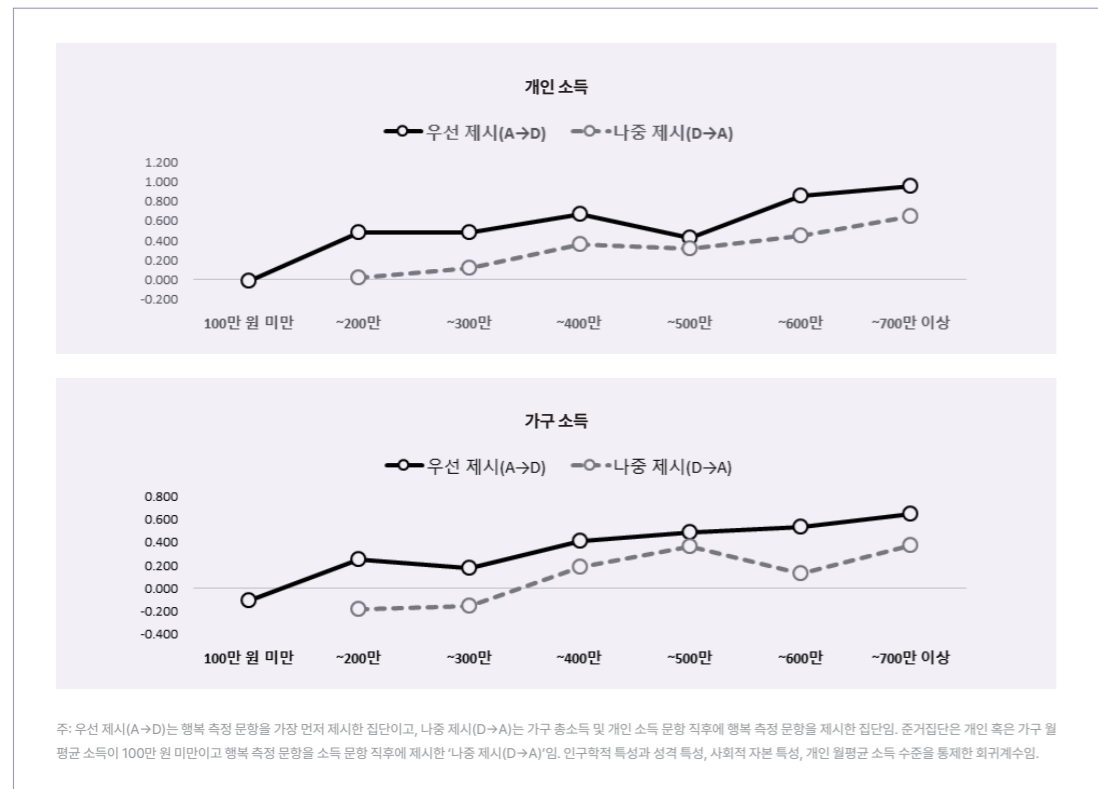
된 반면, 전화조사는 기댓값 6.46점보다 실제 응답값이 6.63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행복 측정 문항 중 이성적 판단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삶의 평가’는 두 번째로 제시되었는데,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기댓값 5.60점 대비 실제 응답값이 5.55점으로 약간 낮았지만 그 차이가 0.05점에 지나지 않았다. 전화조사 응답자는 기댓값 6.21점 대비 실제 응답값이 6.24점으로 다소 높았지만 역시 그 차이가 0.03점에 그쳤다. 반면, 행복 측정 문항 중 정서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어제 행복감’에 대해 온라인 조사 응답자의 기댓값 5.95점보다 실제 응답값은 5.76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화조사 응답자는 기댓값 6.61점보다 실제 응답값이 6.80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의 경우 다차원적 삶의 질을 통제한 행복의 기댓값보다 실제 응답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모드 효과가 삶의 평가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삶의 평가에 대한 질문이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 사이에 배치 되었으므로, 행복 측정 질문의 순서나 주변의 관련 문항에 오염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조사원에 의한 조사에서 행복 응답값을 높게 보고하는 경향, 즉 행복 측정에 있어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가 존재하는데, 이성적 판단을 반영하는 삶의 평가는 모드 효과에 상대적으로 강건하다고 볼 수 있다.

### (3) 문항 순서에 따른 프레이밍 효과 검증

소득 수준에 따라 행복 점수의 차이가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면, 단순한 질문 순서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라기보다 소득 자체의 영향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개인과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프레이밍 효과가 작동할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그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 행복 응답값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소득 수준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프레이밍 효과의 크기가 다를 것이다. 즉, 다음 **그림 3**에서 우선 제시한 경우의 굵은 실선과 나중 제시한

**그림 3** 소득 수준과 프레이밍 효과의 상호작용: 삶의 만족



경우의 점선 간 거리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

그러나 삶의 만족에 대해 개인의 소득과 가구의 총소득 구간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의 크기는 행복 측정 질문을 나중에 제시하거나 우선 제시한 집단에 따라 체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소득 수준에 따른 프레이밍 효과의 체계적인 차이는 삶의 평가나 어제 행복감으로 측정하는 행복 측정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 4. 결론

이 장에서는 국민의 행복한 삶 실현이라는 사회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복의 측정 결과를 직접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조사 설계의 영향, 특히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와 문항 순서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를 실험하였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와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고, 문항 순서는 가구와 개인 소득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 세트를 행복 측정 척도 앞뒤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업체에서 보유한 온라인 패널에서 성별과 연령대, 거주지역을 고려해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조사 참여군을 1차 모집한 후,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를 교차한 4개 집단을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4개 집단별 성별과 연령대, 거주지역을 모니터링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응답 경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화조사에 한해 응답시간과 응답 요일을 유의할당하였다. 조사는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이나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의 세 가지 행복 측정 척도에 대해 자기응답식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 비해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평균 응답값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에서 행복 측정 결과의 평균값이 일관되게 높은 경향은 문항 순서나 문항 순서와의 상호작용,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사회적 자본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유지된다. 또한 행복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격,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행복 측정 결과의 기댓값과 비교하면, 삶의 만족이나 어제 행복감의 실제 응답값이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만 삶의 평가는 기댓값과 응답값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삶의 평가로 행복을 측정하는 경우,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에 비교적 강건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삶의 만족이나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과 같이 행복을 측정하는 다양한 측정 도구 중에서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에 비교적 강건한 것은 캔트릴 사다리로 측정해 이성적 판단을 반영하는 삶의 평가일 수 있다.

문항 순서에 따라서는, 조사 참여 직후 행복 측정 문항을 우선 제시하거나, 가구와 개인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 세트를 먼저 질문한 후 행복 측정 문항을 제시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였다. 후자는 소득 자체, 혹은 소득 수준에 의한 경제적 여유 혹은 결핍을 상기시키는 프레이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조사 결과, 행복 문항을 우선 제시한 경우에 소득 문항 이후에 제시한 경우보다 행복 응답 결과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행복 문항을 우선 제시한 경우 행복 측정 결과의 평균값이 소득 문항 이후에 제시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조사 방법이나 조사 방법과의 상호작용,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 사회적 자본을 통제한 모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소득 문항의 프레이밍 효과가 소득 수준에 의한 계층 효과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 및 소득 수준 구간과 문항 순서 유형 간 상호작용을 검증하였으나, 소득 수준에 따른 응답 결과가 체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소득 문항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가 계층의 영향이라기보다 소득이라는 계층적 지위를 떠올리는 자극 자체의 영향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실험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하는 행복 수준의 응답 결과는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와 조사표 문항 순서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실제하는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행복 수준은 사회적 바람직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소득 문항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는 소득 수준 혹은 계층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 소득을 상기시키는 문

항 자체의 영향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사방법과 문항 순서의 영향을 실험하였지만, 그럼에도 어떤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의 조합에 따른 응답 결과가 행복의 참값(true value)인지는 알 수 없다. 한국인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며 행복 추이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다양한 시점에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 방법과 문항 순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김성아, 민기채, 한수진, (2024).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최영준, 김아래미, 임소현. (2024). 팬데믹 위기 속 사회적 고립, 그 양상과 결과. 사회보장연구, 40(1), pp.147-185.
- 김지현, 김복환, &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pp.47-65.
- 김희삼. (2014). 비교성향의 명암과 시사점. KDI Focus, 44.
- 오아영. (2017). 삶의 의미 척도 타당화(MIL): 삶의 의미-측정(MIL-M)과 삶의 의미-반영(MIL-R).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이유미. (2016). 성격 5 요인과 행복의 관계 구조. 교육문제연구, 22(2), 55-83.
- 이태진, 김성아, 이병재, 엄다원, 정해식, 최준영, Shun Wang, 전영섭, 김석호, 신혜란, 이봉주, 채수홍, 홍석철, 구서정, 유승우, 윤선민, 이수진, 정우연, & 채상원. (202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문실, 김태동, 명사은, (2023), 2023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최윤희. (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 경향성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 한민, 류승아, & 김경미. (2013). 사회비교와 행복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4), pp.577-597.
- Chen, C., Lee, S. Y., & Stevenson, H. W. (1995). Response style and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rating scales among East Asian and North American students. *Psychological science*, 6(3), 170-175.
- Danziger, S., J. Levav, & L. Avnaim-Pesso, (2011). Extraneous factors in judicial decisions, *Proc. Natl. Acad. Sci. U.S.A.* 108 (17) 6889-6892, <https://doi.org/10.1073/pnas.1018033108>.
- Davidson R.J. (2004). Well-being and affective style: neural substrates and biobehavioural correlates. *Philos Trans R Soc Lond B Biol Sci.* Sep 29;359(1449):1395-411. doi: 10.1098/rstb.2004.1510. PMID: 15347531; PMCID: PMC1693421.
- Gibbons, F. X.,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pp.129-142. <https://doi.org/10.1037/0022-3514.76.1.129>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 E., Aknin, L. B., Wang, S. (2023). *World Happiness Report 2023*. N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ttps://files.unsdsn.org/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3.pdf>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2024). *2024 World Happiness Report*. University of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https://happiness-report.s3.amazonaws.com/2024/WHR+24.pdf>
- Mani A, Mullainathan S, Shafir E, Zhao J. Poverty impedes cognitive function. *Science*. 2013 Aug 30;341(6149):976-80. doi: 10.1126/science.1238041. PMID: 23990553.
- Schkade, D. A., & Kahneman, D. (1998). Does living in California make people happy? A focusing illusion in judgments of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9(5), 340-346.
- Strack, F., Martin, L. L., & Schwarz, N. (1988). Priming and communication: Social determinants of information use in judgments of life satisfac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5), 429-442. <https://doi.org/10.1002/ejsp.2420180505>
- Vohs, K. D., Mead, N. L., & Goode, M. R. (2006).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money. *science*, 314(5802), 1154-1156.
- Zager Kocjan, G., Lavtar, D. & Sočan, G. (2023). The effects of survey mode on self-reported psychological functioning: Measurement invariance and latent mean comparison across face-to-face and web modes. *Behav Res* 55, 1226-1243 <https://doi.org/10.3758/s13428-022-01867-8>

# APPENDIX

## 부록

01 지표 정의서

02 지표 자료출처

## 부록 1. 지표정의서

### 1. 가족 공동체

#### 독거노인 비율

정의	65세 이상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노인 중 혼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
의의	고령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경제적 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관계 측면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 측정에 중요한 지표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산출방법	(65세 이상 1인 가구원 ÷ 65세 이상 일반가구원) × 100
작성주기	1년

#### 가족관계 만족도

정의	자신의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원만한 가족관계는 삶의 질의 중요한 구성요인의 하나로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작용하며, 개인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속감과 유대, 친밀감의 원천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소망함.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높아진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를 보여주면서 한국인의 가족생활의 질과, 더 나아가 구성원의 삶의 질의 중요한 단면의 현주소를 보여줌.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p>귀하는 가족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각 항목의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p> <table> <tr> <td>① 매우 만족</td> <td>② 약간 만족</td> <td>③ 보통</td> <td>④ 약간 불만족</td> <td>⑤ 매우 불만족</td> <td>⑥ 해당 없다</td> </tr> </table> <p>7. 전반적인 가족 관계</p>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해당 없다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해당 없다		

#### 지역사회 소속감

정의	살고 있는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의의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도)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1년

#### 조사표 항목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사·도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사·군·구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 사회단체 참여율

정의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의의	사회단체 활동정도는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결합하여 활동하는 정도를 보여주며, 최근 공동체적 삶의 기초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융성의 기초로 보고 있음.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정도가 적극적일수록 사회의 질이 좋은 것으로 여겨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9개의 사회단체 * 중에서 하나의 단체라도 '소속되어 가끔(소속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음) 활동한다' 또는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 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단체/사업자단체/직업조합, 종교단체, 동호회(스포츠, 여가, 문화 등),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등), 동창회/향우회, 자원봉사/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p>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되십니까?</p> <table> <tr> <td></td> <td>소속된 적이 없다</td> <td>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td> <td>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td> <td>소속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td> <td>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td> </tr> <tr> <td>정당</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종교단체</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동호회 (스포츠, 여가, 문화 등)</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시민단체</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등)</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동창회, 향우회</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able> <p>* 2022년부터 보기항목 변경(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 소속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p>		소속된 적이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정당	①	②	③	④	⑤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①	②	③	④	⑤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동호회 (스포츠, 여가, 문화 등)	①	②	③	④	⑤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등)	①	②	③	④	⑤	동창회, 향우회	①	②	③	④	⑤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①	②	③	④	⑤
	소속된 적이 없다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정당	①	②	③	④	⑤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①	②	③	④	⑤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동호회 (스포츠, 여가, 문화 등)	①	②	③	④	⑤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등)	①	②	③	④	⑤																																																								
동창회, 향우회	①	②	③	④	⑤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①	②	③	④	⑤																																																								

## 사회적 고립도

**정의** 신체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

**의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관계와 지지의 유무는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도 특히 인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망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사회의 질을 높여줌.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 중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홀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 있다 ( )명   ⓑ 없다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있다 ( )명   ⓑ 없다

## 2. 건강

### 기대수명

**정의**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의의** 건강상태는 기본적으로 사망과 질병 수준으로 구성되며, 사망수준은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기대수명이 사용됨. 기대수명은 영아사망률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0세의 기대여명’으로 지칭됨.

**출처** 국가데이터처, 「생명표」

**산출방법**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작성주기** 1년

### 건강수명

**정의**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

**의의**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가 적을수록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함. 보건, 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장래인구추계 작성, 국가간 경제, 사회, 보건 수준 비교에 널리 이용됨.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s

**산출방법** 기대수명에서 전체 인구의 평균 질병 및 장애 기간을 제외한 수명

**작성주기** 1년

### 스트레스 인지율

**정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인구의 비율

**의의** 개인들의 건강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으로 측정되며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음. 스트레스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느낀 스트레스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많이 느꼈다’ 또는 ‘느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 매우 많이 느꼈다   ⓑ 느낀 편이다   ⓒ 느끼지 않은 편이다   ⓓ 전혀 느끼지 않았다   ⓔ 해당 없다

4) 전반적인 일상생활

### 주관적 건강상태

**정의**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의료환경 이외에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건강수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보여준다는 것에서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 매우 좋다   ⓑ 좋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나쁜 편이다   ⓔ 매우 나쁘다

### 비만율

**정의** 체질량지수(BMI, kg/m<sup>2</sup>)가 25 이상인 인구의 비율

**의의** 비만은 비교적 새롭게 형성된 건강위험 요인으로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와 영양의 과잉섭취, 그리고 신체활동의 부족 등 일상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발생함. 생활습관인 흡연이나 음주와는 달리 비만은 산업구조와 생활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아직 선진국만큼 비만율이 높지 않지만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함.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sup>2</sup>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작성주기** 1년

### 신체활동 실천율

**정의**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신체활동은 건강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크며, 신체활동은 대중적이라 측면에서 전문적인 운동(스포츠)과 차

이가 있고, 신체 전반의 근육을 단련하고 심폐기능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동작만을 반복하는 노동과도 다름. 걷기, 달리기, 줄넘기, 스트레칭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일정한 강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건강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평소 규칙적 운동(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타기 등)을 실천하는지에 대해 ‘실천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평소 다음 각 항목의 활동을 실천하는 편입니까?		
	㉠ 실천한다	㉡ 실천하지 않는다
규칙적 운동		
* 참고 '규칙적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려고 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함(단, 부정기적인 운동이나 일상적인 걷기 등은 제외)		

### 자살률

**정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의의** 자살은 우울증과 연관되어 개인의 정신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이 높음. 또한 자살률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며, 특히 사회적인 급격한 변동이나 불안정성의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 자살률은 높아짐.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산출방법**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작성주기** 1년

## 3. 교육

### 유아교육 취원율

**정의** 3~5세 인구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의 비율

**의의** 교육기회는 다양한 단계에서의 교육기회가 해당되는 구성원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제공되는가로 측정될 수 있음. 한국사회에서 초중등단계의 교육기회는 거의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유아교육 취학을 지표는 초등교육 이전의 교육기회를 측정하는 지표로 의미가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산출방법** {(3~5세 어린이집 보육아 수 + 3~5세 유치원 재적원생 수) ÷ 취학적령(3~5세)인구} × 100

\* 취학적령인구는 추계인구로 작성

**작성주기** 1년

### 교육비부담도

**정의** 학부모 중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의의**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영향을 미침.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 가구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 교육비 부담도는 교육지출에 대한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수준을 보여줌.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학생 자녀를 둔 가구주(30세 이상)의 소득에 비해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얼마나 부담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부담스럽다' 또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p>귀댁의 자녀 교육비는 가정 경제에 얼마나 부담됩니까?</p> <p>㉠ 매우 부담스럽다</p> <p>㉡ 약간 부담스럽다</p> <p>㉢ 보통이다</p> <p>㉣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p> <p>㉤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p> <p>*교육비는 학교 납입금, 보충 교육비, 학원비, 기숙사비 등 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p>
---

### 학교교육의 효과

**정의**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객관적인 수준의 학업성취도가 아닌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개인들이 학교교육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통해 학교교육의 성과 측면을 포착하는 지표임. 재학여부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반적인 학교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의 학교교육이 '생활, 취업 및 직업 활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효과 있다' 또는 '약간 효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p>귀하는 현재 학교 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p> <p>㉠ 매우 효과 있다    ㉡ 약간 효과 있다    ㉢ 보통이다    ㉣ 별로 효과 없다    ㉤ 전혀 효과 없다    ㉥ 잘 모르겠다</p> <p>4.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p>
---

### 학교생활 만족도

**정의** 자신이 다니는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주관적 차원에서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사대상자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p>귀하는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p> <p>㉠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 보통    ㉣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p> <p>7) 전반적인 학교생활</p>
---

### 고등교육 이수율

<b>정의</b>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
<b>의의</b>	고등교육 이수율은 사회의 교육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국가별 비교시 많이 활용되며,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을수록 사회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과 함께 교육기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b>출처</b>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Educational attainment of 25-64 year-old(Tertiary)
<b>산출방법</b>	(고등교육기관 이수자 ÷ 25~64세 인구) × 100 * 고등교육기관(Tertiary)은 대학 이상 졸업임.
<b>작성주기</b>	1년

### 대학졸업자 취업률

<b>정의</b>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대상자(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등 제외) 중 취업자의 비율
<b>의의</b>	학교교육의 효과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고등교육체제의 인적자원개발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조응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음. 또한 이 지표는 정규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청년들이 자아실현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
<b>출처</b>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b>산출방법</b>	(취업자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취업대상자) × 100 *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 * 취업률은 건강보험 및 국세 DB를 연계하여 산출
<b>작성주기</b>	1년

## 4. 고용 임금

### 실업률

<b>정의</b>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b>의의</b>	고용률은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 실업률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취업의사는 있지만 취업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로 의의가 있음
<b>출처</b>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b>산출방법</b>	(15세 이상 실업자 수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 실업자 :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임.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input type="radio"/> 구해보았음 <input type="radio"/> 구해 보지 않았음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구해 보았음'에 해당함.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 고용률

<b>정의</b>	15세 이상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해 있는 인구의 비율
<b>의의</b>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로, 이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 지표로 주목하였으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최근에는 고용률을 노동시장의 현황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국가 간 비교지표로도 고용률이 주로 사용됨.
<b>출처</b>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b>산출방법</b>	(15세 이상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일을 도와 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함.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 '지난주'는 '일요일~토요일'의 지난 1주를 말함.
지난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평소 1주 동안 총 몇 시간 일합니까? 총 (            )시간 * 총 시간은 '주된 일'과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의 합계임.

### 월평균 임금

<b>정의</b>	임금근로자(상용 및 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
<b>의의</b>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핵심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임금의 총액임. 임금총액은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월평균 임금은 근로시간을 고려한 임금수준의 정확한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
<b>출처</b>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b>산출방법</b>	상용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상용근로자(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와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세금공제전)을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실질화
<b>작성주기</b>	1년

### 저임금 근로자 비율

<b>정의</b>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b>의의</b>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임금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지표이며 국제비교 지표로도 흔히 사용됨.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뜻함.
<b>출처</b>	OECD, Earnings(Incidence of low pay)
<b>산출방법</b>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b>작성주기</b>	1년

## 근로시간

**정의**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

**의의** 더 짧은 노동시간을 통해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여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이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으로, 한국의 장시간근로는 근로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인 바, 이것을 얼마나 줄여나가는가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에 따라서 증가하는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크면 줄어들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산출방법** 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작성주기** 1년

## 일자리 만족도

**정의** 임금근로자 중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일의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 지표는 이러한 하위 지표들을 측정하고 나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다시 질문한 것으로 근로생활 영역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는 핵심지표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홀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직장의 근로 여건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세부항목마다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종사상의 지위가 '임금 근로자'인 분만 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12)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 5. 소득·소비·자산

### 1인당 국민총소득

**정의**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인구수로 나눈 값

**의의** 국민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되는 1인당 실질 GNI는 국민의 소득수준을 시계열로 비교하는데 유용하고 이러한 비교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가데이터처, 「장래추계인구」, 「소비자물가지수」

**산출방법**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 = 실질 국민총소득 ÷ 총인구

\* 실질 국민총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작성주기** 1년

### 가구중위소득

**정의**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라 배분한 금액의 중위소득

**의의** 우리나라 개인소득의 중앙값이 얼마인지를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등화 중위소득은 지니계수, 빈곤층 비율, 중위소득계층 비율 등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자물가지수」

**산출방법** 표본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하여 가구원수로 균등화한 중위값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한 금액

**작성주기** 1년

### 소득 만족도

**정의**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객관적인 소득수준과 별도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개인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의 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홀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있다 - 1) 매우 만족한다 2) 약간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

없다

### 소비생활 만족도

**정의**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객관적인 소비수준과는 별도로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인지된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의 현재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홀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전반적인 소비 생활(의식주, 여가와 취미 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 가구순자산

**정의**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에서 평균 부채를 차감한 금액

**의의** 평균적인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구평균 순자산을 통하여 가구의 재산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구의 재

정 상태를 가능할 수 있음. 가구의 재산 증감과 각 자산 및 부채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가구의 재산 상태가 소비에 영향을 주므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음.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자물가지수」

**산출방법** (전체 가구의 평균자산 - 전체 가구의 평균부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실질화

※ 자산 : 금융자산(저축, 전·월세보증금 등)과 실물자산(부동산, 자동차 등)

※ 부채 :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작성주기** 1년

<b>가계부채 비율</b>	
<b>정의</b>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총액의 비율
<b>의의</b>	가계부채는 주택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해당 가구에 도움을 주지만, 부채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게 됨.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이고 이로 인해 가구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소비지출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
<b>출처</b>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Debt of households)
<b>산출방법</b>	(가구부채총액 ÷ 가구순가처분소득) × 100
<b>작성주기</b>	1년

<b>상대적 빈곤율</b>	
<b>정의</b>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b>의의</b>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사회의 질 측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
<b>출처</b>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b>산출방법</b>	(가처분 중위소득의 50% 이하 인구 ÷ 전체 인구) × 100
<b>작성주기</b>	1년

<b>6. 여가</b>	
<b>6.1. 여가시간</b>	
<b>6.2. 문화여가 지출률</b>	
<b>6.3. 문화여가 참여율</b>	

#### 문화여가 지출률

**정의** 가계지출 중 문화여가지출의 비율

**의의** 가구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지출을 가계지출에 대비하여 파악함으로써 문화여가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자원의 수준을 제시함. 문화여가비는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사용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산출방법** (가구 월평균 정보 및 오락문화비 ÷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 × 100

※ 정보비: 영상음향기기, 정보처리장치 및 기록매체, 방송 및 시청각 콘텐츠 이용, 기타 영상 및 정보 관련 서비스

※ 오락문화비: 오락문화 내구재, 악기/음반 및 비디오물, 오락문화 내구재 유지 및 수리, 게임/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 관련 용품, 화훼 및 원예용품,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화훼 및 반려동물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복권 등, 서적, 기 타인쇄물, 문구, 단체 및 국외여행비

**작성주기** 1년

<b>여가시간</b>							
<b>정의</b>	평일과 휴일을 합한 일평균 여가시간으로 일, 가사, 수업 등 의무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						
<b>의의</b>	여가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여가시간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생활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시함. 적절한 수준의 여가시간은 일 중심의 사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며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b>출처</b>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b>산출방법</b>	{(평일 여가시간 × 5일) + (휴일 여가시간 × 2일)} ÷ 7일						
	※ 여가시간은 15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지난 1년 동안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평일과 휴일에 각각에 대해 응답한 값임.						
<b>작성주기</b>	1년						
<b>조사표 항목</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지난 1년 동안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일여가와 휴일여가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평일</th><th>휴일(휴가,연휴)</th></tr> </thead> <tbody> <tr> <td>지난 1년 동안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td><td>평일 하루 평균 __시간</td><td>휴일 하루 평균 __시간</td></tr> </tbody> </table> <p>※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취침, 식사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합니다.(예: 직업상의 일, 출퇴근시간,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가족돌봄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 취미, 휴식, 사회적 활동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자유로운 시간)</p> </div>		평일	휴일(휴가,연휴)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평일 하루 평균 __시간	휴일 하루 평균 __시간
	평일	휴일(휴가,연휴)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평일 하루 평균 __시간	휴일 하루 평균 __시간					

<b>여가시간 충분도</b>							
<b>정의</b>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b>의의</b>	여가시간은 사람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함. 여가시간이 많아지면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여가시간의 양과는 별개로 각자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이 충분한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음.						
<b>출처</b>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b>산출방법</b>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 휴일 여가시간 충분도) ÷ 2						
	※ 여가시간 충분도 : 15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지난 1년 동안 평일과 휴일(휴가, 연휴 포함)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7점 척도 응답 중에 5~7(매우 충분했다)점에 응답한 비율						
<b>작성주기</b>	1년						
<b>조사표 항목</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지난 1년 동안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일여가와 휴일여가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평일</th><th>휴일(휴가,연휴)</th></tr> </thead> <tbody> <tr> <td>귀하는 지난 1년 동안의 여가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td><td>매우 부족했다&lt;-보통→매우 충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td><td>매우 부족했다&lt;-보통→매우 충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td></tr> </tbody> </table> <p>※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취침, 식사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합니다.(예: 직업상의 일, 출퇴근시간,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가족돌봄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 취미, 휴식, 사회적 활동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자유로운 시간)</p> </div>		평일	휴일(휴가,연휴)	귀하는 지난 1년 동안의 여가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했다<-보통→매우 충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부족했다<-보통→매우 충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평일	휴일(휴가,연휴)					
귀하는 지난 1년 동안의 여가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했다<-보통→매우 충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부족했다<-보통→매우 충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b>	
<b>정의</b>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자의 1인 평균 관람횟수
<b>의의</b>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국민이 문화예술 활동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기본 지표로 문화예술 관람률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파악하며 문화예술 소비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문화예술활동은 다양한 경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인 수준에서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웰빙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음악회·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문학 행사, 스포츠 등을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1인 평균 관람 횟수(현장 관람 횟수)

**작성주기** 2년(홀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공연이나 전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것을 몇 번 관람하였는지 모두 적어 주십시오.

ⓐ 있다

ⓐ-1 음악회·연주회·콘서트  번

ⓐ-2 연극·마당극·뮤지컬  번

ⓐ-3 무용  번

ⓐ-4 영화  번

ⓐ-5 박물관(유물 전시회 등)  번

ⓐ-6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등)  번

ⓐ-7 문학행사(시화전, 도서 전시회 등)  번

ⓐ-8 스포츠 경기(e스포츠 포함)  번

ⓐ-9 기타 ( )  번

\* 2023년부터 보기 항목으로 문학행사 및 (e스포츠 포함)이 추가됨.

### 1인당 여행일수

**정의** 1인당 연간 국내관광여행(당일여행 포함) 일수  
**의의** 여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행인구도 증가하고 있음.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의 하나로 1인당 여행일수를 통해 국민의 여가향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산출방법** 15세 이상 조사대상자의 1인당 연간 국내관광여행(당일여행 포함) 일수

\* 국내관광여행 : 행정구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 중 관광, 자연감상 등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여행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20○○년 ( )월 한달 동안 다녀오신 모든 여행(해외여행, 관광·휴양 여행, 출장·업무, 단순 귀성/단순 친구·친지 방문)을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

\* 여행일자별 방문지역(시도/시군구)과 숙박한 경우 숙박지역(시도/시군구), 숙박시설을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자 주의사항  
 - 주요 방문지는 관광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출장·업무, 단순 귀성/단순 친구·친지 방문인 경우 방문지는 "출장지", "친척집", "부모님집", "행정동/법정동" 등으로 작성하시고 방문지의 시도, 시군구를 같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 여행일자별로는 최대 5개의 주요 방문지를 작성해주세요.

구분	여행일자	방문지역(시도/시군구)			숙박지역(시도/시군구)	숙박시설	평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방학 여부
		1	...	5			
첫 번째 여행	( )월 ( )일	( / )			( / )	아래 보기에서 선택	ⓐ 개인휴가
	( )월 ( )일	( / )			( / )	아래 보기에서 선택	ⓑ 방학
	:						ⓒ 기타 ( )
							ⓓ 해당없음

### 여가생활 만족도

**정의** 현재의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여가활동에 대해 종합적인 주관적 만족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함. 다수의 경험적인 연구들이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며, 이는 여가 만족이 삶의 질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여가생활의 만족은 건강이나 경제적 조건과 같은 다른 삶의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친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도 의미를 가짐.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평소 여가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홀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평소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매우 만족한다    ⓑ 약간 만족한다    ⓒ 보통이다    ⓓ 약간 불만족한다    ⓔ 매우 불만족한다

## 7. 주거

### 자가점유가구비율

**정의** 전체 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

**의의** 주택공급의 꾸준한 확대로 주택보급률은 크게 늘어났지만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사는 비율은 높지 않음. 한국사회에서는 주택 마련이 거주 개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큼.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산출방법** 조사대상가구 중 자가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귀 닥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자가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    ⓔ 사글세 또는 연세    ⓕ 일세    ⓖ 무상

\*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하는 경우  
 \* 연세 :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번에 내는 경우  
 \* 일세 :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매일 집세를 내는 경우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주택임대료 비율

**정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의 비율

**의의** 주택임대료는 가구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산출방법**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중위 월 임대료 ÷ 중위 월 가구소득) × 100

**작성주기** 1년

### 1인당 주거면적

<b>정의</b>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
<b>의의</b>	한국은 가구원수가 감소하여 1인당 주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주거면적보다는 1인당 주거면적이 주거상태와 주거의 질을 정확하게 나타내며, 국제비교에서도 활용성이 높음.
<b>출처</b>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b>산출방법</b>	(개별 가구의 주택사용면적 ÷ 개별 가구원 수)의 평균
<b>작성주기</b>	1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b>정의</b>	총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최저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가구원수별 면적, 방수, 시설 등의 기준임.
<b>의의</b>	주거는 개인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1인당 주거면적이 양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양적인 크기 뿐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거취약계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b>출처</b>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b>산출방법</b>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 총가구 수) × 100 *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 가구원 수별로 침실 및 면적기준,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1) 시설기준: 전용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2) 침실 및 면적기준: 가구원 수별 방수 및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구원 수(인)	1	2	3	4	5	6
방수(개)	1	1	2	3	3	4
면적(m <sup>2</sup> )	14	26	36	43	46	55

작성주기 1년

### 통근시간

<b>정의</b>	통근인구가 평소 집에 직장까지 소요되는 평균시간
<b>의의</b>	통근시간은 근로자의 직장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근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근시간은 일상생활의 편리성과 삶의 질의 한 단면을 보여줌.
<b>출처</b>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b>산출방법</b>	12세 이상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집과 직장을 오가는 사람 중 평소 집에서 직장까지 소요되는 평균시간
<b>작성주기</b>	5년

### 주거환경 만족도

<b>정의</b>	거주지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가구의 비율
<b>의의</b>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 주변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하며, 거주 계층과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주거환경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국민들의 관심이 주택에서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면서 주거환경 만족도는 국민 삶의 질에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음.

<b>출처</b>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b>산출방법</b>	자신의 거주지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
<b>작성주기</b>	1년
<b>조사표 항목</b>	

귀 닥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주시시오.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2)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	㉢	㉣

## 8. 환경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b>정의</b>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
<b>의의</b>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서비스의 양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b>출처</b>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b>산출방법</b>	도시공원 조성면적(결정면적 - 미집행면적) ÷ 도시지역 총인구
<b>작성주기</b>	1년

### 초미세먼지 농도

<b>정의</b>	대기 중 초미세먼지(PM <sub>2.5</sub> )의 농도(지름 2.5 $\mu$ m 이하의 먼지)
<b>의의</b>	대기오염물질 중의 하나인 초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의 악화,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 시정을 악화시키는 물질로서, 다른 대기오염 물질에 비해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으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그 심각성과 비중,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b>출처</b>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b>산출방법</b>	17개 시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 <sub>2.5</sub> )농도를 인구가중화한 평균
<b>작성주기</b>	1년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b>정의</b>	면 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할 대상 가구 중 실제 급수를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
<b>의의</b>	상수도는 보건위생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과 소방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함. 상수도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편익시설이지만 상수도 보급 수준은 각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주택구조, 해당지역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다름. 이러한 점에서 상수도 보급률은 지역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b>출처</b>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도통계」
<b>산출방법</b>	(면 지역 급수인구 ÷ 면지역 총인구) × 100 * 급수인구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구는 포함하지 않음.
<b>작성주기</b>	1년

## 대기질 만족도

**정의** 거주지의 대기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환경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중요함. 환경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1.대기(공기의 질)

## 수질 만족도

**정의** 거주지의 수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환경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중요함. 환경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수질)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2. 하천

## 토양환경 만족도

**정의** 거주지의 토양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환경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중요함. 환경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토양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3. 토양(쓰레기로 인한 오염)

## 소음 만족도

**정의** 거주지의 소음공해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환경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중요함. 환경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소음·진동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4. 소음·진동

## 녹지환경 만족도

**정의** 거주지의 녹지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환경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중요함. 환경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기환경,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산, 공원 등)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6. 녹지 환경 (산, 공원 등)

## 기후변화 불안도

**정의** 기후변화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의의** 기후변화는 전체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경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정도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기후변화(폭염, 홍수 등)' 문제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불안하다' 또는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환경 문제들에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② 별로 불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안하다    ⑤ 매우 불안하다

1. 기후 변화 (폭염, 홍수 등)

## 9. 안전

### 가해에 의한 사망률

정의	인구 10만 명당 타살로 인한 사망자 수
의의	타인의 가해에 의한 사망, 즉 타살은 범죄피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연앙인구」
산출방법	{가해(타살)에 의한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작성주기	1년

### 범죄 피해율

정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집계된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범죄피해 발생건수
의의	범죄발생건수는 실제로 신고된 범죄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발생한 모든 범죄를 집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자기보고 범죄피해율은 신고되지 않은 범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범죄발생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 의미가 있음.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실태조사(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산출방법	(범죄피해건수(추정) ÷ 14세 이상 인구 수) × 100,000 * 14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동안 한 번이라도 각 유형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발생건수를 추정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 야간보행 안전도

정의	야간보행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집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평가를 파악할 수 있음.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의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안전' 또는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input type="radio"/>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 <input type="radio"/>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낀다 <input type="radio"/> 약간 불안하다고 느낀다 <input type="radio"/> 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
--------	---

### 산재 사망률

정의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
의의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근로여건의 안전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지표임. 산업재해의 수준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통계에 포착되지 않고 누락되는 사고가 있고, 누락 정도가 국가 또는 시기마다 다르다는 한계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표가 바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임.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산출방법	(산재 사망자 수 ÷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 수) × 10,000

\* 사망자 수에는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작성주기 1년

### 화재 사망자 수

정의	연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수
의의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 가운데 하나로 물질 피해 뿐 아니라 인적 피해를 주기도 함. 화재는 예방과 대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피해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화재안전 수준을 가능하는데 중요한 지표임.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산출방법	연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수
작성주기	1년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정의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의의	우리나라의 도로 사망률이나 보행자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거리 보행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산출방법	(도로교통사고사망자 수 ÷ 총인구) × 100,000 * 도로교통사고사망자: 도로의 차량 교통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작성주기	1년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정의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
의의	아동은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더 쉬움.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연앙인구」
산출방법	(14세 이하 안전사고 사망자 수 ÷ 14세 이하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안전사고에는 운수사고, 추락, 익사, 질식, 화상, 중독 등이 포함됨(사망의 외인 중 자살과 타살 제외함 사고사)
작성주기	1년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정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콜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18세 미만 아동 인구 10만 명당 건수
의의	아동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는 아동 자신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물론, 그 사회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산출방법	(아동학대 최종 판단건수 ÷ 18세 미만 추계인구) × 100,000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작성주기 1년

###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정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추세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고 안전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주기 2년(짝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보통이다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매우 안전하지 않다

12. 전반적인 사회 안전

## 10. 시민참여

### 선거투표율

**정의** 전체 선거인 중 실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 사람의 비율  
**의의**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대표자의 선출이나 정치적 및 정책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의미함. 정치과정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요구를 선거를 통해 표현해야 하는데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투표율임. 따라서 선거투표율은 정치참여의 정도와 함께 민주주의의 질을 보여주는 양적 지표라고 할 수 있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산출방법** (대통령선거 투표자 수 ÷ 대통령선거 선거인 수) × 100

작성주기 5년

### 정치적 역량감

**정의** 스스로 정치적 역량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시민이 정치와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됨. 정치참여는 시민 스스로 정치적 역량감을 가질 때 높아지며, 정치적 역량감은 시민참여의 잠재적 수준을 보여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와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항목에 대한 5점 척도 응답 중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산술평균한 값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 부패인식지수

**정의**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지수

**의의** 정부의 부패 정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이 주로 활용되며, 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은 정부가 소수의 부패한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여 공평무사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줌. 정부가 청렴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도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잘 운영되고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음.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산출방법** 13개 국제기관의 국가분석 전문가 인식조사를 기준으로 0~100점으로 산출한 부패인식지표(점수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음)

작성주기 1년

### 기관 신뢰도

**정의** 주요 기관과 제도에 대해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사회의 여러 제도 및 기관들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제도 및 기관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며 또한 국민 전체의 요구나 이해를 잘 대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공적 기관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 기관 및 제도의 정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각 기관별로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4점 척도 응답 중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각 기관별 비율을 산술평균한 값

※ 기관 : 중앙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TV방송사, 신문사, 교육계, 의료계, 대기업, 종교계, 금융기관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전혀 믿지 않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약간 믿는다	매우 믿는다
(1) 중앙정부 부처	①	②	③	④
(2) 국회	①	②	③	④
(3) 법원	①	②	③	④
(4) 검찰	①	②	③	④
(5) 경찰	①	②	③	④

	전혀 믿지 않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약간 믿는다	매우 믿는다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	㉡	㉢	㉣
(8) 군대	㉠	㉡	㉢	㉣
(9) 노동조합단체	㉠	㉡	㉢	㉣
(10) 시민단체	㉠	㉡	㉢	㉣
(11) TV방송사	㉠	㉡	㉢	㉣
(12) 신문사	㉠	㉡	㉢	㉣
(13) 교육기관	㉠	㉡	㉢	㉣
(14) 의료기관	㉠	㉡	㉢	㉣
(15) 대기업	㉠	㉡	㉢	㉣
(16) 종교기관	㉠	㉡	㉢	㉣
(17) 금융기관	㉠	㉡	㉢	㉣

### 시민의식

**정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책무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정도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사회의 질 지표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산출방법** 19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사회단체 또는 정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이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국가위기 시 기꺼이 군복무를 한다' 등 8개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7점 척도 점수를 평균한 값

**작성주기** 1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중요하다
(1)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	㉡	㉢	㉣	㉤
(2)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	㉡	㉢	㉣	㉤
(3)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	㉡	㉢	㉣	㉤
(4)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	㉡	㉢	㉣	㉤
(5) 사회 또는 정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	㉢	㉣	㉤
(6)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	㉡	㉢	㉣	㉤
(7)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이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한다	㉠	㉡	㉢	㉣	㉤
(8) 국가 위기 시 기꺼이 군복무한다 * 군인으로서 복무 등 직접적 참여뿐만이 아닌, 물자 수송, 간호 등의 간접적 참여 또한 포함	㉠	㉡	㉢	㉣	㉤

### 자원봉사 참여율

**정의**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의의** 자원봉사는 정부의 강제나 시장에서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이타주의의 발현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의 공공선이 증대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역시 만족감과 시민의식이 고양되는 결과를 가져옴.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면 사회적 결속과 유대가 높아지고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사회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산출방법** 13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작성주기** 2년(홀수년도)

**조사표 항목**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있다      ㉡ 없다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총 횟수와 1회 평균 활동 시간을 각 분야별로 적어 주십시오.

활동 분야	참여한 총 횟수(연간)
1. 생활편의 지원(활동보조, 이동지원, 청결지원, 급식지원, 식사·반찬지원 등)	(        )회
2. 주거환경(주거개선, 마을공동체활동 등)	(        )회
3. 교육(방과후 교육, 학습지도, 특수교육, 평생교육, 전문교육, 진로체험지도 등)	(        )회
4. 상담(말벗·상담, 전문상담, 멘토링 등)	(        )회
5. 보건의료(간호·간병, 의료지원, 헌혈 등)	(        )회
6. 농어촌봉사(일손지원 등)	(        )회
7. 문화행사(행사보조, 공연활동, 캠페인, 관광안내 등)	(        )회
8. 환경보호(환경정화, 환경감시 등)	(        )회
9. 행정보조(사무지원, 업무보조 등)	(        )회
10. 안전·방범(지역방범,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 청소년 안전, 취약계층 안전 등)	(        )회
11. 인권·공익(인권개선, 공익보호 등)	(        )회
12. 재해·재난·응급(피해복구, 응급구조 등)	(        )회
13. 국제협력·해외봉사(국제행사, 단체지원, 통·번역 등)	(        )회

**참고** 참여 횟수와 1회 평균 활동 시간  
 - 오전과 오후에 서로 다른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을 따로 작성합니다.  
 - 한 활동을 연속해서 이를 이상 한다면 참여 횟수와 시간을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예) 쓰나미 구호 활동에 3박 4일(총 28시간) 참여하였다면 '4회, 7시간'으로 작성

### 대인 신뢰도

**정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대인신뢰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일반적 타인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회적 유대와 결속의 범위가 좁아질 뿐 아니라 서로 불신하는 집단들끼리 협동하기보다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본이 번성하며 사회적 유대 또한 돈독해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음.



## 부록 2. 지표 자료출처

통계자료	국민 삶의질 지표	
01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중위소득, 가구순자산, 상대적 빈곤율
02	가계동향조사	문화여가지출률
03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 실업률
04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0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근로시간
06	국민계정	1인당 국민총소득
07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범죄피해율
08	국민건강영양조사	비만율
09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시간 충분도, 여가시간
10	국민여행조사	1인당 여행일수
11	도시계획현황	1인당 도시공원면적
12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13	사망원인통계	자살률, 가해에 의한 사망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14	사업체노동력조사	월평균임금
15	사회조사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 실천율, 스트레스 인지율, 학교교육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비 부담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적 고립도, 가족관계 만족도, 자원봉사 참여율, 야간보행 안전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대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 토양환경 만족도, 소음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기후변화 불안도
16	사회통합실태조사	지역사회소속감, 사회단체 참여율, 대인 신뢰도, 기관 신뢰도, 정치적 역량감, 시민의식,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17	산업재해현황	산재사망률
18	상수도통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19	생명표	기대수명
20	인구총조사	통근시간, 독거노인 비율
21	주거실태조사	1인당 주거면적, 주거환경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택임대료 비율(소득대비), 자가점유가구 비율
22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대학졸업자 취업률
23	화재발생 총괄표	화재사망자 수
24	대기오염도 현황	초미세먼지 농도(PM2.5)
25	교육 기본 통계	유아교육취원율

통계자료	국민 삶의질 지표	
26-1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투표율
26-3	OECD Earnings	책임금근로자 비율
26-4	OECD Education at a Glance	고등교육이수율
26-5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가계부채 비율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26-6	WHO World health statistics	건강수명

### 01 가계금융복지조사

- 작성기관 : (주)국가데이터처, (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 작성목적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원 → 지방데이터청(사무소) → 국가데이터처
- 조사대상 : 1인 이상 일반가구
- 조사규모 : 전국 약 20,000가구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가구순자산, 상대적 빈곤율

### 02 가계동향조사

- 작성기관 : 국가데이터처
- 작성목적 :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작성주기 : 분기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원 → 지방데이터청(사무소) → 국가데이터처
- 조사대상 : 전국 거주 일반가구
- 조사규모 : 약 7,200가구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문화여가지출률

### 03 경제활동인구조사

- 작성기관 : 국가데이터처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작성주기 : 월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대상 → 지방데이터청(사무소) → 국가데이터처
- 조사대상 : 15세 이상 개인
- 조사규모 : 전국 36,000가구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고용률, 실업률

#### 04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작성기관** : 경찰청
- **작성목적** : 교통사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행정통계, 경찰서 → 지방경찰청 → 경찰청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도로교통사고사망률

#### 0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작성기관** : 고용노동부
- **작성목적**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사회보험 등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체 특성 및 인적 속성별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지방고용노동청 → 고용노동부
- **조사대상** : 사업체(전국)
- **조사규모** : 근로자 1인 이상 33,000개 사업체, 표본사업체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100만 명 내외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근로시간

#### 06 국민계정

- **작성기관** : 한국은행
- **작성목적** :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생산활동 및 경제성장의 추이를 추계하여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경제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
- **작성주기** : 분기
- **작성체계** : 가공통계, 일부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대상기관 → 한국은행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1인당 국민총소득

#### 07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작성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율을 살펴보고 범죄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범죄현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작성주기** : 2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가구조사(면접원) → 수퍼바이저 → 실사기관 내부검토 → KIC연구원 연구팀
- **조사대상** : 가구 및 14세 이상 가구원
- **조사규모** : 2023년도 7,000가구(목표)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범죄피해율

#### 08 국민건강영양조사

- **작성기관** : 질병관리청
- **작성목적** :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 통계 산출과 만성질환 및 관련 위험요인의 시계열 추이 파악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책목표 수립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 근거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원(설문, 검진 및 계측) →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 질병관리청
- **조사대상** : 가구(1세 이상 가구원)
- **조사규모** : 14,400여 가구 및 가구원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비만율

#### 09 국민여가활동조사

- **작성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작성목적** : 국민들이 여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정부의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원 → (주)나이스알앤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대상** :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규모** : 10,000명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여가시간충분도, 여가시간

#### 10 국민여행조사

- **작성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국가 관광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작성주기** : 월
- **작성체계** : 면접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조사전문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대상** : 15세 이상 개인
- **조사규모** : 개인 월 4,300명(51,600명)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1인당 여행일수

#### 11 도시계획현황

- **작성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 **작성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국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도시행정, 도시정책, 도시연구, 도시개발,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행정통계, 시·군·구(도시과) → 시·도(도시과) → 한국국토정보공사
- **보고단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공표범위** : 시군구
- **활용지표** : 1인당 도시공원면적

## 12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작성기관** : 보건복지부
- **작성목적**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학대아동보호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보고통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 **보고단위** : 개인(18세 미만)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13 사망원인통계

- **작성기관** : 국가데이터처
- **작성목적** : 우리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가공분석(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과 통계법에 따라 전국 시구 및 읍면동에 신고된 사망신고서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영아·모성·태아사망 건에 대한 조사자료로 작성)
- **보고단위** : 개인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아동안전사고사망률, 자살률, 가해에 의한 사망률

## 14 사업체노동력조사

- **작성기관** : 고용노동부
- **작성목적** : 종사자수, 노동이동(입·이직), 빈 일자리수, 임금·근로시간 등을 파악하여 고용·임금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월
-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지방고용노동청 → 고용노동부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월평균 임금

## 15 사회조사

- **작성기관** : 국가데이터처
- **작성목적** :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 **작성주기** : 1년(10개 영역에 대해 격년 조사)  
    짚수년도: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홀수년도: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조사대상 → 지방데이터청(사무소) → 국가데이터처
- **조사대상** : 13세 이상 가구원(2010년까지는15세 이상)
- **조사규모** : 목표가구 18,576가구의 전체 가구원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일자리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실천율, 스트레스 인지율, 학교교육효과, 학교생활만족도, 교육비부담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적 고립도, 가족관계 만족도, 자원봉사참여율, 야간보행안전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대기질만족도, 수질만족도, 토양환경만족도, 소음만족도, 녹지환경만족도, 기후변화불안도

## 16 사회통합실태조사

- **작성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작성목적** : 우리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국제 사회 가치관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로 파악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전문조사원 → 전문조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조사대상** : 19세 이상 가구원(2019년까지는 19~69세)
- **조사규모** : 개인 8,000명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지역사회소속감, 사회단체참여율, 대인 신뢰도, 기관 신뢰도, 정치적역량감, 시민의식,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 17 산업재해현황

- **작성기관** : 고용노동부
- **작성목적** :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당해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시책에 활용
- **작성주기** : 월, 년
- **작성체계** : 행정자료, 재해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 **보고단위** : 전국 사업체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산재사망률

## 18 상수도통계

- **작성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작성목적** : 전국의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 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상수도 시설의 적정 설치·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행정자료, 수도사업자(시·군) → 도·한국수자원공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고단위** : 전국 162개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 **공표범위** : 시·군·구
- **활용지표** :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 19 생명표

- **작성기관** : 국가데이터처
- **작성목적** :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장래의 기대여명을 산출하여 보건·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의 기초자료 및 장애인구 추계작성, 국가간 경제·사회·보건 수준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가공통계, 기초자료 수집 → 인구동태신고자료 보정 → 연령별 사망률 산출 → 연령별 사망률 산출 → 연령별 사망자 수 및 생존자수 산출 → 연령별 정지인구 산출 → 연령별 총 생존년수 산출 → 연령별 기대여명 산출
- **보고단위** : 전국 및 시도의 성, 연령별 사망자 수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기대수명

## 20 인구총조사

- **작성기관** : 국가데이터처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조사 표본틀로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전수)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국가데이터처  
(표본) 조사원 → 구·시·군 → 시·도 → 국가데이터처
- **작성대상** :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
- **공표범위** : 동읍면
- **활용지표** : 통근시간, 독거노인 비율

## 21 주거실태조사

- **작성기관** : 국토교통부
- **작성목적** : 지역별, 계층별 주거실태 파악, 주택 소요량 및 선호도 파악을 통해 공급계획 지원, 주거복지 소요 파악, 정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면접조사, 가구 → 조사전문기관 → 연구기관 → 국토교통부
- **조사대상** : 전국 가구
- **조사규모** : 61,000가구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1인당 주거면적, 주거환경만족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주택임대료 비율(소득대비), 자가점유가구 비율

## 22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 **작성기관** : (주)한국교육개발원, (부)국가데이터처
- **작성목적** : 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진학 등 진로현황 분석을 통해 진로지도 및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가공통계, 조사대상 → 고등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행정통계, 조사대상 ↔ 한국교육개발원 ↔ 공공DB 연계기관
- **작성대상**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원대학, 원격(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일반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 당해년도 2월 및 전년도 8월 졸업자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매년 1월 및 2월 전체 직업계고(특성학교,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졸업자
- **공표범위** : 전국
- **활용지표** : 대학졸업자 취업률

## 23 화재발생 총괄표

- **작성기관** : 소방청
- **작성목적** : 전국의 화재현황을 취합, 분석하여 화재발생 추이 및 원인, 장소별로 분석하고 이를 화재 예방 및 진압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보고자료, 소방서 → 시도 소방본부 → 소방청
- **작성대상** :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산불은 산림청에서 파악)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화재사망자 수

## 24 대기오염도 현황

- **작성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작성목적** : 전국 주요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도 및 산성강하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구온난화 물질의 농도측정,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여 적절한 대기보전정책의 수립, 시행 및 국가간 환경보전 협력방안 관련 대책의 기초자료로 이용
- **작성주기** : 월
- **작성체계** : 보고자료, 시도(자동측정장비) → 한국환경공단(시스템) → 국립환경과학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작성대상** : 전국 대기오염 측정망 510여 개소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초미세먼지 농도(PM<sub>2.5</sub>)

## 25 교육기본통계

- **작성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작성목적** : 국가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자의 교육기초연구에 필요한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
- **작성주기** : 반기
- **작성체계** : 보고자료, 유·초·중등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기타학교 → 시도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국내고등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작성대상** : 전국 유·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 **공표범위** : 시도
- **활용지표** : 유아교육취원율

## 26 그 외 연보 및 국제통계

- **국제투명성기구** : 부패인식지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투표율
- **OECD Earnings** : 저임금근로자 비율
- **OECD Education at a Glance** : 고등교육이수율
-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 가계부채 비율(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 **WHO World health statistics** : 건강수명

## 국민 삶의 질 2025

<b>집필진</b>	이지은,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사무관 심수진, 국가데이터처 조사관리국 사무관 김은아,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주무관
<b>발행일</b>	2026년 3월
<b>발행인</b>	김진
<b>발행처</b>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b>주소</b>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 통계센터 7층
<b>전화</b>	042.366.7314
<b>디자인</b>	동그란북 eumeumeum20@gmail.com

#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KOREA 2025

